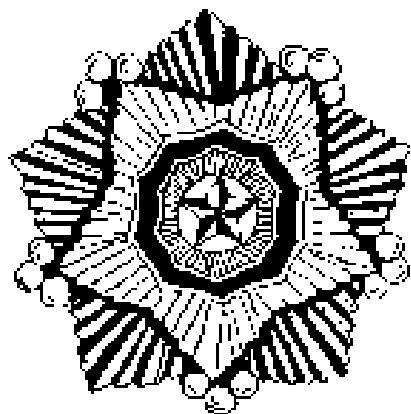


8

주체 94 (200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4(2005)년 제8호

(루계 제 694 호)

차 례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4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기본품성으로 하는 선군혁명투사의 성격을 훌륭히 창조하자.....	4
아, 조국해방.....	8
다듬이질소리.....	9
불타는 백설.....	12
얼음세면물.....	20
장군님 모신 병사의 마음.....	20
주체문학의 대강.....	21
주체문학의 핵으로서의 수령형상문학의 획기적발전.....	21
10 월의 조국이어.....	24
시간을 맞추자.....	24
경쟁도표.....	24
10 월의 기적소리.....	24
해방의 길을 따라서.....	25

아버지의 사랑	30
그리움의 노래	30
간백산의 우뢰	31
장편소설 《평양시간》이 나오기까지	32
백두밀영고향집에 봄비 내리네(외 1 편)	33
어머니의 손저음을 잊을수 없네	33
빛과 어둠	34
《졸작》이 명작으로 된 사연	35
백로떼 날아든다	36
원예사	49
어머니와 딸	51
청춘-돌격대-언제	52
어쩌면 좋아	54
불타는 해야(외 1 편)	55
큰 길	55
성구, 속담	55
경구, 격언	55
우리는 이 별의 주인이다!	56
관리위원장의 하루	57
《가쁘라-타프트협약》	59
초불광장	60
비전향장기수의 진실한 형상, 축복받은 인생에 대한 찬가	71
8.15의 폭풍을 불러오리라	76
통일의 봄비(외 1 편)	77
쌍둥이	77
선군문학의 붓대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녁	78
대동강의 시인	80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항일혁명의 전 로정은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로 보고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광복성전의 1 선에 내세워준 사랑과 믿음의 역사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자기의 피와 땀으로써 당당한 력사의 주체임을 과시해온 위대한 투쟁과 창조적 역사입니다. 이 인민과 인민혁명군의 투사들이야말로 새 조국 건설을 담당하게 될 우리 혁명의 주체였습니다. 인민의 사랑과 지지속에서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투쟁할 때 그 어떤 준엄한 시련도 이겨낼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운 투쟁속에서도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우리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찾아낸 귀중한 진리입니다.**

나라가 해방되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조국을 찾는 일이 어렵지 일단 찾은 다음에 새 사회를 건설하는일이야 무엇이 어렵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건국이야말로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항일혁명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해낸것처럼 우리는 새 조국 건설도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해야 하였습니다. 건당, 건국, 건군은 물론, 민족경제와 민족교육,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포함하는 모든 분야를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자는것이 바로 우리의 결심이였습니다. 인민을 새 조국 건설에 불러일으키자면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하고 동원할수 있는 혁명의 참모부가 있어야 하고 정권이 있어야 하고 새 사회 건설을 무력으로 담보할수 있는 군대가 있어야 하였습니다.》

□사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기본품성으로 하는 선군혁명투사의 성격을 훌륭히 창조하자

조선로동당창건 60 뉘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받아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순간순간을 끝없는 혁명적열의로 폭발시켜나가며 10 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조국해방 60 뉘를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조국해방 60 뉘, 이것은 항일대전의 불바다속을 헤치시고 조국의 해방을 안아오시고 이 땅에 사회주의락원을 꾸려주신 아버지수령님과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조국을 세상에 존엄높은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일떠세워주시기 위하여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의 역사이며 애국의 역사이다.

오늘 우리의 선군문학은 마땅히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으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을 떨쳐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적애국

주의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애국심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규정하는 기본척도의 하나이다. 누구나 애국을 모르면 조국의 푸른 하늘을 뚝뚝이 바라볼수 없고 조국땅에서 살아갈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애국의 길에 인간의 고귀한 삶을 빛내이고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는 길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애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우리 시대 인민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애국심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애착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결합되어있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그 어떤 악랄한 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과시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여놓은데 대하여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한 삶을 누

러운 자랑높은 인민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인 삶을 마련해주었고 창조적열정을 발휘하여 보람찬 삶을 빛내일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이다.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을 떠나 그 어떤 애국심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이 지닌 열렬한 애국심에 의하여 존엄떨쳐온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애국심은 이 땅우에 빛나는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 뚜렷이 새겨져있고 우리 인민이 높이 들고나가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에도 깃들어있다.

사회주의와 운명을 함께 하려는 애국적인민이 있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세계를 휩쓴 정치파동속에서도 끄떡하지 않았고 미제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이 감행되는 속에서도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이야말로 부강조국건설의 추동력이고 힘있는 무기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에 깊고 억센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 혁명의 년대기들속에서 더욱 굳건히 다져졌다.

우리 문학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지닌 선군혁명투사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사람들을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선군시대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기 위한 투쟁은 선군의 기치밑에 진행되고있다. 선군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굳건히 수호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을 밝혀주고있는 애국주의사상이다.

선군시대 참다운 애국자의 전형은 선군사상을 체질화하고 선군정치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사람이다.

우리 문학이 형상해야 할 전형적성격은 선군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체질화한 선군시대의 새로운 성격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기본품성으로 하는 선군혁명투사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정신을 지닌 선군시대의 적극적인 성격을 창조하는것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

의 최고표현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사상과 령도는 조국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혁명의 수뇌부의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고수되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나게 된다.

충성은 곧 애국이며 애국의 높이는 충성의 높이이다.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는 길에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직한 애국자가 되는 길이 있고 값있는 생을 빛내이는 길이 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이자 혁명의 수뇌부의 사상과 령도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김일성민족이 사는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만들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로 일떠세우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 조국을 끝없이 빛내여가시는 장군님의 령도는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신 선군장정의 길우에도 새겨져있고 매 시기마다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되게 하여주신 불멸의 자욱에도 빛나고있다.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초가 한시간이 되어 주기를 바라며 끊임없는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타는 애국의 세계에서 선군시대를 상징하는 시대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되고 만년대계의 거창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게 되었다.

우리 문학은 혁명의 수뇌부의 사상과 령도를 절대적인것으로 믿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워나가는 선군시대의 전형적성격을 더욱 적극적으로 창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길에 애국의 값높은 삶이 있고 장군님의 뜻과 의지대로 일해나가면 반드시 빛나는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기본품성으로 하는 선군혁명투사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숭고한 공민적자각과 양심을 지니고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의 성격을 깊이 탐구하고 진실하게 그리는것이다.

애국에 대하여 말을 하기는 쉽지만 애국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는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자기자신보다 집단을 위해 바치는 고귀한 삶은 강성대국건설의 이름없는 초소들에서 숭고한 공민적자각과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부강조국을 위해 헌신적노력을 아낌없이 바쳐나가는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의 생활에 빛나있으며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는 청춘남녀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에도 비껴있고 수많은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선군시대 《모성영웅》들의 모습에도 어리여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을 지닌 선군혁명투사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선군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들을 현실속에서 더 많이 찾아내고 그들을 원형으로 한 여러가지 형식의 문학작품을 다양하게 창작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제도를 목숨바쳐 지키겠다는 숭고한 공민적자각과 양심을 지닌 사람들로 준비시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지닌 선군시대의 전형적성격창조에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것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더욱 빛내이기 위해 투쟁하는 주인공들의 형상을 옹게 창조하는것이다.

우리의것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몸바쳐 투쟁할수 없다.

참다운 애국심은 자기의것을 빛내어나가기 위한 투쟁속에서 발현된다. 자기의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사람들에게 자기 힘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주고 래일에 대한 락관을 안겨주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손으로 일떠세운 가장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이다.

여기에는 혁명선렬들의 피와 땀이 깃들어있고 인간의 값높은 삶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해주는 토대가 있다.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빛내어나간다는것은 선렬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그대로 살며 투쟁한다는것이며 선렬들이 마련한 고귀한 재부를 아끼고 사랑한다는것이다.

우리의것을 아끼고 사랑할줄 모르면 사대주의가 생기고 남에 대한 의존심이 생기며 언제가도 부강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남의것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는 자력갱생하려는 의욕

이 생겨날수 없다.

우리는 문학작품에서 자기의것을 가장 귀중한것으로 여기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세계를 깊이있게 개방하여 펼쳐놓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애국의 열정을 발휘하여 자기힘으로 강성대국건설에 한몸바쳐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는 선군혁명투사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우리의 귀중한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지켜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모습을 잘 그려내는데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할것이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과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무비의 영웅적위훈을 떨쳐가고있는 선군혁명투사의 전형창조는 날을 따라 더욱 악랄해지는 적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의 한길로 나아가고있는 오늘의 환경에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때문에 미제를 비롯한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지니고 적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원수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으로 가슴 불태우며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결사의 각오로 온갖 맞다드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헤쳐나가는 선군혁명투사의 전형적성격창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해줄것이며 그들에게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의 원수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귀중한 진리를 안겨줄수 있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기본품성으로 하는 선군혁명투사의 성격을 훌륭하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인간학적풍격을 더욱 높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형상을 추상화, 개념화하지 말고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창조할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형상이 추상화되고 개념화되면 작품에 앙상한 론리와 설교만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고 정서적감

화력을 상실하게 된다.

독자들을 형상세계에로 이끌어나가는 생활정서적인 감화력이 없으면 그것은 벌써 인간학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 것이며 따라서 형상이 아니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형상의 추상화, 개념화를 극복하고 현실을 생동한 현실로 감동깊게 재현하여야 한다.

형상의 추상화, 개념화를 극복하는 문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체현한 선군시대의 전형창조에서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 창작실천적인 문제이다.

주체적문제사상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애국심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되는것이 아니라 나서자란 고향과 조국, 부모형제, 동지들과 사회와 집단에 대한 사랑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사회와 인간과 생활을 반영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도덕화하여 시대의 전형을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애국심의 발현과정을 생활적진실과 구체적인 생동성으로 현실 그대로 그려내야 한다.

특히 시가문학형상에서 개념화, 추상화를 철저히 없애고 생활을 정서적인 형상으로 창조하여야 한다.

지금 일부 시가작품들이 사상의 직선적인 로출과 정서의 고갈로 하여 감동이 없고 정서적여운이 없는것은 형상의 개념화, 추상화로 인하여 초래된 후과이다.

소설작품들에서도 주인공의 성격이 생활적진실감을 잃고 작가에 의하여 조작된 인물로 상식적인 개념으로 산 인간의 형상으로 그려지지 못하고있는것도 형상의 추상화, 개념화의 후과이다.

독자들은 결코 작가의 사상의 논리적인 전달자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풍만한 생활의 터전에 뿌리를 박고 생활의 즙과 향기가 풍기는 형상의 꽃을 보려고 한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애국심을 개념적으로 부르짖는 메마른 성격이 아니라 생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랑만도 있으며 인간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인정미가 넘치는 참다운 선군시대의 인간, 애국자의 성격을 창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기본품성으로 하는 선군시대의 주도적성격을 성과적으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실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금 일부 문학작품들이 인간학적풍격을 갖추

지 못하고 형상이 낮은것은 작가들의 실력이 낮은것과 관련된다.

지식의 빈곤, 상식의 빈곤, 문화정서의 빈곤에서 그 어떤 형상의 좋은 결실도 바랄수 없다.

형상의 빈곤은 작가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자질의 빈곤에서 오는 필수적인 귀결이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작가의 정치실무적자질, 재능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작가들모두가 높은 정치적식견과 안목을 가진 박식가, 철학자로 세계적판도에서 재능을 겨루어볼수 있는 작가, 지성인의 대표자로 더욱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높이 발양되고있는 우리의 벽찬 선군현실은 작가들에게 끝없는 창작적충동과 의욕을 안겨주며 재능을 꽃피우는 풍만하고 비옥한 토양이며 원형들이 자라나고있는 생활터전이다.

작가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창작적욕망이 불타오를수 있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참다운 전형들의 체취와 숨결, 애국심의 숭고한 발현을 체험할수 있으며 성격의 진면모를 파악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현실체험을 잘하는 여기에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기본품성으로 하는 선군시대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하게 창조할수 있는 근본담보의 하나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현실체험을 제도와, 생활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우리 문학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지닌 선군시대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작가들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을 구현한 작품창작에 탐구와 사색을 기울이며 작품의 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사람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빛내어나갈데 대한 공동구호의 사상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오로지 조국을 광복하고 인민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20성상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였습니다.》

김 정 일

아, 조국해방

리찬호

너무도 크고 벅찬 환희에
울며 웃으며
이 나라 겨레가 심장을 들먹이며
목메여 불렀던 아, 조국해방!

그것이 무엇이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노예의 채찍에 피흘리면서도
멍든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리도 피타게 찾고 찾았더냐

그 소원 무엇이어서
이 나라 항일유격대, 백두의 투사들
이역땅의 눈비를 다 맞으며
그리도 많은 피를 흘려야 했더냐

진정 그 부름 무엇이어서
젖먹이자식을 남의 집 토방에 내려놓고
너투사는 그리도 강잉히 떠났고
사품치는 물결우에서 투사는
구원의 웨침이 아니라
충. 충을 받아달라고 소원해야 했더냐

조국해방!

내가 못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다하면 손자가 이어서라도
기어이 조국을 찾자던
만경대가문의 위대한 그 뜻이
이 나라 겨레의 넋으로 되였거니

그 넋을 안으시고
열네살에 해방의 길 오르신 우리 수령님!
가시는 길우에 모질게 붙어치던 사나운 눈보라가

다 말해주지 않았던가
조국해방!- 얼마나 멀고도 험난한 길인가를

너무도 비싼 값을 치르지 않았더냐
너무도 크나큰 희생의 대가로
조국이며, 너는
피바다 불바다를 헤쳐
해방의 그날을 맞이하지 않았더냐

우리 수령님의 성스러운 자옥자옥이
영광스런 60년에 다 어려웠고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님의
수령결사옹위의 거룩한 자옥자옥이
뚜렷이 아로새겨진
빛나는 60년!

수령님의 총대위업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실적으로
더더욱 빛을 뿌리는 6년이며!
말하라
민족의 머리우에 찬연히 빛나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길이 번영하는 선군조국이며!
60년전 이 땅에 펼쳐졌던 민족의 환희
하나된 민족의 통일환희로
또다시 삼천리를 진감하리라
가슴벅찬 그날을 안고
우리 삼가 여노라
조국해방 60돐의 성스러운 대문을!

다듬이질소리

고향을 떠난 사람에게는 누구나 애항병이 질병처럼 몸에 배여있다.

해방전 나라를 왜놈들에게 빼앗기고 인간이하의 천대와 학대를 받으며 길가의 조약돌처럼 이국땅에 뿌려져야 했던 우리 인민의 수난의 역사를 헤쳐보면 떠나온 조국, 두고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향기가 짙게 풍긴다.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고향산천, 죽어 뼈라도 묻히고싶은 애수가 가슴마다에 웅어리지는 비참한 생활속에서도 언제부터인가 한줄기 빛이 비쳤으니 그것은 백두산에 대장수가 났다는 이야기였다.

...돌이네가 정든 고향을 떠나 일본땅에서도 머나먼 한쪽 북해도의 탄광으로 끌려온지 어언 10년이 되었다. 그 모진 세월의 하루하루를 돌이네는 말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오고있었다.

돌이의 아버지는 북해도탄광에서 칠성판을 지고 탄을 켜고 어머니는 샳빨래, 샳바느질로 겨우 목숨이나 부지했다.

사람들은 돌이네를 《빨래집》이라고 불렀다.

돌이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몰랐다. 그가 갓 나서 이곳에 왔기때문이다. 가끔 아버지가 눈물이 글썽해서 네 고향은 리순신장군이 왜놈들을 바다물속에 처박은 남해가 마을이라고 말해주곤 했었다.

《집앞에는 키높은 참대숲이 울창하고 노란 감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살기좋은 곳이란다.》

저녁이면 집집마다에서 다듬이질소리가 기분 좋게 울려나온다고 했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그 고향을 왜놈들에게 빼앗기고 돌이네는 《징용》에 끌려간 아버지를 찾아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흘러들었다.

북해도는 일본땅에서도 제일 춥고 척박하여 옛날에는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었다. 그러던것을 왜놈들이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끌어들여 이곳에서 탄을 캔다, 부두를 건설한다 하면서 마소와 같이 뼈기름을 짜내고있었다.

나라잃은 망국노가 되어 제 나라의 말과 글, 성과 이름마저 빼앗긴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머나먼 한끝에 끌려와 낮이면 고혈을 빨리우고 밤이면 떠나온 고향을 그려보며 한탄과 비애에 차

서 가슴을 두드렸다.

돌이의 아버지도 술만 조금 들어가면 《꿈에라도 가고픈 고향 언제 가노》 하며 녀두리를 했다.

돌이의 집에는 가난이 언제나 사나운 악어처럼 이발을 갈며 덤벼들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던 어느날 돌이의 아버지가 피투성이로 된채 들것에 실려 집으로 왔다. 탄광굴이 무너지는통에 다리를 크게 상하고 겨우 목숨이 붙어있는 정도였다.

그날부터 돌이의 아버지는 영영 운신을 못하는 불구가 되고말았다.

《하늘두 무심하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내린단 말이요!》

돌이 어머니는 자기신세를 한탄하며 때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러나 그런 눈물과 한탄으로는 목숨을 연명해갈수 없는 세상이었다.

돌이의 어머니는 아무 일이나 닦치는대로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세식구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있었다.

어떻게 하나 살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 하많은 일감중에서도 《빨래집》이라고 소문이 날 만치 빨래감이 많이 들어왔다.

밤늦도록 그의 집에서는 다듬이질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돌이의 어머니는 샳빨래를 한 다음에는 꼭 다듬이질을 깨끗이 하였다. 맞은편 일본인의 《빨래집》 들에서는 전기다리미를 쓴다, 인두를 지진다 했어도 돌이어머니는 늘 다듬이질을 했었다. 그것은 예로부터 물러오는 조선녀성들의 고유한 관습이기도 했다.

돌이와 아버지도 늘 어머니를 도와나서곤 했다. 풀을 먹여 잘 말리운 빨래감들을 어머니가 물을 한입 물고 푸푸- 소리내며 뿌리면 돌이와 아버지는 빨래감의 네귀를 잡아당기고 놓아주면서 구김살을 펴곤 했다.

돌이는 네모반듯이 포개인 빨래감들을 차곡차곡 무저놓고 하나씩 다듬이돌우에 올려놓아주기도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방치를 량손에 갈라쥐고 다듬이질을 해나갔다. 때로는 이웃집 녀인들이 와서 다듬이질을 함께 하며 밤을 새우기도 했다.

돌이는 아버지의 푸념속에 울리던 고향산천의 다듬이질소리를 여기 이국의 낯설은 고장에서 자장가소리로 들으며 잠들곤 했다.

어느해 여름밤이었다. 그날따라 돌이는 잠들지 못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졌다.

《어머니, 왜놈들이 멀지 않아 망한대요!》

《그건 어디서 들은 말이나?!...》

어머니는 귀가 번쩍 트이는 말을 들으면서도 어지간히 놀란 기색이었다.

못된 왜놈들이 망하라고 온 조선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빌고빌었지만 왜놈관이며 군대며 특무들이 개싸다니듯 하는 이 왜땅에서 저런 말을 함부로 하다니?...

기쁜 말이면서도 그만큼 불안도 커지는 돌이의 어머니였다.

《우리 나라의 백두산에 나라를 구해주실 대장수가 내렸는데 그 대장수님은 축지법으로 왜놈들을 삼대배듯 한대요.》

알아누워있던 돌이의 아버지조차 《그것 참, 병이 다 낫는것 같구나.》 하며 몸을 일으키는것이였다.

《야! 그 대장수님이 이 북해도에도 오셨으면...》

돌이가 한 이 말은 오래동안 방안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백두산이야 예서 어디랴. 아득히 멀고 먼 길이지... 아무리 날개달린 대장수라 한들 어떻게 사나운 만리창과를 헤쳐올수 있으랴. 그것도 우리 사는 북해도에까지...

돌이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번 이런 생각을 하며 부지런히 다듬이질을 해나갔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나니 다듬이방치는 모지라지고 그 소리도 전갈지 않았다. 어느날 밤이 펍 깊어서 다듬이질을 맞잡아 거들어주던 돌이가 《어머니, 저기?!...》 하고 입을 다물지 못한채 굳어졌다.

멀리 하늘에서 하나의 작은 불덩어리가 땅으로 떨어지고있었다. 별찌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크고 이상스러운 불덩어리였다.

돌이는 그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 저쪽에 백두산이 있다지요?》

돌이는 방금 불덩어리가 내리는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렇단다. 백두산이야...》 그 대답을 해주는 돌이의 어머니도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백두산. 그 이름은 여기 북해도 노동자들의 희

망의 등대이고 별이었다.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무장을 드시고 왜적의 백만대군을 벌벌 떨게 하신다는 백두산이야기, 오늘 듣고 래일에 들어도 매번 새롭게만 들리는 백두산대장수의 이야기는 어린 돌이의 가슴에도 고향에 대한 애뜻한 향수처럼 심어지는것이였다.

돌이는 하늘에서 점점 가까스로 떨어져내리는 불덩이를 보며 가벼운 탄성을 내질렀다. 꿈인가 생시인가 그 불덩어리가 분명 자기집 마당에 떨어져내리는것이 아닌가.

돌이는 신도 발에 꿰지 못한채 마당으로 뛰어 나갔다.

불덩어리가 채 사그러지지 않은 곳에 웬 짧은이가 서있었다. 더욱 놀라운것은 그의 어깨며 머리며 발치에 절기와는 엄청나게 대조되는 흰눈이가득 쌓여있는것이였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

《밤중에 안됐습니다. 지나가던 길에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서... 나서 자란 고향을 그릴 때면 다듬이질소리가 제일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어쩐지... 조국을 떠나 이곳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

그 짧은이는 무척 자기의 감정을 다잡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는 한참이나 어머니가 다듬이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방치가 모지라졌으니 소리가 전갈질 않겠군요...》

그는 보통사람이 아닌듯 했다. 돌이네가 살아온 지난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는 멀지않아 그것을 옛말처럼 이야기할것이라면서 침상에 누워 앓고있는 돌이의 아버지의 상처입은 다리를 만져보며 이제 얼마안있어 일어서게 될거라는 믿기 어려운 말을 하였다.

《귀인은 뉘신지요?》

돌이 아버지는 이렇게 의아함을 감추지 못해했다. 그가 떠나간 날 이런 굴쪽지가 방바닥에 있었다.

《저는 백두산의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싸우는 부하입니다. 이번에 그분의 령을 받들고 여기에 왔다가 그 다듬이질소리에 끌려 들렀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그리고 이 땅의 선량하고 아름다운 조선의 어머니들이 즐겨하시던 그 소리는 나에게 정말로 큰 힘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김일성** 장군님께 보고드리렵니다. 장군님께서 무척 기뻐하실것입니다. 왜놈들이 멸망할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꼭 기다려주십시오!》

그가 떠나간 방안구석에는 아버지의 병치료를 위해 남기고 간 약봉지가 놓여있었다.

《이게 꿈이요 생시요?!...》

어머니가 하는 이 말에도 아버지는 방금전의 일이 믿어지지 않는듯 바깥쪽만 바라보고있었다.

며칠후 돌이네집 토방에는 난데없이 다듬이방치가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이것 역시 백두산대장수님의 부하가 놓은것이 분명할텐데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돌이 아버지는 다듬이방치를 눈여겨보며 이건 백두산의 박달나무로 만든 방치라고 했다.

그 이후 돌이네 집에는 이상스러운 변화가 생겼다.

그 젊은이가 놓고 간 약을 먹었더니 움직일수 없던 아버지의 다리에 절로 힘이 뻗치고 닳새만에는 제발로 땅을 밟을수 있게 되었다. 또 돌이네 《빨래집》에서 그 방치로 다듬이질한 빨래들은 별스레 눈처럼 희고 눈부시여 칭찬을 하지 않고서는 지나치기 힘들어했다.

《빨래집》일이 잘되니 앞뒤집의 녀인들이 그 비결을 알고싶어 매일같이 마실을 왔다.

돌이 어머니는 소곤소곤 그날에 있는 신기한 일을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날개가 돋힌듯 녀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남정네들과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북해도땅에 퍼져갔다.

《돌이 엄마의 다듬이질소리를 듣고 백두산대장수님의 부하가 들려갔다우!》

《글쎄 백두산폴로 지은 약을 썼더니 돌이 아버지의 다리가 나았다질 않소...》

《그 부하가 하는 말이 다듬이소리에 고향생각이 나구 하루빨리 조선을 해방해야겠다는 큰 힘을 얻었다고 했대요.》

《돌이네 집에 신기한 다듬이방치가 생겼는데 그건 백두산대장수님이 보내주신거래요.》

《우리도 오늘밤부터 다듬이소릴 올려보자구요. 왜놈들이 휘딱 망하게!...》

녀인들은 모여앉기만 하면 《빨래집》이야기로 시간가는줄 몰랐다.

이후부터 북해도의 조선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에서는 다듬이질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왔다. 처음은 가난과 천대, 멸시의 한숨처럼 들려오던 그 다듬이질소리가 점차 씩씩하고 우렁찬 노래소리처럼 들리어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났다. 간밤에 조선녀인들의 다듬이질소리가 울리면 영낙없이 왜놈들

의 집에서는 복닥소동이 일어나는것이였다.

한 악질감독놈이 잠을 자다가 온밤 방망이에 얻어맞는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깨고보니 놀랍게도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몸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다. 그놈은 병원에 실려간채 죽고말았다.

이러한 일은 그 다듬이질소리와 함께 매일이 다 싫이 일어났다.

하여 북해도땅은 사복경찰들과 밀정들이 그 원인을 밝힌다고 장독에 구데기끓듯 했다. 그러나 아무리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살펴도 별다른 단서 하나 걸어쥐지 못했다.

다른것이 있다면 조선인 빈민굴의 오막살이들에서 밤마다 다듬이질소리가 가락맞게 울려나오는것뿐이였다. 그 소리는 이전에도 종종 들을수 있던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를 귀기울여 듣느라하면 왜서인지 이전과는 달리 오싹오싹 전율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였다. 그 어떤 이상한 힘이 그 소리에서 생기는듯 했다.

그 다듬이질소리에 피멍이 들어 병원으로 실려오는 악질왜놈들의 수가 부지기수였다.

그 소리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본 왜놈경찰들은 일체 이 의심스러운 다듬이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통고장을 돌렸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다듬이질소리는 또 들려왔다. 경찰들을 내몰아 다듬이질소리가 나는 집앞에 이르러 《네놈이!》 하고 벌컥 문을 열고 들어서면 다듬이는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다듬이질소리는 그 옆집에서 들려왔다.

온밤 집집을 뒤져내고 맥을 뽑던 왜놈들은 아예 빈민굴의 오막살이를 몽땅 헐어버리고말았다.

그런데 다듬이질소리는 신기하게도 땅속에서 계속 울려나오는것이 아닌가.

왜놈들이 있는 곳에서는 다듬이질소리에 따라 땅이 움썽움썽하면서 꺼져내리고있었다.

왜놈들은 너무도 혼쭐이 나서 다시는 그 다듬이질소리를 멈추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힘차질수록 자기들의 멸망이 눈앞에 가까와온다는것을 깨닫고 공포에 떨었다.

후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땅속에서 울린 그 다듬이질소리는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돌이 엄마에게 보내주신 그 다듬이방치가 내는 소리라는것이였다.

김종석



박 윤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결심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

...

(혁명가요에서)

밤.

눈보라.

광야의 눈보라.

저 먼 대륙의 한끝에서 불어오는 횡포한 황야의 눈바람이 밀림의 바다를 해일처럼 휩쓴다.

눈, 눈,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나 눈의 장벽이다.

노도처럼 일떠서는 숲의 눈보라는 거대한 은백색구조물을 형성하며 앞을 콕 막아버린다.

백년만에 처음이라는 강설이 장백의 오지에 들이닥쳐 천변만화한 대자연의 가혹성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드는것인가.

광포한 눈보라의 지칠줄 모르는 공격에 신음하듯 태동하는 밀림의 기슭을 따라 7련대는 행군을 계속하고있었다.

오중흡련대장은 적탄에 맞아 너털거리는 군모의 귀덮개를 달아오른 손으로 지그시 누르며 대오를 뒤돌아보았다. 뽕얀 눈발속에 허리치는 눈길을 힘겹게 헤치며 행군하고있는 대원들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든다.

지치고 힘에 겨웁고 걸음마다 애로와 난관이 막아서는 행군길이다. 벌써 대원들은 사흘째 끼니를 번지였다. 상강구방향으로 떠날 때 간수했던 예비식량은 바닥이 난지 오래고 적을 지척에 달고 전투와 더불어 전진하기에 언제 불을 피워 물을 끓여마실 여유도 없었다. 키를 넘는 눈길이여서 풀뿌리도 마른 나무열매도 찾아낼수 없다. 그저 행군도중에 차거운 눈덩이를 집어삼키며 걸

었다. 하지만 대원들은 사기를 잃지 않았다. 사령부를 보위하려는 하나의 의지가 대오를 강철처럼 묶어세워 앞으로 떠밀고있는것이다.

회백색눈보라의 장막을 뚫고 거뭇한 형체가 오중흡의 앞으로 굼뜨게 다가온다.

《련대장동무, 이젠 대오를 휴식시켜도 될것 갈수다.》

북방말투의 억양이 센 련대정치위원 박형률이 다. 입을 열 때마다 뿜어나오는 허연 입김이 금방 얼어붙어 눈보라에 찌락눈처럼 흩어져버린다.

《적정은 알아보았소?》

얼어붙은 공간이 음향마저 삼켜버리는지 오중흡은 목소리를 높였다.

《겨우 따라오던 놈들이 이젠 지쳐버린 모양입니다. 숙영준비를 합니다.》

《오늘이야 고작 백리남짓하게 행군하지 않았소?》

《허허, 펄펄 나는 싸움꾼들인 우리 대원들도 힘겨워하는데 보름째 혼쫓이 난 그놈들이야 견딜리 있습니까?》

박형률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눈보라우는 소리를 삼켜버린다.

장백현에서 조국광복회 본회장사업을 하다가 입대한 로련한 정치위원이다. 혁명성이 투철하고 학식이 있는 동지였다.

서울에서 고학을 하며 혁명운동에 참가한 그는 30년대초에 장백에 들어와 야학도 차리고 지하공작도 진행하면서 단련된 유능한 정치일군이였다.

《그럼 중대별로 휴식합시다.》

《알았습니다. 후방경계엔 내가 나가보겠수다.》

눈무지를 헤치고 오래간만에 모닥불을 피웠다.

불! 불이란 이리도 살뜰한것인가. 대원들은 환성을 질렀다. 하지만 끼니를 에울것이란 역시 눈밖에 없었다. 그 습습한 눈녹인 물을 유감없이 들이마셨다.

오중흡은 대원들을 돌아보고 지휘처로 정한 험벗은 마가목밑 눈웅덩이에 주저앉았다. 다문 몇분이라도 눈을 붙여야 했다. 언제 다시 행군길에 올라야 할지 모른다. 눈을 감았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리속이 지끈지끈하고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다. 가슴속은 큰 산에 짓눌린것처럼 답답하고 가끔 참았던 기침을 깃을 때마다 목이 바늘끝에라도 찢린듯 따끔거린다. 보름째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얼어붙은 눈무지우에 비스듬히 누워 올려다보니 메마른 마가목가지들이 사납게 몰아치는 눈보라에 금시 부러질듯 떨고있다. 그 회오리치는 눈보라의 말기사이로 검푸른 밤하늘이 보인다. 대지는 회백색눈보라에 잠겨 몸부림치는데 광막한저 하늘은 끝간데없이 확 터졌다. 차갑게 얼어붙은 쪽빛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촘촘히 박혀 랭정하게 반짝인다. 아니 별들도 흑한에 얼어든듯 정지상태에 빠져 뿌옇한 빛발을 겨우 내려뜨리고 있다.

별! 별빛! 저도 모르게 가슴은 야릇한 애수에 젖어든다. 원가점! 석현지구의 못잇을 동구길, 안해 전경숙과 함께 걷던 그 얼어붙은 추억의 시내가, 그때 별들은 하늘에서도 내가의 얼음우에서도 반짝였었다. 어린딸 길봉이가 얼음판을 지치다가 넘어졌다. 오중흡은 한달음에 달려가 딸애를 품에 안았다. 길봉이는 아버지의 수염발이 볼을 찌른다고 야단이다. 순진한 안해의 눈가에도 웃음이 피었다. 그런데 원통하게도 그 안해가 소왕청전투때 놈들에게 피살되었었다. 안해는 십리평에서 유격대의 후방사업을 돕다가 라자구쪽으로 피난하던중 다섯째 섬의 얼음판에서 적들과 마주쳤던것이다. 천만뜻밖의 비보를 들은것은 두만강연안의 라자구 어느 밀림속이였다. 오중흡은 숙영지결의 밀림속공지에 홀로 앉아 가슴을 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새날이 밝도록 오열을 터뜨리는 그의 곁으로 **김일성** 동지께서 몸소 찾아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말없이 들고오신 야전밥통을 마른 잔디우에 내려놓더니 품속에서 병을 꺼내시였다.

《중흡동무, 저녁에 찾올가 하다가 실컷 올라고 내버려두었소. 이런 땐 사나이의 눈물을 마음껏 터치는게 피로움을 덜지. 자, 나와 함께 한잔 나누자구.》

《사령관동지!...》

《자, 어서 마시오. 가슴아픈 희생과 시련의 언덕을 넘어 준엄한 우리 혁명은 전진하고있소. 자,

어서!》

오중흡은 사령관동지께서 주시는 야전밥통을 받아들였다.

뜨거운것이 불같은것이 그리고 더없이 따뜻한것이 오중흡의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그는 그만 걱정과 아픔, 감격과 흥분에 못이겨 사령관동지의 무릎우에 눈물에 젖은 얼굴을 묻고야 말았다.

《사령관동지. 절 용서해주십시오! 입술을 깨물며 술한 전우들과 형제들을 묻은 제가 오늘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들먹이는 오중흡의 등을 쓰다듬어주시였다.

《아니요. 아니야! 혁명이란 큰 사랑이요. 우리 혁명가들이라고 왜 눈물이 없겠소. 그 눈물을 원수에 대한 증오로 바꾸자구. 이게 우리가 붉은기 앞에서 다진 심장의 맹세지!》

《사령관동지!》

그 밤, 그 새벽 전사는 장군님의 넓은 품에 안겨 한생을 장군님의 전사로 충정다할 심장의 언약을 다졌다...

오중흡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떠나온 저 북덕령의 깊은 수림이 눈앞에 우렁이 떠오른다.

청백색이깔숲속에 잠시 가리웠던 사령부행군서령이 밋밋한 룡선에 나타나자 그는 발돋움을 하였었다. 그러나 아무리 눈정기를 모아도 이제는 사령관동지의 모습을 가려볼수 없었다. 오중흡은 마음의 탕개를 늦추며 눈굽을 적셨다. 이제는 사령부가 잠시나마 안전지대에 들어선것이다. 누군가 가물거리는 대렬끝에서 손을 저었다. 누군가! 경위중대장 김병수인가? 아니면 사령관동지께서 대렬끝에서 기다리시며 친히 손저움을 보내주셨을가? 그렇다면 어서 돌아서라는 그이의 분부가 아니겠는가?

오중흡은 간밤에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었고 지금은 7련대가 위치하고있는 깊은 골짜기를 돌아보았다. 한줄로 이어진 발자국이 아득히 뻗어있다.

그것은 방금 사령부가 행군해간 발자국이였다.

오중흡은 이윽고 이깔나무가지를 들고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했다. 이 골짜기에서 빠져나간 발자국은 7련대와 8련대, 독립대대의것만 남겨두어야 한다.

간밤에 사령관동지께서는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남파자에서 떠난 행군과정을 중간총화하시고 7도구치기 골짜기초입에 들어섰을 때 내놓으신 방침대로 부대를 세개 방향으로 분산하여 활동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에 붙이시였다. 적들이 아군을 포위하기 위하여 힘을 한곳에 집중하여 공격해오는 조건에서 우리는 재빨

리 부대를 나누어 놈들을 갈가리 해쳐놓아야 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러한 방침에 근거하시어 7련대는 적을 달고 상강구방향으로 빠져나갈 것이며 8련대와 독립대대 역시 적을 달고 동강방향으로 나가고 사령부는 경위중대와 함께 립강-장백 일대를 선회할데 대한 대담한 구상을 내놓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어려운 전투를 몸소 치르시면서도 처음 내놓으신 구상대로 규모와 폭을 더 넓히시었다.

부대가 갈라지게 되면 적들의 력량은 분산될것이지만 그대신 부대의 전투와 행군강도는 더욱 높아질것이었다.

출발일정을 토의할 때 오중흡이 갑자르다가 의견을 제기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 내놓으신대로 7련대와 8련대가 먼저 떠나고 마감으로 사령부가 떠나게 된것을 사령부가 먼저 떠나고 7련대가 맨 마지막으로 떠나도록 제기한것이다.

지휘관들의 한결같은 제기를 들으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오중흡의 얼굴을 지켜보시었다. 오중흡의 얼굴은 언제나와 같이 조용한데 약간 우수가 비낀듯 한 넓은 이마에 굵다랗게 꼭 찍힌 눈섭만이 드물지 않는 마음속결의를 말해주듯 두드러져보였다.

《그래 동무들은 내가 떠나는것을 봐야 마음을 놓겠다는겁니까?》

《...》

사령관동지께서는 나무가지로 불무지를 헤치시다가 눈길을 다시 드시었다.

《다들 앉으시오. 그래 동무들을 남겨두고 내가 먼저 떠나면 나역시 마음을 못놓을게 아닙니까?》

《사령관동지.》

오중흡은 모자를 손으로 주무르며 절절하게 말 씀을렸다.

《우리 련대는 적들이 그리 주목하는것도 아니고... 적들은 지금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령관동지. 사령부의 안전은 곧 조선 혁명의 안전입니다.》

8련대정치위원이 오중흡의 제기를 적극 지지해 나섰다.

지휘관들의 강경한 립장에 사령관동지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윽하여 경위중대의 기관총 한개 분대를 7련대에 배속시킬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었다. 혹은 떼려다 붙인 격이 된 오중흡이 굳어진 표정으로 그이를 간절히 바라보았으나 사령관동지께서는 더는 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불쑥 물으시었다.

《오중흡동무의 모자는 오늘 전투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아마 탄알이 좀 스친 모양입니다.》

오중흡은 당황하여 모자를 등위로 가져갔다.

《아주 위험할번 했습니다. 어디 봅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귀덮개가 떨어진 모자를 헤쳐보시다가 다시 오중흡에게 돌려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오중흡의 손과 마주치자 문득 잡으시었다.

《그런데 왜 이리 손이 뜨겁습니까? 안색도 좋지 않고...》

오중흡은 열결에 손을 뺍으며 얼굴을 붉혔다.

《아닙니다. 밤새 전투를 지휘하느라 열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요? 허허허, 오중흡련대장이 아직 대원시절의 모험기가 좀 남아있는것 같습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때문에 매사에 심중해야 합니다. 명령과 함께 떠밀고 이끌어주는게 혁명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동지!》

그렇게 사령부와 헤어진 7련대였다.

그렇게 사령관동지와 헤어진 오중흡이었다...

오중흡은 다시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백색눈보라의 세계, 멀리 립강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금쯤 사령관동지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이께서는 안녕하신지? 끼니는 번지지 않으신지? 너무도 멀리 떨어져있으니 안타까웠다. 련대가 사령부로 위장하고 근 보름째 적의 주력을 달고 피어린 강행군을 하고있지만 사령부를 생각하면 한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사령부- 그것은 오중흡의 생명이었다.

사령관동지-그이는 조선혁명의 심장이었다. 민족의 생명선이었다.

바로 사령관동지의 그 품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민족의 한 성원인, 이름없던 조선청년인 오중흡이 혁명의 진리를 깨닫고 오늘은 혁명대오의 지휘성원으로 성장한것이다. 사촌형의 죽음앞에 마음의 의지를 잃고있을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몸가까이 부르시어 혁명의 총대를 안겨주시었고 의지가 없는 그의 일가친척들을 따듯이 돌봐주시고 혁명의 믿음직한 투사들로 키워주시지 않았던가.

태양이 없는 이 세계를 생각할수 없듯이 혁명의 수뇌부-**김일성**장군님을 떠나 우리 혁명도 오중흡자신도 조선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었다.

적들에게 피살되기전 오중화형님이 그에게 당부한 말이 불쑥 뇌리를 친다.

《중흡아,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다.

장군님을 잘 받드는것이 우리 전사들의 도리고 운명임을 명심해라!》

오중흡은 달아오른 시선으로 다시 그이께서 제 실 립강-장백쪽을 바라보았다.

밀림의 바다에 회백색눈보라가 뽀얀데 캄캄한 하늘이 눈앞을 가릴뿐이다.

어둠속으로련락병이 급히 뛰어왔다.

《련대장동지, 숙영하던 적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후방경계에 나가있는 정위동지가 정황을 알려왔습니다.》

《알겠소.》

7련대를 사령부로 착각하고 뒤따르는 적들에게 새로운 긴급지시가 내린 모양이다.

대오는 다시 행군길에 올랐다.

눈보라, 눈보라, 밀림의 눈보라, 이제는 눈발들이 얼다못해 날카로운 유리조각들처럼 되어 얼굴을 콧코 찌른다. 얼굴이 푸르죽죽 얼어 그 아픔조차 둔하다. 신발은 판이 날대로 나버리고 추위에 가지덤불에 군복도 너털너털해졌다.

대원들은 허리치는 눈을 가까스로 해치며 한결 음한걸음 전진하고있다.

추위는 인간에게서 열량을 평소보다 더 빼앗는 것이다.

오중흡은 쓰러진 전우들을 일으켜세우며 대렬의 앞으로 나갔다. 앞에서는 붉은기를 든 정치위원이 힘겹게 길을 내고있다.

행군대렬은 여전히 굼뜨게 움직이고있다.

오중흡은 우뚝 그 자리에 멈춰섰다. 멀리 밀림의 바다너머 산봉우리들이 검보라빛으로 어렴풋이 눈에 안겨든다. 동이 트려는가 보다.

오중흡은 가까스로 전진하는 행군대오를 뒤돌아보았다. 그는 바람세찬 둔덕에 올라서서 대원들에게 부르짖었다.

《동무들! 힘을 내라! 사령관동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사령부의 안전을 지키는 성스런 길임을 잊지 말라! 동무들!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오중흡의 웅골은 목소리가 노호하는 눈보라의 울부짖음을 뚫고 광야에 메아리친다.

행군대오는 다시 활력에 넘쳐 굼틀굼틀 움직인다.

눈보라.

려명.

밀림의 바다.

전설적인 7련대의 행군대렬이 전진하고있다.

멀리 하늘가에 동이 트고있다.

×

설한풍이 휩쓰는 장백의 광야에 또 하루가 저물어갔다. 광막한 대지에 어둠이 깃들자 갑자기 바람이 하늘중천에서 몽켰다터졌는지 희멀건 강철빛 눈보라말기가 룡권처럼 치솟아올라 천고의

대밀림을 뒤흔든다. 그러면 잠들지 못하는 밀림은 뿌리채 뽑을듯 광란하는 눈보라에 온몸을 내맡기고 우듬지들을 통곡하는 너인의 머리채처럼 흔들려댄다.

경위중대장 김병수는 사령관동지의 지시대로 숙영지들을 칸칸히 돌아본 후 근심에 싸여 이갈 나무숲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오늘도 사령관동지께 식사를 전혀 보장해드리지 못한것이다. 아무리 간고한 행군길이라 하여도 이 김병수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장군님께서 식사를 며칠씩 건느시게 했다는것을 알면 오중흡련대장이랑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남패자를 떠날 때 그 선비갈던 오중흡이 정색한 낯으로 그를 이끌고 비서처의 외진곳으로 가서 기업을 토하던 일이 어제런듯 생생하다.

《여보, 김동무, 우리 피차 속을 툭 터놓고 말해 보지요. 동무나 내나 장군님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뭐가 되었겠소. 동무는 장군님을 몸가까이에서 보위하는 제1호위병이요. 우리가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한다는게 뭐겠소. 찍어말하면 우리 장군님을 한목숨 바쳐 옹위한다는게 아니겠소! 우리들의 이 심정을 동무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되겠소!》

그 7련대장은 지금 어떻게 싸우고있을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자주 7련대가 있는 상강구쪽 하늘을 바라보곤 하시었다.

이갈숲의 우등불가에 이르니 사령관동지께서 자리를 뜨셨는지 보이지 않았다.

전령병 백학림이 립초를 서다가 경위중대장을 알아보고 자세를 바로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어디 가셨소?》

《방금 우리가 행군해온 그 벼랑쪽으로 가셨습니다.》

《뭐요? 그 벼랑아래엔 적들이 있는데... 호위도 없이 떠나셨소?》

《리오송동무가 함께 갔습니다.》

김병수는 얼어붙은 생눈을 헤치며 벼랑쪽으로 움직여갔다.

검은색 벼랑가까이에 솟은 아릅드리나무밑에 장군님께서 서계시었다. 그이께서는 나무우에 올라간 리오송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계시었다.

김병수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다가갔다.

《오송이, 그 왼쪽을 보라구. 그렇지. 발을 조심하오. 그러다 떨어지겠소. 허, 제법 다람쥐같은걸.》

사령관동지께서는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계시었다. 털모자안에 무엇인가를 담으신것 같았다.

그이께서는 김병수를 띄여보시자 미소를 지으시었다.

《경위중대장동무요? 대원들을 휴식시켰소?》

《예, 다들 우등불가에서 잠들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한순간 안색을 흐리시였다.

《속이 비었으니 잠인들 제대로 오겠소.》

김병수는 코허리가 시큰하여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굵실굵실한 술진 머리칼이 밀림의 바다를 스쳐온 눈바람에 날리고 안팎에는 자애깊은 사색이 비껴 번쩍이였다.

《사령관동지, 모자를 쓰셔야겠습니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눈길을 내리시고 모자안을 들여다보시였다. 김병수는 달빛에 드러나는 조글조글한 마른 열매를 얼핏 살펴보았다.

《아까 행군중에 보니 이 나무에 오미자덩굴이 오르지 않았겠소. 오송이가 날과람이 있어 우에 좀 남아있는걸 마저 털어오겠다고 올라갔소. 눈무지를 뒤졌는데 얼마 없구만.》

김병수는 나무밑의 눈웅덩이들을 여겨보다가 사령관동지의 별경계 달아오른 손에 눈길이 갔다.

《?...》

《오중흙동무와 헤어질 때 손을 만져보니 생각외로 뜨거웠소... 평소엔 손이 차서 심장이 뜨거울거라고 누군가 말하지 않았소. 그 동무의 안색도 좋지 않았소. 아마 고열에 걸린 모양이요. 기침이 심했소. 이 오미잘 간수했다가 장복하게 해야지 그러단 천식으로 넘어갈수 있소.》

사령관동지께서는 리오송이 나무에서 내려오자 다시 논란을 뒤지기 시작하시였다. 김병수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눈속을 헤치시는 그이의 일손을 도와드리려 헤덤비였다.

우리 전사들은 얼마나 뜨겁고 자애깊은 품속에 안겨있는것인가? 며칠전에는 전투를 앞두고 오중흙련대장의 모자가 말이 아닌데 좋은것으로 하나 구해야겠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사령관동지.

정녕 사령관동지의 그 대양같은 사랑의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딘가!

이윽하여 숙영지로 향하는 김병수는 언 가슴이 다 녹아버린듯 하고 마음이 따뜻한 봄언덕에 올랐을 때처럼 훈훈해지며 앞날에 대한 희망이 창공의 새처럼 가슴속에서 퍼덕이는것을 느꼈다.

그렇다. 사령관동지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어려워도 행복하고 언제나 어떤 역경속에서나 백전백승하는것이다,

문득 며칠전에 있는 부후물등관전투가 생각났다.

사령부와 경위중대가 부후물등관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발자국을 발견한 적들이 검질기게 뒤를 따라왔다.

보고를 받으신 사령관동지께서는 통나무 몇대를 찍게 하시고는 그대로 메고 산기슭을 끼고 돌

게 하시였다. 그렇게 한바퀴 돌자 먼저번 발자국 자리에 다시 들어서게 되였다. 적들은 어둠속에서 빨찌산이 낸 발자국만 졸졸 따라오다니 한 번 지나친 곳을 다시 돈다는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왔다. 때마침 앞쪽에서 적들의 무리가 또 나타났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때를 리용하여 메고오던 통나무를 놓고 감쪽같이 산으로 대오를 빠지게 하시였다. 다리로 사용한 통나무를 치워버리니 빨찌산은 간곳없고 발자국만 그냥 산기슭을 끼고 돌아갔다. 적들은 부지런히 추격전을 벌리다가 마주오는 부대와 조우하였다. 상대방도 유격대를 찾아다니는 《토벌대》라 기승을 부렸다. 맹렬한 화력전이 벌어졌다.

신묘한 전술에 걸려든 적들은 동이 틀 때까지 계속 맞총질을 해댔다.

김명수는 그때 사령관동지께서 축지법을 쓰신다고 인민들이 전설적으로 칭송하는것이 결코 신화적인것이 아니라는것을 체감했다.

우리 사령관동지의 이런 신출귀몰하는 비범한 전법과 천리혜안의 예지가 있었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은 지금까지 빛나는 승리의 행적을 수놓아온 것이 아닌가.

김병수가 숙영지를 돌아보고 우등불가에 도착하자 진대나무에 앉아 글을 쓰시던 사령관동지께서 손을 흔드시였다.

《경위중대장동무, 이리 오시오.》

사령관동지 주위에는 리오송과 백학림 등 전령병 몇이 머리를 수그리고 서있었다.

《사령관동지, 웬일이십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손에 드신것을 들어보이시였다.

《이 리오송동무가 꽤 살림군이요. 이렇게 비상용미시가루를 들고 나를 찾아오지 않았겠소. 마침 잘되었소. 이리들 오시오. 며칠씩 굶었으니 얼마나 시장할하겠소.》

리오송은 안타까움이 실린 애된 얼굴로 사령관동지의 팔을 붙잡았다.

《사령관동지, 이걸 안됩니다. 한흙도 되나마나한데... 사령관동지께서 드셔야 래일 또 전투를... 우린 방금전에 조금씩 먹었습니다.》

리오송은 억울한듯 김병수를 돌아보았다.

김병수는 가까이 다가가 퇴색한 보위색미시가루주머니를 살펴보았다. 옆코송이가 터진것을 빨간실로 꿰맨것을 보는 순간 김병수는 모든 사실을 알았다. 그것은 청봉밀영으로 떠나기전 김정숙동지께서 리오송의 배낭에 넣어주신것이였다.

김병수는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녀전사의 세심한 충정을 생각하며 아무말없이 그 전대를 받아들였다.

무거운 기색으로 서있는 대원들을 일별하시던 사령관동지께서는 청청하게 웃으시었다.

《허허허… 꺾은 보리자루들처럼 서있지 말고 자, 이리들 나앉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거의 울상이 되어 서있는 전령병들의 손목을 끌어당겨 앉히시었다. 그이께서는 배낭에서 꺼낸 신문지를 펴고 한흡되나마나한 미시가루를 쏟으시었다.

《경위중대장도 오오. 이게 좀 많으면 좋겠는데 어찌됐소. 이것을 한말쯤 되는것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배가 부를거요.》

사령관동지께서는 종이손가락을 만드시여 둘러 앉은 대원들에게 한몫씩 나누어주시고는 손수 더운물을 고뿌에 부어주시었다.

김병수는 뜨거운 고뿌를 두손으로 부여안고 머리를 짓수그리었다. 우렁우렁하신 사령관동지의 말씀이 귀전을 울리었다.

《유격대의 식량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전투를 잘 치르면 해결되는거요.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행군을 하며 고난을 겪고있지만 이제 후대들은 락을 보게 되거든.》

사령관동지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몫을 고뿌에 담으시며 눈길을 드시었다.

《지금쯤 7련대와 8련대동무들이 뭘 먹고있는지 모르겠소. 오중흡동무는 기침이 심했는데…》

이깔숲, 눈보라, 우등불이 타오른다. 천고의 밀림,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헤가르며 사랑의 우등불이 활활 타오른다.

전방경계에서 전령병이 뛰어왔다. 8련대에서 통신원이 도착했는데 적들이 숙영하고있는 벼랑뒤쪽에서 큰 전투가 벌어진다는것이였다. 그것은 파광딩즈부근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신중한 눈길로 대원들을 둘러보시었다.

《8련대동무들이 아니라면 분명 7련대요. 지금쯤은 그들이 사령부와 만나게 되어있지 않소. 경위중대장동무, 곧 전투준비를 해야겠소. 8련대에도 연락하시오. 아무래도 7련대가 힘겨운 전투를 치르는것 같소!》

벌써 새벽이 가까와오고있었다.

밀림속으로 려명의 첫 푸른빛이 기여들고있었다.

×

눈보라.

침침한 재빛하늘.

겨울은 이 엄청난 대륙의 천고밀림에 배수진을 치고 마지막양탈을 부리고있다.

봄. 봄은 어디에 있는가? 대륙의 봄은 더디다. 하지만 장엄하다. 겨우내 눌러있던 지열이 분노

를 터칠 때만 겨울은 마지못해 물러가는것이다. 겨울은 더는 물러설 땅이 없을 때까지 대자연에 맞받아 독을 피운다. 침침한 눈구름은 대지우에 낮추 드리워 마지막랭기로 광야를 얼우고 눈바람을 일구어 자기의 위력을 강그리 시위하려든다.

오중흡은 련대를 이끌고 북대정자방향으로 행군해가고있었다. 얼마전에 정찰조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7도구치기에서 사령부와 헤어진 이래 한달이 넘어 지양개치기까지 왔을 때 사령부가 13도구거리를 들이쳤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것이다.

장군님께서 무사하실뿐만아니라 몸소 13도구전투를 조직지휘하셨다는것은 오중흡의 마음을 기쁨에 뜨게 하였다. 크나큰 충격과 기쁨이 온몸을 굽이쳐간 뒤로 그보다 결코 못지 않은 의문이 머리속을 채웠다.

가재수에서 사령부의 위치가 드러났다니 벌써 7련대가 사령부로 가장하는것이 무의미하게 되였다.

적들은 이미 며칠전부터 7련대의 뒤를 마지 못해 따르며 주력은 장백쪽으로 이동해버렸다. 의도적으로 야간습격까지 수차 조직하며 꼬드겼으나 보람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 부대가 다시 모여 사령관동지의 구상을 옆에서 받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그것은 멀리에 계시는 사령관동지께서 자기들을 부르시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령부로 쏠리는 적들을 앞질러가서 사령부를 지켜야 한다.

이제는 적들을 돌려세우려고 발목이나 잡아챌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전투를 벌려야 한다. 한시바삐 장백, 림강, 대도로부근으로 먼저 진출해야 한다.

그렇게 떠난 새 행군길이였다.

그렇게 시작한 새 전투였다. 그날밤중으로 전투서열을 편성하고 적의 숙영지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가 전투를 벌렸다.

7련대는 장백땅에 들어서서 혼마려단과 합세한 대집단을 발견하였다. 적집단은 북대정자쪽으로 이동하고있었다. 정찰조는 그 부근에서 사령부가 활동하고있다는것을 확인했다.

지체없이 련대는 적들을 맞받아 대각선으로 강행군을 시작했다.

땅이 울고 하늘이 우는 피의 행군길.

눈보라를 뚫고 적의 산병선을 뚫고 철의 대오는 움직여갔다.

혈벗고 지친 대원들이였지만 사령부를 지키려는 하나의 일념을 안고 전진해갔다.

《경위동무, 적들과 조우하려면 시간이 언제쯤 되겠소?》

오중흡은 옆에서 헉헉 가쁜숨을 몰아쉬며 걷고 있는 박형률을 올려다보았다.

간고한 행군의 나날에 박형률의 철빛얼굴은 빼만 남은듯 싶다.

《이놈들도 독을 품고 달려오고있으니 한시간도 안걸릴것 같소다. 칼벼랑부근쯤에서 마주칠것 같소다.》

박형률의 목소리만은 랑만가답게 밝고 우선우선하다.

《행군속도를 높임시다. 칼벼랑맞은편을 타고와야 하오.》

《그곳을 타고갔으면 뒤가 대도로이니 물러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박형률은 의아한듯 손으로 눈보라를 가리며 오중흡을 바라보았다.

《사령부가 지척에 있는데 우리가 물러설 땅이 있습니까? 결사전을 벌려서라도 이 언덕에서 적을 제지해야지...》

오중흡의 목소리는 단호하였다.

《련대장동무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박형률의 목소리는 다소 갈려 있었다.

《대원들을 잘 준비시켜주시오. 우리가 사령부를 결사옹위하여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전투결속을 잘해야지요. 우리 **김일성**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강철의 성새가 됩시다!》

《알았수다. 련대장동무!》

밤, 어둠, 눈보라.

7련대가 행군해가고있다. 결사의 각오를 품은 전사들이 총과 폭탄이 되어 사령부를 지킬 결심밑에 강행군길에 올랐다.

행군대오는 어둠속을 뚫고 움쉴움쉴 전진해갔다.

오중흡은 대오의 선두에 서서 걸음을 옮기며 자기가 유격대에 입대하기전 총을 로획하려는 결심밑에 자유주의를 부려 적구에 내려갔던 그때를 회상했다.

총! 그것은 그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조직에서는 그의 무규률성과 자의적인 행동을 무자비하게 비판했다. 그후 유격대에 입대한 날 사령관동지께서는 몸소 오중흡에게 보충을 수여해주시면서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오중흡동무, 이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혁명을 사수하기 바라오. 어느때나 총대가 흔들려선 안돼! 믿겠소!》

총!

총대!

틀어진 총대!

그 총대는 흔들려본 일이 없었다. 혁명의 수뇌부, 우리 장군님을 옹위하는 그의 총대는 단 한번도 그를 배신한 일이 없었다.

오중흡은 긴 숨을 몰아쉬며 대오를 둘러보았다.

전투는 밤늦게 시작되어 새벽녘까지 계속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수적우세를 믿고 적 《토벌대》는 산릉선을 향해 산병선을 폈다.

물방으로 터지는 수류탄과 적박격포란에 언덕이 불타고 산갈이 쌓인 눈이 녹아내렸다.

희생도 적지 않았다. 예비탄약마저 떨어져갔다.

적들은 일곱차례의 공격이 좌절되자 력량을 새로 편성하느라 잠시 지체했다.

오중흡은 눈과 흙이 범벅이 되어 뜨겁게 달아오른 흉장우에 몸을 기대고 언덕아래 채빛산기슭을 살피보았다.

쌍안경에 적군용자동차들이 부산스레 움직이는 것이 안겨들었다. 적병력이 증강된것이다. 이윽고 눈보라와 새벽어둠속에 발톱까지 무장한 적들의 공격서열이보였다.

오중흡은 곁에 다가온 박형률을 돌아보았다.

《정위동무, 탄약도 떨어져가니 마지막 결사전을 준비합시다.》

《믿으시우다. 련대장동무, 우리 련대는 사령관동지앞에 다진 맹세를 지킬것입니다.》

오중흡은 박형률의 두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고맙습니다!》

적들은 새벽어둠을 리용하여 겹겹이 포위진을 치고 압축해왔다.

물러설 땅이 없었다. 가까이에는 사령부가 있었다. 우리 사령관동지께서 계시였다. 한몸이 그대로 작렬하는 총폭탄이 되어서라도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옹위해야 한다.

오중흡은 문득 흉장우에 몸을 일으켰다.

그는 피끓는 눈으로 대원들을 돌아보았다.

《동무들! 결사대원동무들! 놈들은 우리 혁명의 사령부를 노리고있소! 우리가 물러설 땅이 있는가! 한치도 물러설수 없소! 모두다 혁명의 사령부-**김일성** 장군님을 목숨으로 사수합시다! 돌격앞으로!》

7련대의 전체 대원들이 폭풍처럼 일떠서서 결사전을 벌릴 때 익측 산릉선에서 랑랑한 나팔소리가 울렸다.

오중흡은 귀떨어진 모자를 움켜쥐고 익측 산릉선을 바라보았다. 흰 위장포를 쓴 사령부경위중대와 낮익은 8련대동무들이 합성을 지르며 채빛산골짜기를 향해 진격해오고있었다.

우렁찬 만세소리에 질겁한 적들이 황급히 공격을 멈추고 퇴각하기 시작했다.

유격대는 랑익측에서 적들을 조이며 드세찬 공격을 들이댔다...

오중흡은 전투가 끝나자 익측 산릉선을 향하여

달려갔다.

산릉선의 이깎나무숲가에 사령관동지께서 서계시였다. 그곳은 파광딩즈 뒤산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언제나 단정하고 희던 오중흡의 얼굴이 꺼질하게 여위고 푸르죽죽해진것이 가슴아프신듯 안색을 흐리시였다.

숨이 비죽이 내민 오중흡의 군복우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똑 하고 떨어져내리였다.

《중흡이, 잘 싸우고 돌아와서 울긴...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중흡의 두어깨를 한품에 감싸안으시는 사령관동지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번쩍이고있었다.

《사령관동지!》

오중흡은 더는 말을 잊지 못하고 그저 그이의 넓은 품에 아이처럼 안길뿐이였다.

《여전히 그 모자를 쓰고있구만. 내 그러리라 짐작하고 13도구를 들이칠 때 하나 장만해놓았소.

전설적인 차빠예브사단장도 부러워할만 한 모자요. 허허, 병수동무, 련대장동무의 모자를 가져오오! 그걸 쓰면 목은 고뿔도 달아날거요.》

오중흡은 모자를 받아안았다. 뜨거운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모자 귀덮개 한옆에 《7련대장 오중흡》이라고 박아쓴 활달한 글자가 눈에 안겨들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낮익은 사령관동지의 필적이였다.

오중흡은 사랑의 털모자를 품에 꼭 끌어안고 7련대전사들쪽으로 걸어가시는 사령관동지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러러보았다.

천하를 쥐락펴락하시는 영웅호걸의 그 담대성과 얼음우에도 꽃을 피우는 세심하고 따뜻한 어버이의 그 사랑이 어쩌면 신비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런 느낌이 커갈수록 오중흡은 사령관동지의 위인상앞에 자기자신이 더욱 작게만 생각되어 가슴이 달아올랐다.

눈무지에 빠졌다나온듯 온통 눈투성이의 군복차림인 전령병 리오송이 숨을 할딱이며 뛰어왔다.

《련대장동지, 제가 하마트면 이걸...》

오중흡은 뜨거운 사색에서 깨어나 리오송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

리오송은 군복섶을 헤치고 천에 싼 군용물통을 꺼내들었다.

《련대장동지가 기침을 낫을 때마다 드리라고 사령관동지께서 친히 마련하신 오미자물입니다. 이걸 덥혀가지고 뛰어오느라 시간이 좀...》

리오송은 빙글빙글 웃으며 군용물통을 내밀었다.

오중흡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물통을 받아안았다.

그는 조각상처럼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했다.

《련대장동지, 빨리 한모금 드십시오. 따끈할겁니다.》

오중흡은 군용물통을 기울였다. 흑한속에 이미 오미자물은 식어버렸다. 하지만 불보다 뜨거운 것이 오중흡의 폐부로 흘러들고있었다.

《아직 따끈하지요?》

《그래 오송이, 난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뜨거운 물을 마셔본적이 없소!...》

오중흡의 눈곱에서 눈물이 번쩍이였다.

오중흡은 후더운 눈길로 7련대전사들을 만나시는 사령관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을 오래도록 우러러보았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눈물은 샘줄기마냥 터져 마를줄을 모르고 그냥 달아오른 불을 따라 흘러내린다.

눈물이 핑 도는 그의 시야에 산릉선에 서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숭엄하신 모습이 안겨든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온 천지가 붉은 색깔로 물들어버렸다.

하늘이 온통 붉은빛으로 타버진다.

사령부의 붉은기와 붉은 하늘과 눈보라가 한데 어울려 저렇게 거대한 붉은 기폭처럼 나뭇기는 것이다.

그 거창한 붉은기를 추켜드신듯 우리 사령관동지께서 산언덕에 거연히 서계시였다.

오중흡은 매혹과 흠모의 진실한 감정에 휩싸여 사령관동지를 오래도록 우러러보았다.

(**김일성**장군님! 그이는 민족의 태양, 사랑의 화신이다. 그이는 우리 혁명의 붉은기이다!)

사령관동지를 받드는 우리 전사들은 이 붉은기를 지켜, 이 붉은기아래 영원한 친위병들로 충성 다할것이며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할것이다!)

눈보라!

눈보라!

불타는 눈보라!

붉은기가 나뭇긴다. 멀리 안개낀 조국땅우에서 새 아침이 밝아온다.

밝아온다.

얼음세면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한 충실성의 숭고한 귀감으로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을 무수히 남기시였다.

해방후 겨울 어느날이였다.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대동강이 얼었는가를 자주 알아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 일군에게 지난 여름에 장마당에 갔다가 얼음덩이에 잠근 물고기를 파는것을 보았는데 그 장사군은 겨울에 대동강에서 얼음을 꺼내여 건사하였다가 그렇게 쓴다고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도 얼음을 장만해야겠다고 하시며 얼음덩이를 건사할수 있도록 저장고를 훌륭하게 꾸려놓으시였다.

날씨는 추워져 대동강은 두텁게 얼어붙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대동강에서 큰 얼음을 꺼내여 버겨속에 차곡차곡 저장하시였다.

이듬해 여름이 왔다.

김정숙동지께서 얼음저장고를 어찌나 정성껏 관리하시였는지 문을 여니 한아름씩 되는 얼음덩이가 그대로 보관되어있었다.

차고 시원한 얼음덩이를 바라보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여간만 기뻐하지 않으시였다.

무더운 여름 어느날 점심시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면을 하려고 하시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얼음덩이가 동동 떠있는 그릇에서 시원한 랭수를 가져다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쁨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며 정말 시원하군, 어디서 이런 얼음이 생겼소, 이렇게 더운 때에 얼음이 어디서 났소 라고 말씀하시였다.

얼음에 깃든 깊은 사연을 알게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깊은 감동에 잠겨계시였다.

〈가사〉

장군님 모신 병사의 마음

김경준

그리워 꿈결에도 가까이 뵈고싶은
장군님을 우리 중대 모시는 경사났네
선군령장의 품에 안긴 꿈같은 날이여서
이 하루 가슴속에 행운으로 새겨졌네

오시여선 중대살림 따뜻이 돌보시며
가슴마다 무적필승 용맹을 주시였네

선군령장의 품에 안긴 복받은 날이여서
이 하루 병사는 두번다시 태어났네

우릴 안아 기념사진 뜻깊게 찍으시며
총대삶의 절정우에 올려세워주셨네
선군령장의 품에 안긴 영광의 날이여서
이 하루에 병사는 한생을 엮고사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은 작가의 지적창조물이다.》

《문학의 지성도는 나라와 민족의 문명수준을 표현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문학의 지성세계를 높이는것은 현 대 의
절실한 미학적요구이다. 사람의 사상의식과 문화적
소양은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발전한다.》

《문학의 지성세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인물의
리지적인 성격을 옹계 살려내야 한다.》

《작품에서 리지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을 그릴
수도 있고 지성이 낮은 인물을 그릴수도 있다.

어떤 형의 인간을 그리든지 그에 대한 작가
의 평가와 리상의 높이가 중요하다. 지성이 낮은

인간을 그려도 그를 높은 지성세계에서 형상해낸
다면 작품은 충분히 지성도를 보장할수 있다.》

《작품의 지성수준은 전적으로 작가의 지성도에
의해 결정된다.》

《작가는 독자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작가는 백을 알고 하나를 가르쳐야지 하나를
알고 하나를 가르치려 하여서는 안된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여 다 지성이
높은것은 아니다. 풍부한 지식은 사상문화적인
높은 수양과 결합되어야 한다. 아는것이 많고
수양이 높은 작가는 작품을 써도 지성이 있는
좋은 작품을 쓴다.》

◇론설◇

주체문학의 핵으로서의 수령형상문학의 획기적발전

김해월

오늘 우리 주체문학은 수령형상문학을 핵으로
하여 힘있게 발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형
상한 혁명문학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인
류문예사상 처음으로 수령형상을 핵으로 하는 주
체문학의 대전성기가 찬란히 펼쳐졌다.

우리의 수령형상문학은 항일혁명문학의 영광스
러운 전통에 력사적뿌리를 가지고 찬란히 발전하
였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을 노래한 첫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밤하늘
에 밝게 비치는 희망의 별로 겨레의 운명을 구원
하고 삼천리 조국강토를 빛내주실 새별로 격조높
이 노래하였다.

수령형상문학은 해방후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
어서게 되었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
군의 노래》와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창작은
수령형상문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형상문학은 위대한 장군님
께서 일찌기 문학예술사업을 령도하신 그때로부
터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사업을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으로 규정해
주시고 우리 문학을 수령형상창조를 주선으로 하
여 힘있게 건설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
성있게 반영하는것은 수령형상문학창작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여기에서 총서 《불멸의

력사》의 창작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
한 혁명력사가 가지는 영생불멸의 의의와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우리 혁명문학발전
이 가지는 합법칙적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수령
님의 혁명력사를 총서형식으로 형상할데 대한 새
로운 방도를 제시하시고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주
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관심속에 우
리 수령형상문학은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
는 장편소설 《빛나는 올랐다》, 《혁명의 려명》,
《은하수》, 《대지는 푸르다》, 《봄우뢰》, 《193
2년》, 《근거지의 봄》, 《백두산기슭》, 《잊지
못할 겨울》, 《준엄한 친구》를 비롯하여 항일무
장투쟁시기편이 성과적으로 창작되었다.

수령형상문학창작사업은 총서 《불멸의 력사》
에 속하는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의 장편소설들 창
작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
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통찰력과 세심한 지도
에 의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빛
나는 아침》은 총서 《불멸의 력사》 해방후편 첫
작품으로 훌륭하게 창작되었다.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이 거둔 사상예술적성
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첫 민주
주의적개혁인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한 장편소설 《조선
의 봄》,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령도하
신 군사전략가,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한 장편소설 《50년여름》, 《조선의

힘》, 《승리》, 《푸른 산악》이 편이어 창작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수령형상문학은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뿐만 아니라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왕성하게 창작되어 그 화원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수령형상단편소설이 수많은 창작되어 수령형상소설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있다.

특히 수령형상시문학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와 양상의 시가작품들이 탐구되어 수령형상문학의 화원을 더욱 다채롭게 장식하고있다.

우리의 수령형상문학은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형상하는 획기적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주체문학은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형상을 문학작품에 모시는 최대의 특전을 누리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고 계시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형상한 문학작품들에서 뜨겁게 고동치고있는것은 우선 위대한 향도성을 모신 우리 인민의 환희와 긍지, 흠모의 감정이다.

작품에 세차게 굽이치고있는 이 환희와 긍지, 흠모의 정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였기에 주체위업의 휘황한 앞날을 가지게 되었을뿐 아니라 그 승리의 날을 확신성있게 앞당기고있는 인민만이 가질수 있는 환희와 긍지이다.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길에서 전당과 온 사회를 하나의 숨결로 높뛰고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일심단결의 불패의 위력을 이룩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힘, 독창적인 사상, 리론에 담겨진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샘과도 같은 예지,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을 한손에 틀어쥐고 어느 한분야도 빠짐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비상한 속도로 혁신과 비약의 새 력사를 창조해가도록 이끄시는 현명한 령도,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버이라 부르며 그 품에 나날수 없다고 목메여 노래하는 자애로운 인민의 지도자.

참으로 우리의 작품들에 맥맥히 흐르는것은 이 모든것을 심장으로, 온 뱃으로 체득한 인민만이 간직할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며 향도의 태양을 받들게 된 크나큰 행복이며 자랑이다. 이것은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이다.

이 전인민적인 환희와 긍지, 흠모의 정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고있는것이 시가문학이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이다.

격동하는 시대일수록 가사는 더 높이 울리며 시대의 첨단에서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대변하여 세차게 메아리친다. 이것이 시대와 생활에 대한 문학의 반영에서 합법칙적인 현상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위업의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신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장군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전인민적감정을 노래하는 데서 평가사들이 많이 창작된것은 특기할 사변이며 경사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시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우리 당과 혁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업적과 위인적품모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신뢰와 칭송, 경애하는 장군님을 대를 이어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송가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혁명송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노래》, 《대를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노래》,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 《**김정일**화》 등 평가사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존경과 흠모의 정을 노래한 평가사들에는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서정적주인공들의 매혹된 심정이 진실하게 체현되어있으며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이 정서를 통하여 구현된것으로서 우리 가사문학의 혁신적면모를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이다.

우리 시가문학은 또한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령도하시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서정시, 서정서사시, 서사시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시고 무비의 담력과 통이 큰 작전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격동적인 화폭에 담아 형상한 서사시 《불타는 해》를 비롯하여 시집 《향도의 해발을 우러러》에 수록된 수많은 시작품들과 주체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되려는 우리 시대 아동들의 감정세계를 노래한 동요, 동시 등 주체위업계승의 빛나는 향도성을 노래한 수많은 시가작품들이 왕성하게 창작되었다.

이리하여 우리 시가문학은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작품창작은 소설문학을 비롯한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크고작은 형식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되고있다.

특히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이 창작됨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서사시적화폭에 담아 그리게 되고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를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형상한 첫 장편소설은 《아침해》이다. 이 소설의 중요한 성과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형상을 수령의 후계자의 풍격에 맞게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장편소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품모와 비범한 예지, 령도적인품에 감복하고 매혹되는 등장인물들의 체험세계를 진실하게 펼쳐보이면서 사상정서적감화력을 보장함으로써 그이후 위대한 장군님을 형상하는 장편소설창작에 귀중한 경험을 남겨놓았다.

장편소설 《아침해》가 발표된후 경애하는 장군님을 형상한 장편소설 《예지》, 《불구름》이 세상에 나오고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들인 《푸른 하늘》, 《동해천리》, 《력사의 대하》, 《평양은 선언한다》, 《전환의 년대》, 《평양의 불화》, 《전환》이 창작발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 장편소설창작의 전성기가 마련된것은 주체문학력사에서 참으로 뜻깊은 의의를 가지는 경사중의 대경사였다.

우리의 수령형상문학은 위대한 선군정치의 새 시대를 반영한 선군혁명문학이 창조되어 보다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길에는 위대한 생활로 충만된 위대한 인간의 빛나는 서사시가

수놓아져 있다.

우리 작가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어려운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자욱 자욱을 따라가며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는 것을 드팀없는 창작적신조로 삼고 작품을 창작하였다.

선군혁명문학은 위대한 령도자의 비범한 정치철학과 령도예술,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역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였다.

선군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시기에 창작된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들은 우리당의 선군혁명사상, 총대철학의 진리성과 독창성,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있는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총대》, 《총검을 들고》, 《강계정신》, 《라남의 열풍》 등은 그 대표작들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들은 출중한 정치가이시고 무비의 담력과 지략을 지니신 선군령장 김정일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훌륭히 형상하였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총대》, 《총검을 들고》는 뛰어난 지략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선군령장 김정일 장군님의 품모와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내세운 우리당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인민군인들이 발휘한 혁명적군정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하며 역센 힘을 발휘하는가를 극적화폭으로 진실하게 펼쳐보임으로써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숭고한 헌신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돌과구를 열고 선군혁명령도로 장엄한 역사를 펼치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강계정신》, 《라남의 열풍》은 강계정신을 창조하고 라남의 열풍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헌신의 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형상을 통하여 선군조선이 지닌 백승의 원천을 예술적으로 심오히 밝힘으로써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하고 수령형상문학의 높은 풍격을 과시하고 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과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천만의 심장을 격동시켜 일심 대오로 튼튼히 묶어세워 불패의 위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진리를 힘있게 천명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를 력사적으로 폭넓게 반영한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들이 높은 사상예술수준에서 련속적으로 창작되어 수령형상문학의 화원을 풍만하게 한 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며 인류문학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혁명의 붉은기 높이 추켜드리고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이어가시는 선군령장 김정일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뛰어난 령군술과 숭고한 인민적품모를 칭송한 시대의 기념비적시가작품들이 창작되어 빛을 뿌리고있는 것은 특별히 주목되는 성과이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 장군의 노래》와

가사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높이 들자 붉은기》,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정일봉의 우뢰소리》,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3대장군의 총》, 장시 《인민은 말한다》, 《빛나라 불멸의 위업이여》,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 《전선길의 3일이야기》 등이 그 대표작들이다.

시대정신을 담은 이 송가작품들은 현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의 위대성과 천하대적도 한손에 쥐락펴락하시는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 행복의 영원한 창조자로서의 우리 장군님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와 불타는 충성의 사상감정을 서사시적 화폭속에 담아 감명깊게 시화하고 있다.

이처럼 천출명장으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감격없이 체험할수 없는 격동적인 사변들과 사실들을 폭넓은 정서적화폭에 담아 서정적으로 노래한 시가작품들이 창작됨으로써 주체문학의 핵으로서 수령형상문학은 획기적발전을 이룩하였다.

수령형상문학에서 수령영생문학이 새롭게 창조된 것은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되는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비범한 예지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창조적사색으로 력사에 류례없는 수령영생문학창조사업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반영한 작품창작을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바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과 비범한 예술적천품, 크나큰 심혈과 사색속에 수령영생의 기념비적송가인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와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가 훌륭히 창작되었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는 선군의 새 시대에 새롭게 출현한 새형의 서사시로서 풍만한 서정미와 력사적사실자료와 생동한 생활세부에 기초한 폭넓은 서사시적화폭의 창조로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과 영생을 드높이 레찬한 기념비적작품이다.

이 서사시의 창작에 뒤이어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번영하라 김일성 조국이여》,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 등 여러편의 서사시들이 창작됨으로써 수령영생시문학의 심오한 창조세계와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인 주체83(1994)년의 혁명활동을 감명깊게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영생》은 수령영생문학의 화원을 빛나게 장식한 작품으로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장시 《인민의 어머니》, 장막희곡 《어머님의 당부》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이 창작됨으로써 주체문학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문학으로서 혁명적본색을 더욱 뚜렷이 하게 되었다.

참으로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획기적발전을 이룩한 우리 수령형상문학은 날로 발전하는 주체문학의 주류를 이루고 앞으로 승승장구하며 찬란히 개화발전할 것이다.

<백시묵음>

10 월의 조국이어

박상철

조국이어 그대의 드높은 숨결은
우리 당이 안겨준 혁명구호
그대가 틀어쥔것은 구호가 새겨진 기발
그대의 노래는 《아리랑》

조국이어 그대의 씩씩한 걸음은
10월의 광장으로 가는 승리의 일행천리

그대의 자욱은 10월의 창조물
그대의 옷자락은 10월의 풍요한 들

조국이어 그대가 우러르며 가는곳은
우리 장군님 높이 모신 10월의 축전장
그대가 터칠 우렁찬 환호성은
아, 위대한 우리 당에 영광, 영광을!

시간을 맞추자

박희구

구호의 숨결로 10월을 빛내라고
우리 당이 세워준 10월의 리정표
하늘도 땅도 구호로 숨쉬고
사람도 시간도 구호속을 달린다

우리의 목표는 10월의 대축전장
천만군민 한마음되어 시간을 맞추자
장군님 높이 모실 10월의 광장
그날에 들어설 영광의 시간을

경쟁도표

정연광

갱으로 들어가기전에
언제나 그러하듯이
착암기 둘러멘 탄부들
경쟁도표앞에 모여선다

마음의 신들에 든든히 조이며
10월을 향해 가는 길을 본다
대축전장으로 들어서는 길은
저 붉은 도표가 가리키고있기에

10 월의 기적소리

강세현

탄광에 가면 탄부들이
림산에 가면 벌목공들이
기관사, 나의 손을 잡고
뜨겁게 부탁한다
10월을 향해 더 빨리 달려가자고

그러면 나는 기적소리로
불타는 맹세를 약속하나니
뜻깊은 10월의 그날에는
승리자의 이 기적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며
위대한 그 품에 달려가 안기리라

◁시뮬임▷

해방의 길을 따라서 어둡던 그 세월에

김휘조

잊지 못할 말들이 내 머리에 떠오른다
외양쇠
광산굴쟁이
그리고 지팽이를 켜 종신불구자...
그것이 나의 아버지
자서전에 있는 말들이다

눈뜨고도
푸른 하늘이 안보이는 세상이었더란다
외양간에 거적을 깔고 태어나 외양쇠
뼈도 굳기전에 막돌처럼 굴러다니
컴컴한 막장
일제놈의 채찍이 살을 물어뜯던 막장

가도가도 숨막히는 세상이었더란다
아침이면 호박익쉬은 멀건 보리죽도
몇술 못뜨고 집을 나선
나의 아버지 해골같은 얼굴
밤에야 집에 오던 지친 발걸음

그래서 동생들은 굶어죽고
막장이 무너져
아버지는 종신불구가 되고...
아, 삼킨 설음 가슴에 새긴 원한아
그것이 어이 나의 아버지 자서전만이였으랴

그것은 또 가랑잎처럼 막돌처럼 짓밟히던 그
세월
이 나라 아버지 어머니들의 자서전이였다
그것은 일제의 구두발아래 짓밟혀 신음하던
이 나라의 피맺힌 력사였다

한가닥 햇빛도 없던 세월이여
나라를 빼앗겨
목숨도 제것이 아니던 세월이여
내 머리엔 떠오른다
채찍이 물고간 일본군 《위안부》들
총칼이 강요한 《징용장》, 《징병장》들
왜놈이 주인처럼 날뛰던 그 세상에
인생아닌 인생들이 시들고있었구나

오늘도 이 가슴
분노로 세차게 끓어번진다
그리고 잊지 못한다

이 나라 민족사에
피로 얼룩진 말들
외양쇠, 일본군 《위안부》, 《창씨개명》...
그 피젖은 말들은
이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준다
조국
조국이란 그 말의 참뜻을

선 포

김명철

이깎나무 울창한 등판에
붉은기가 펄럭이고있었다
새 군복 차려입고 정렬한 대오
그앞에 서게시는 우리 수령님
생각은 깊으시였다

얼마나 기다려온 날인가
얼마나 보고싶었던 우리 군대인가
아버님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도
어머님 지어주신 풀물들인 군복들도

뜻깊은 이날에 바쳐진것 아니던가

저 대렬앞엔
오늘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
카륜과 길림의 동지들이 서있는듯
아마도 저 대원 지금 잡고 있는 총엔
룡당 나무 그 피가 스며들어 있으리

애오라지 오늘을 위해
때로는 총칼앞에 가슴도 내대고
때로는 눈속에서 밤도 지새우며
생사를 함께 해온 그대들을 다 불러
가슴벅찬 이 감격을 나누고 싶은
우리 수령님 마음이어!

돌이켜 보면 나라를 찾자고
만국회의장에서 배도 갈라 보고
거리에 떨쳐나 목청껏 웨쳐도 보았건만
그 웨침 피로 젖고
피젖은 눈물 돌처럼 삼켜온 민족이었다

그 어떤 《청원》으로써는
결코 나라를 찾을수 없어
우리 혁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인민!-
무장에는 오직 무장으로!

그 기치높이 들고 묶어세운 이 대오

이 한사람한사람이 천만 군사 이끌고
이 총 한자루 천만총검 숲이 되어
강도일제를 쳐물리치면
어둡던 조국땅에 밝은 해빛 눈부시고
우리 민족의 창창한 앞길도 열리려니

겨레여, 보느냐!
우리 군대가 여기 있다!
총대가 약하여 빼앗긴 내 나라
총대를 틀어 잡고 기어이 다시 찾아
인민의 살기 좋은 새 세상을 세우자!

오, 력사의 언덕에 높이 서시여
민족의 수난사에 종지부를 찍으시며
주먹을 높이드신 우리 수령님
자기 손에 무장을 든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항일대전을 선포하실 때

하늘이 울리었다
땅이 울리었다
망국노의 원한서린 세월이 흔들렸다
삼천리강산에 봄빛이 무르녹아
장쾌한 눈석이가 시작되고 있었다

전설이 먼저 왔다

고남철

항일전의 나날
언제나 먼저 왔다
우리 수령님보다 우리 수령님 전설이
이 나라 거리와 마을마다
삼천리강산 그 어디나

가랑잎 하나 띄워 놓고
압록강도 바람같이 넘나든다는
그 전설이 짜하게 퍼지던
그 여름에 해방의 봄빛 안고
항일의 김대장 보천보에 오셨고

한걸음에 천리를 가고
하늘땅을 주름 잡아 달린다는
그 전설을 앞세우고
우리 수령님
대낮에 갑무경비도로를 행군하셨지

제눈으로 본듯이 방금 보고 온듯이
우리 **김일성**장군이 함흥에 와서
리발을 하고 가셨다는 이야기
백두산에 걸터앉아

왜놈 《천황》에게 불호령을 내리셨다는 이야기

언제나 전설이 먼저 왔다
김대장만 믿고 김장군만 따르며
기다리고 그려보는 인민은 마음속으로
신화의 거인으로 그려보았건만

개선판장에서 처음으로 뵈옵던 날
젊으신 우리 수령님 모습 우러러 만민은
놀랐구나

그 놀라움조차 환희의 전설을 낳아
2천만 가슴에 안겨준 창창한 조선의 앞날
삼천리강산은 우리 수령님 전설의 삼천리

예로부터 전설은 위인을 칭송하여
후세가 위인에게 얹어준 빛발이더라
허나 항일전의 날과 달은
우리 수령님 전설을 언제나 앞세우고 왔더라
해빛이 순간에 구만리창공을 비쳐오듯
우리 수령님 빛발 우리 수령님 전설은!

북대정자어

김정철

혁명의 배낭을 메고
선군의 길을 가는 내앞에
오늘도 우렛이 어러오노라
투사들이 걸어간
력사의 그 고난의 행군길이

눈보라... 눈보라... 지나긴 눈보라...
그 한끝인듯 날리는 백포자락...
먹을것도 없었다 입을것도 없었다
악착스런 원썩들을 뒤에 달고
허리치는 눈속을 헤쳐가는 강행군

자옥자옥 죽음보다 더 어려운
피어린 혈전만리-
아득한 북대정자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곳이었던가
저 하늘나라의 지명이었던가

허나 대오는 갔다 붉은기와 함께
부모처자 기다리는 고향땅도 아닌
이국의 거친 땅
이름도 귀설은 그곳으로

오 북대정자 그것은 투사들 가슴속에

한갓 지명이 아니였거니
그것은 설움과 눈물에 얼어붙은
빼앗긴 삼천리 강토우에
해빙기가 시작될 봄날이었고

등지않은 새처럼 나라잃고
산지사방으로 뿌려졌던 민족이
엄마 찾아 아빠 찾아 돌아오는 그 길우에
목메이게 울려갈
환희의 기적소리였고

개선의 광장에
민족의 태양을 높이 모실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해방이었다
력사의 고난의 행군은
그 언덕으로 오르는 지름길!

오 오늘도 내앞에 있노라
조국을 찾는 싸움보다 못지 않는
조국수호전의 준엄한 길우에
력사의 고난의 행군과 함께
기어이 오르고야말 강성대국의 령마루
우리 세대의 북대정자가

항일대전의 메아리

김휘조

말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동조동근》, 《내선일체》의 울가미가

이 나라의 숨통을 조이고...

어데 있었더냐 이 나라의 넋은

구시물동 소연한 물소리를 타고

우리 수령님 이끌어오신 철의 대오

보천보에 지펴올린 불길이어!

경찰관주재소에 맞구멍을 내고

일제의 머리우에 지른

그 불길에 있었다 내 나라의 넋이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숨져가는 이 땅에 심장을 준 불길이어

그 심장을 안고

조선의 피줄이 뛰었다

×

어지러운 말발굽소리도 요란히

먼지를 떠일구며

땅에 떨어진 제국의 위신을 추켜세우려

조선총독이 《토벌》에 내몬 《정예부대》

그 《정예》가 과연

제국의 위신을 얼마나 추켜세웠던가

오늘도 간삼봉은

세월의 갈피를 헤쳐 말한다

혁명군의 몰사격에 골짜기에 처박힌

《야마도정신》이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우리 수령님앞에

일본제국의 위신은 한갓

몸뚱이 없이 텅구는 호박대가리신세란것을

×

5호물동가의 진달래 향기를 안고

갑무경비도로를 번개처럼 꿰어

대흥단벌에서

가슴에 재운 분노를 터쳐

일제침략자들을 삼대처럼 쳐눕히며

벼락치던 총성

아, 그 총성

신사동 목재소의 컴컴한 함석집

고역에 노그라진 처서군들만이 들었던가

돌밭을 뛰지며 허리굽은 농군들만이 들었던가

온 나라가 들었다

가까와오는 조국해방의 그 함성을

×

동에번쩍 서에번쩍

신출귀몰 하는 유격대를 《전멸》시키겠다고

마에다 대장놈은 혈서를 쓰고

왜놈순사들은 《결사》의 유서를 쓰고...

하지만 흥기하골짜기는 벼락을 쳤더라

놈들의 그 《황군정신》 그 《충성》을

시체로 쌓으며

《토벌》의 긴칼들을 영영 꺾어 버리며

전멸된 마에다부대

바람에 가랑잎처럼 날린

그 혈서

그 유서

대일본제국은 그렇게

우리 수령님앞에 항복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탄 생

한원희

신비로운 꿈과도 같이
세상에 다시없는 전설과도 같이
백두광명성 솟아오르던
아, 그날

찬란한 그 빛발 우러러
환호성 높이 감격에 눈물젖은 투사들
천고의 밀림 아름답드리나무마다
영원하고 불멸할 글발을 새겼다
-동포여, 보느냐
김대장뜻 이을 백두광명성 솟았다!

민족의 대통운 대경사의 그 소식
환희의 세찬 파도되어 굽이쳤다
눈보라 만리 불바다 만리에
성스러운 백두전역에

또 한분 백두산장군을 맞이했거니
항일의 폭풍 만리광야에 일으키며
용기백배 붉은기높이 나아갔다

적들의 아성을 더 세차게 무너뜨리며
얼마나 크나큰 앞날의 희망과 신념을
용암처럼 화산처럼 불태워주었던가
래일의 굳건한 승리와 믿음이
항일유격대에
얼마나 억센 용맹의 나래를 달아주었던가

삼천리강토가 터쳐올린 그 환호성
왜놈들 죽치는 총포성으로 이어졌다
그날의 그 감격 그 열풍이
봄우뢰마냥 울려갔다
해방의 하늘가로

아, 항일의 대전장에
전설처럼 솟아오른 백두광명성
전설처럼 무적필승의 힘을 안겨주었다
그이의 탄생은
해방된 조국의 미래를 안아온
이 나라 력사의 장엄한 해돋이였다!

〈풍자시〉

두무릎은 땅바닥에 쿡-
두손은 하늘공중에 버쩍-
하느님 맙시사 제발 목숨만
《토벌대》오장이 와들와들 떨고있네

그저 무릎만을 꿇지 못해
발로 밟은것은 찢어진 《일장기》
그저 손만 들어도 안심치 않아
꼭뒤에 받쳐든건 불맞은 《일본도》

자, 어쩔텐가
《대일본제국》의 《무적황군》이라면
죽더라도 《야마도정신》으로
제 배를 갈라 순직해야 마땅한데

《천황》과 총알

김명철

유격대를 《소멸》 하기전에는
살아 돌아가지 않으리라
《천황》 폐하앞에 맹세까지 하고도
매복에 걸려들자 손부터 쳐드니

어찌겠나, 섬나라의 《천황》 폐하
《대동아공영권》을 위해
사구라꽃처럼 깨끗이 지자고
입버릇처럼 외우던
자네가 모범을 보여줄수밖에

폐하께서 몸소 이 백두산밑에 와서
어디 《도뜨끼》를 소리쳐보라구
아마 빨찌산총알이
저저마다 자네와 만나자 할걸세

아버지의 사랑

양치성

어서 빨리 자라
큰사람되라고
너에게 기울인
이 아버지의 사랑

아들아
군복 입고 초소로 떠나는 이 시각
너 혹시 생각지 않느냐
집 떠나
이제는 그 사랑도 멀어 진다고

앞으로 갓!-
지휘관의 구령따라
발끝을 맞추며 시작할 병사생활
너는 거기서 깨닫게 되리라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것인가를

행군도중 모닥불가에서
전우들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수 있어도
거기엔 다 있단다
가는 기침소리에ど 약을 먹여 주고
이불깃 여며주던
이 아버지의 다심한 사랑이

별돋는 저녁
철봉대앞에 너를 세우는
그 분대장의 엄격한 반복 구령에는

다 있단다 더 좋은 신을 사주지 못해
한쪽 구석이 무겁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아 너는
아버지의 사랑을 웃으며 받았다면
그것으로써는 도저히 가닿을수 없는
동지애라 불러우는 값진것을 받으려니

이제 너는 성장하리라
사랑과 증오를 한몸에 지니고
명령앞에 복종만을 알며
조국의 기대와 믿음을 빛내이는
나라의 큰아들로
우리 장군님의 참된 병사로

하기에 이 나라의 아버지들은
자식을 키워 군대에 보내는것을
제일로 기뻐 한단다
아들에게 주는 사랑중에서
제일 큰사랑으로 여긴단다!

아 선군의 오늘을 빛내여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 곁으로 너를 떠밀어 준
이 아버지의 기쁨을 안고
아들아 가거라
어서 떠나거라!

〈가사〉

그리움의 노래

박두전

그리움 그리움은 영웅을 낳네
평양하늘 우리려 하늘을 난 그 전사
한몸이 육탄되어 결사옹위 영웅됐네
아 그 전사는 장군님을 그리며 싸웠네

그리움 그리움은 기적을 낳네
척박하던 고산땅에 세벌농사 펼친 너인

눈덮인 땅우에도 새봄을 불러왔네
아 그 너인은 장군님을 그리며 일했네

그리움에 영웅도 많은 내 나라
그리움에 날마다 기적을 낳는 조국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불 타는
아 그리움은 장군님 옹위하는 신념이네

간백산의 우리

서봉제

광야는 드넓어도
혈전의 언덕, 설악을 넘어온
붉은 기발의 천만대오
감격에 설레던 이 땅이었다

수림은 울창하여도
저기 사령부의 큰 문을 나서시던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아, 그 순간을 기다려
군모의 별들 해빛에 부시던 이 밀림이었다

말하라
항일대 전쟁의 증견자
간백산아, 너 오늘은
60년전 깊은 가슴을 헤쳐
한껏 웨치라

백두화산에 뜨겁게 달구었던
겨레의 복수를 안고 달려온 총검의 숲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 병사대회에서
조국해방최후공격작전을 선포하신
수령님을 우러러 터치던 그날의 환호성
오늘도 백두밀림에 메아리친다

기나긴 항일의 수십성상
더운 눈물도 많이 흘렸고
붉은 피와 목숨도 많이 묻었고
굶주림과 추위와 싸워 이기며
항일혁명의 굵직한 도화선에
조국해방성전의 마지막 불을 달아주신
전설적영웅 김대장!

맑게 트인 이 땅, 이 하늘을
내 뜨거움에 바라보노라
신록이 짙은 언덕, 련련히 뻗은 산밭은
적진으로 육박하던 천군만마인듯싶다
대공을 찌르는 이갈숲의 저 설레임소리

그날에 파도치던 철의 대군의 함성인듯싶다

백두산의 천연요새 간백산밀영
에서 불을 달고간 총대의 폭풍
저 멀리 만향고개
일제의 영구화점들을 하늘로 날리었고
훈춘의 파달령을 넘어 압록강을 건넜더라
두만강의 깊은 강물을 헤쳐
그립던 조국산천에 뜨거운 불을 비비였더라

노예의 사슬에 묶인
땅만을 불태웠던가
철퇴의 진을 쌓은 바다만이 끓었던가
파죽지세로 돌격한 항일의 장엄한 대오
전민항쟁에 일떠선 거세찬 불바다는
긴긴 암흑세월 짓밟힌 겨레를
끝내야 자유강산에 안아세웠나니

치욕의 채찍아래 피를 끓인 그 원한
더는 참을수 없어 폭발된 그 증오
자주의 총대에 멸적의 총탄으로 재웠기에
조국에 보내는 백두산의 대답을 안고
고향이 새겨준 못잇을 당부를 안고
우리 수령님 밀림의 우등불을 다 모아
내 나라 하늘가에 터쳐올리신
해방조선의 환희의 축포여

그것은
일장기를 거만스레 휘두르던 일본렬도에
민족의 불을 재운 항일유격대의 번개였다!
오,
위대한 백두령장의 총공격명령은
일본제국주의 《대본영》을
백두산총대의 가차없는 불로 꺾어버린
되성이었다!

-간백산혁명전적지에서-

장편소설 《평양시간》이 나오기까지

오늘 독자들속에서 널리 애독되고있는 장편소설 《평양시간》(최학수작)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자애깊은 사랑속에서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주체58(1969)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소년들을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가지고 널리 교양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작가들에게 훌륭한 인식교양적가치를 가진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소재들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털어버리고 력사의 강, 보통강기슭에 천리마거리, 락원거리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로 솟아났으나 작가들은 이 놀라운 현실, 이 빛나는 로동계급의 위훈을 담은 소설을 쓸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작가들은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깊은 자책과 후회에 모대기던 작가는 평양시건설과 관련한 장편소설을 쓸 대담한 결심을 다지고 평양시건설자들속에 들어가 취재도 하고 생활체험도 하면서 소설창작을 무르익혀나갔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과 달랐다. 감동적인 이야기거리리는 많고 현실은 벅찼으나 그것을 소설로 옮겨놓자니 마음먹은대로 붓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사색과 탐구의 나날이 흘러 붓을 든지 어느덧 1년반이 지났으나 그는 초고를 내놓지 못하였다.

그는 몹시 초조하여 어쩔줄 모르며 안타까이 모대기고있었다.

바로 그러던 주체61(1972)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창작가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튼튼히 세우고 문학예술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이제는 수령님께서 키우신 로동당시대의 젊은 창작가들이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장편소설창작에서 마음의 진통을 겪고있던 작가로 하여금 위대한 로동당시대에 자라난 젊은 작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도록 정신적자세를 바로잡아주시였으며 창작실천상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종자를 바로잡아야 작가의 사상미학적도를 정확히 전달할수 있고 작품의 철학적성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였다.

소설의 종자부터 명백히 찾아쥐지 못하였기때문에 제대로 창작할수 없었으며 1년나마 제목조차 달지 못하고있던 작가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비로소 작가는 작품의 종자부터 찾아쥐었으며 그때에야 소설의 제목도 종자에 맞게 《평양시간》이라고 달게 되었다.

작가는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울수 있도록 구실을 새롭게 짜고 소설을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하였다. 소설창작은 매우 높은 속도로 추진되어갔다.

하지만 난관의 장벽이 완전히 물러선것은 아니였다. 작품은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섰는데 작품의 부정선처리문제가 앞을 가로막아나섰다.

소설에서 대표적인 부정인물인 림도식은 교묘하게 위장한 출세주의자이며 생활의 줄타기꾼이며 우에는 아첨하고 아래에는 내려먹이는 관료주의자, 위선자로서 가짜 충실성의 전형으로 형상하여왔었다.

이 인물의 마감처리장면의 형상을 두고 작가는 소심성에 사로잡혀 주저하던 끝에 부정인물형상에서 모가 난데마다 깎아내는 수정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부정성을 깎아내려 미끈하게 만드니 그와 대립되는 긍정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결국 작품은 두리몽실해지고말았다.

여러 작가들과 일군들에게 토론을 붙여보았으나 그 누구도 신통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그러던 주체63(1974)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강령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소설창작에서 창작적개성과 독창성을 살리며 부정선을 대담하게 취급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작가는 금시 눈앞이 환해졌다.

그는 작품을 무난하게 쓰자는 생각밑에 일부러 《대패질》까지 하였던 자신의 그릇된 창작태도를 깊이 뉘우치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소설을 다시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부정선은 예리화되었고 따라서 인물들의 성격이 더 살아나게 되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이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소설을 하루빨리 찍어 보통강개수공사작공 30돛기념일에 즈음하여

세상에 내놓도록 해주셨다.

그리하여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밝혀져있는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조국 건국의 첫삽을 뜨신지 30년이 되는 날인 주체65(1976)년 5월 21일을 계기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장편소설이 출판된 다음해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아주 잘 썼다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설을 읽게 할 필요가 있다고, 장편소설 《평양시간》에 관료주의, 형식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내용들을 다 실었는데 그것은 일군들을 교양하는데 아주 좋다고, 소설을 많이 찍어내어 청소년들의 정서 교양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누구보다도 만족해하시며 일군들에게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보시고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알려주시고 젊은 작가의 창작성과를 두고 더없이 기뻐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소개하는

글들을 《로동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들과 방송을 통하여 널리 선전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으며 소설을 20만부 더 출판하여 광범히 보급하도록 해주셨다.

작가는 그 사랑, 그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마음속소견을 담아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감사의 편지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작가가 편지를 올린지 불과 나흘후인 12월 26일 한해일을 마감하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그의 편지를 친히 보아주시고 《1977년 12월 26일》이라는 귀중한 친필을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고귀한 친필로 작가의 생애와 소설문학의 역사에 또하나의 영원한 기념일을 새겨주신것이다.

참으로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세심한 지도와 은정깊은 사랑의 손길에 이끌리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시대의 성과작으로 될수 있었다.

<가사>

백두밀영고향집에 봄비 내리네 (외 1 편)

박 영

나지막한 동기와집 추녀아래로
봄비가 내리네 흘러내리네
아 백두밀영고향집에 내리는 봄비
밀영의 봄맞이노래되었네

눈보라를 이겨내고 봄을 안아온
고향집이야기 전하여주네

아 백두밀영고향집에 내리는 봄비
추녀높은 내 조국의 노래되었네

쌍무지개 곱게 비낀 백두밀영에
아름다운 봄노래 울려 퍼지네
아 백두밀영고향집에 내리는 봄비
내 조국의 무궁한 노래되었네

어머니의 손저음을 잊을수 없네

봄잔디 푸르른 전호가에서
못잊을 추억속에 그리여보네
초소로 손저어 바래주시던
어머니 그 모습을 아 병사는 그리여보네

역두엔 꽃물결 설레였어도
어머닌 꽃송이를 들지 않았네

렬차를 따르며 내릴줄 모른
어머니 손저음이 아 전송의 꽃송이였네

총대를 틀어쥔 아들이기에
소원도 손저음에 담으시였네
위훈의 뜨거운 축복을 주는
어머니 손저음을 아 병사는 잊을수 없네

빛과 어둠

리정수

조국해방 60돐을 앞둔 날 저녁이다.

오래간만에 시간을 내어 서가정리를 하느라 바쁜 참에 어느새 들어왔는지 우리 아이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그림은 왜 이렇게 거무튀튀할까?》

《무슨 그림이 그래. 지금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이젠 또 뭐야, 우리 나라에 어디 이런 곳이 있어?》

나는 웬일인가 싶어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중학교에 다니는 두 딸애가 할아버지의 오래된 그림들을 펼쳐놓고 가는 붓초리같은 손가락으로 그림들을 짚어가며 고개를 갸웃거리고있었다.

서가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아버지의 습작품들이었다. 내가 아이들에게로 다가앉자 두 딸애는 호기심어린 눈으로 나를 뚫어 쳐다보았다.

나는 옛 사진첩을 보는 새삼스러운 심정으로 색바랜 그림들을 한장한장 번져보았다.

인물화도 있고 풍경화나 정물화들도 있었다.

인물의 경우에는 가난과 고역에 치진 사람들의 모습이 형상되었고 풍경화인 경우에는 초가집들과 황량하고 쓸쓸하고 하늘땅이 꼭 막힌듯 적막한 기운만이 풍기는것들이었다.

나는 그림 밑에 써놓은 수표들을 보았다. 1944.

6, 1944. 7... 모두 해방전에 그린 그림들이었다.

뒤이어 해방후에 그린 그림들이 나졌다. 발같이 하는 농민이 잠시 보탑을 놓고 수건으로 땀을 씻으며 흐뭇하게 웃는 모습, 성민학교에서 우리 글을 배우느라 입을 옥물고 연필을 푹푹 눌러가며 열성스레 글을 쓰는 녀인의 얼굴, 풍요한 들판, 햇빛넘치는 강산...

어둠과 비애의 색조가 짙은 해방전의 그림들과 환희, 기쁨, 량만에 넘친 기운이 그대로 풍겨오는 해방후의 그림을 보느라니 가슴이 무뎌짐을 금할수 없었다.

그렇다, 이 그림들엔 판이한 두 시대를 살아온 아버지의 한생이 비껴있었다. 아니, 보다는 우리 조국이 걸어온 수난의 력사와 광명의 세계가 비껴있었다.

나는 그림을 놓고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다가섰다. 길건너 고층살림집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제껴놓은 창가림을 붉게 물들여놓았다. 명절을 맞는 수도의 밤은 잠들줄 모른다. 경축간판과 경축장식등이 명멸하는 화려한 거리로 사람들의 물결이 끊임없이 흐른다. 시름없는 얼굴들, 하나같이 약동에 넘친 걸음이다. 내 호흡도 그 걸음에 맞춰 빨라진다. 하지만 그우에 덮쳐워지는 해

방전 얼굴들이 눈앞에 환영처럼 얼른거린다. 누렇게 뜬 얼굴, 적막한 강산, 고역의 무거운 한숨이 금시 내 어깨를 누르는가싶다.

그림에 비낀 두 세계가 눈앞을 짝 메운다.

나는 옆에 다가선 아이들을 본다. 초롱초롱 빛나는 눈, 흥조가 비낀 볼... 볼시에 이 애들의 밝은 얼굴에 비쳐지는 따사로운 햇빛의 의미가 가슴에 마쳐온다.

오래전에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난다.

《아버지에게 이름있는 한 선배화가가 있었다. 그는 왜놈의 세상에서 피여날수 없는 재능을 한탄하던 나머지 붓을 꺾고 사라졌단다.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이름도 희미해가던 그가 우리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자 다시 나타나 재생의 빛을 취게 되었는데 일약 우리 나라에서 이름있는 미술가가 되었던란다. 조국이 없으면 재능은 커녕 사람의 가치도 없게 되지. 빛이 없으면 살아갈수 없는 생명체나 같다고 할가.》

극진히 새겨지는 말이였다. 우리 수령님 조국을 찾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 모든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생각이나 할수 있었을가. 조국해방 60돐을 맞는 날이여서 더해지는 생각인가 싶다.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시각 나는 저 딸애가 우리 수령님께서 저 나이에 벌써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해방의 천리길에 오르셨다는것을 생각이나 할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느라니 거리에 넘치는 저 행복의 불흐름속에 엮혀오는 우리 수령님의 항일의 혈전만리가 눈앞에 어려온다.

거치른 이국의 광야에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동생을 묻고 아버지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으로 항일전쟁의 불을 지피시여 해방의 서광을 안아오신 우리 수령님의 그 피어린 자욱자욱에 이 마음을 심어본다.

로야령의 험준한 산발, 눈보라치는 고난의 행군길, 울부짖는 충성...

우리 수령님께서 헤치신 그 혈전만리가 우리의 새삶의 터전으로, 행복의 요람으로 된것이였다.

사람들의 사상감정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를 반영하여 직관적으로 표현된다. 조국이 없어 그렇게도 억눌리고 천대받아 황이 뜬 얼굴들에 재생의 밝은 빛을 가져다준 해방의 해발, 그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안겨주신 최대의 혜택이며 사랑이였다.

빛을 받지 못하고 살수있는 생명체란 있을수

없다.

빛, 그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펼쳐주시는 영원한 생명선이였다. 그 빛을 오늘은 우리 장군님께서 이어가신다. 그 빛을 앗으려는 미제국주자들의 온갖 도전을 선군의 보검으로 찍어버리시며...

이 세상의 모든 암흑을 끝장내고 영원히 밝고

따사로운 봄빛만이 차고넘치는 인류의 밝은 앞날을 당겨오시려 우리 장군님께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다.

하기에 그 빛으로 하여 이 땅에는 그늘이 없다. 그 빛은 꺼질줄 모른다. 꺼질줄 모르는 그 빛이 있어 우리 조국은 세상에 더욱 빛나고 우리의 앞날은 더욱 밝고 창창하다.

☆혁명일화☆

《졸작》이 명작으로 된 사연

한 시인은 다른 나라에 나가서 남달리 느낀 생활체험과 사색속에 가사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창작하였다.

어느날 시인은 한 일군앞에 이 가사를 내놓았다.

가사를 읽고난 일군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가사는 좋은것 같은데 총잡은 군인들과 거리가 좀 먼것 같지 않소. 외교부문의 일군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할지 몰라도...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떨소? 작가동무.》

갑자기 제기되는 의견이고 또 그의 말에도 일정하게 일리가 있어보여 다소 할말이 있었으나 자기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시인은 잠자코 있었다.

잠시후 일군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총잡은 군인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주제의 노래가 필요하오. 이런 의미에서 놓고볼 때 이 가사는 졸작이요.》

《웁습니다.》

겸손한 시인은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얼버무려 대답하였다.

내 나라 제일로 좋다는 사상감정, 이것은 세상에서 민족제일정신이 강한 우리 인민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인데 다른 나라에 많이 드나드는 외교부문의 일군들에게만 국한된 감정일수 있겠는가.

시인은 가사를 반복해읽어보며 두고두고 생각해보아야 《졸작》이라는 평가가 정확한것 같지 않았다.

그냥 묻혀버리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작품이라고 생각한 시인은 몇몇 창작가들에게 가사를 내놓고 의견을 물었다.

모두가 특색있는 작품이라고 하면서 어서 빨리 곡을 붙이도록 하라고 고무해주었다.

이렇게 되어 3년세월이 지난후에 이 가사는 보천보전자악단 창작가들에 의하여 곡이 붙게 되었다.

보천보전자악단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4. 15명절 경축공연무대에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올리였다.

이국의 들가에 피어난 꽃도
내 나라 꽃보다 곱지 못했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

공연이 끝났을 때였다.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뜻밖에도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이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더없이 만족하신 음성으로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진한 노래라고, 이번 4. 15명절을 맞으며 아주 훌륭한 노래가 나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감격에 겨워 서있는 일군들과 창작가들을 둘러보시며 이 노래는 본토배기와 퇴역장령, 외국출장중에 있는 사람, 다른 나라에 망명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심정에 맞으며 어제와 오늘, 미래에도 맞는 훌륭한 노래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여전히 만족하신 음성으로 이 노래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좋아할 노래라고, 이 노래를 부르면 강냉이밥에 된장을 먹어도 조선이 제일이라는 감정이 나온다고 말씀하시였다.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한 일군에 의하여 《졸작》의 루명을 쓰고 세월의 이끼속에 영영 묻힐만 하였던 작품이 위대한 음악의 원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예지의 빛발아래 명작의 단상우에 보란듯이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후날에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주제가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김명익

독자들은 아마 단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는 사람과 깊은 인연이 맺어졌다고 말을 한다면 선뜻 믿지 않을것이다. 세상에 그런 인연도 있는가고 말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실지 그러한 체험이 있었다.

얼마전에 내가 취재차로 어느 한 농장에 갔을 때의 일이다. 연백벌에 자리잡고있는 그곳 농장에 구름봉이라고 하는 작업반마을이 있다. 구름봉이라고 하면 혹여 독자들은 깊은 산골의 봉우리로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허나 전혀 그렇지 않다. 깊은 산골은 커녕 무연한 논벌 한가운데 봉긋이 솟아있는 줄기도 린 접봉우리로 없는 알뜨막한 산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그럴듯 한 전설도 있다.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들 한다. 먼 바다상공에서 물을 향하여 떠오던 구름 한송이가 이 넓은 벌을 지나다가 너무 힘들고 지루하여 잠시 쉬고자려고 떠있었는데 이 고장사람들이 산을 어찌나 그리워했는지 벌 한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 봉우리로 되어주었다는것이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해무가 짙게 낄날이면 봉긋한 봉우리가 예전 떠있는 구름송이같다고 한다.

내가 이 고장에 처음 와본것은 10년전의 일이었다. 그렇다, 어느덧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때 나는 추모설화를 수집정리하려고 연백지방에 왔다가 구름봉마을에 상상을 초월하는 기이한 자연현상이 있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글썄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바로 그날 구름봉에 보금자리를 정하고 살던 백로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현지도사작비우를 여덟차레나 떼지어 돌고돌다가 어데론가로 영영 날아가버렸다는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마다요. 그날도 지금처럼 비가 내리고있었지요. 역수로 퍼붓는 무시무시한 폭우였답니다.…》

나와 마주앉은 허우대가 크고 검은 눈썹이 류

달리 덩수룩한 중년의 사나이가 비내리는 창밖을 추연히 바라보며 말머리를 떼는것이였다. 그는 목격자의 한사람인 이 농장 관리위원장 차덕준이였다.

《…비소리에 온 밤 잠들지 못하고있던 나는 잠시 자리를 차고 일어나 논벌로 뛰쳐나왔습니다. 무시무시한 천둥번개와 폭우가 한창 자라오르는 논벼들을 죄다 결단낼것만 같았거든요. 지난해 가을 우리 농장에 찾아오시여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풍년든 가을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어버이수령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애써 가꾸어온 곡식이였으니 어디 마음을 놓을수 있더라구요. 작업반장들도 농장원들도 모두 자다말고 뛰쳐나왔지요.…》

비는 날이 희뵈히 밝아져서야 뜰해졌습니다.

나는 침수피해를 막느라고 수고한 농장원들을 들여보내고 한발 늦어 관리위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구름봉마을쪽에서 한 소녀가 엇치락뒤치락 막 달려오는것이 아니였겠습니까. 중학교에 다니는 구름봉작업반장의 딸이더구만요.

<애야, 이런 날씨에 넌 어디로 정신없이 달려가는거냐?>

나는 미끄러져 넘어진 소녀를 일으켜주며 물었지요.

<…관리위원장아저씨, 글썄 이걸 어쩌면 좋아요. 우리 마을 구름봉백로들이…>

소녀는 울음 절반 뇌이였습니다.

<백로들이 어쩔다는거냐?>

나는 다우쳐 물었습니다.

<글썄 백로들이 자꾸만 자꾸만 날아가버려요. 슬피슬피 울면서…>

<날아가버리다니?>

나는 그 소녀의 말을 선뜻 리해할수가 없었습니다.

사실말이지 그 소녀와 백로사이에는 남다른 인연이 맺어져있었지요. 그 애가 사는 구름봉에는 옛날부터 소나무와 참나무들이 울울창창했었지만 풀이 길지 못하고 바다바람이 세차서였는지 날새들이 별로 깃들기 저어했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고장을 다녀가신 그해에 땅이 꺼지게 농사가 잘되더니 첫 백로무리가 날아들었지요.

바로 그 소녀가 세상에 태어난것이 그해였다고. 그래서 나는 필경 그 애는 백로떼가 업고온 소녀일거라고 기쁨삼아 말을 한것이 빌미가 되어 그를 <백로소녀>라고 애칭삼아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인지 그 소녀는 아버지가 지어준 제 이름보다 <백로소녀>라고 불러주는것을 더 좋아했으며 탁아소, 유치원시절부터 백로처럼 하얀옷을 입고 나풀나풀 춤을 추며 자랐지요. 늘 백로와 마음속 말도 주고받으면서 말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하고 깨끗한 순백의 백로! 그 애의 미래도 그렇게 꿈꾸며 성장하고있었지요.

그랬던 그 소녀가 열로당토않게 백로떼가 어디론가 자꾸만 날아가버린다니 혹시 꿈을 꾸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지요.

<...아저씨는 왜 제 말을 믿지 않으세요. 백로들이 자꾸만 날아가버린단 말예요. 어서 가서 백로들에게 말해줘요. 우리 고장을 떠나지 말라고 말해달란 말예요...>

소녀는 나의 옷자락을 흔들며 씩씩하게 우는 것이었지요. 혈육들이 자기를 떼버리고 떠난다 한들 이보다 더 서럽고 애원에 찼겠습니까?

나는 소녀의 손목을 이끌고 구름봉으로 향했지요. 한데 글썽하게 어찌된 영문이었겠습니까... 한마리의 백로가 떠올라 표식비우를 날으면 또 다른 백로가 떠오르고... 게다가 여기저기서 백로들이 얼마나 구슬프게 우는지. 그리고는 하늘가져 멀리로 떠나가고 또 떠나가버리고...>

창밖에서는 비소리가 소연히 들리고 차덕준관리위원장의 눈에는 물기가 즐벅하여 뒤말을 잊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날의 그 광경을 상상해보느라니 내 가슴도 미어져왔다.

《...위원장동무, 그 <백로소녀>를 만나봤으면 하는데요.》

한참만에야 마음을 진정한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 소녀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의 대답이었다.

《아니, 그럼 다른 고장으로 이사를 갔는가요?》
어디든지 찾아가 그 소녀를 만나고싶었던 것이

그때의 내 심정이였다.

《아니지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갔지요. 대학으로 말입니다.》

《대학말입니까? 어느 대학인가요?》

《농업대학에요.》

《예, 그랬군요.》 나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수첩에다 《백로소녀》의 이름을 푹푹박박 적어넣으며 인차 한번 그를 찾아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는것이 생활인가싶다.

하여 나는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소녀를 만나지 못했으며 이제는 어제날의 《백로소녀》도 세월의 추억속에 어렴풋이 묻혀오고있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들의 인연인가싶었다.

허나 예측할수 없이 흘러가는것이 생활이어서 나에게는 그 《백로소녀》를 두번째로 찾아볼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연백벌취재길이 나에게 다시 열려졌던것이다. 그것도 논 앞그루로 감자농사를 잘하고있는 차덕준관리위원장에 대한 기사집필과제가 맡겨졌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기회였는가. 편집국에서는 아마 그 기사의 중요성도 있었겠지만 그전에 그 농장을 한번 다녀온 전적도 고려에 두었던것 같았다...

나는 오래간만에 차덕준관리위원장과 마주앉았다. 10년만이니 감회는 얼마나 깊었으며 하고싶은 말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날 창밖에서는 함박눈이 펄펄 소담스레 내리고있었다. 내가 그를 이 방에서 처음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여름비가 추덕추덕 내렸었는데 지금은 흰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그의 귀밑머리와 류달리 검고 더부룩한 눈썹에도 흰 서리가 붙었다.

《...요사이 우리 농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논에다 감자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덕을 보고있는 농장으로 되었으니까요. 군농촌경영위원장들이 뺄스에 한 가득 타고 찾아오기도 하고 린접도에서도 오고...

논벼 앞그루로 감자농사를 성공한 경험을 배우려고말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그들을 데리고 구름봉작업반으로 가군 하지요. 우리 연백벌에서는 논 앞그루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한 곳도 거기구 경험을 쌓은 사람도 구름봉마을의 정연순작업반장이니까요...》

《가만가만, 이자 누구라구 했습니까? 정연순이라구요? 그럼 그때 그 <백로소녀>가?...》

어찌서인지 나는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예. 바로 그 처녀이지요.》

차덕준은 느슨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10년전에 차덕준에게서 그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때의 감동이 되살아났다.

《그 처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창문유리에 부딪쳐 어디론가 사라지곤 하는 눈송이들을 이윽히 바라보며 차덕준은 깊은 회억에 잠겼다. 뜨겁게 말을 이었다...

그해 여름에는 왜 그리도 비가 많이 내렸던지. 내리다가는 멎고 멎는가 하면 또 쏟아져내리고...

조심스러운 손가락소리와 함께 비에 함초롬히 젖은 조그마한 녀인이 머리를 숙인채 방안으로 들어섰다. 손에 우산을 들었는데도 옷자락이며 신발이 증병하니 젖었다.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선 그의 이마우에는 비물에 젖은 자분치가 답수룩했다.

《아니 이게 누구냐. 너 연순이로구나.》

뜻밖에 나타난 《백로소녀》임을 알아보자 차덕준은 그만 놀랐다. 대학을 졸업하고 도농촌경영 위원회에 배치를 받았다면 도로 떠나기에 앞서 인사하러 찾아왔던 것이 었그제인데?...

《...》

비에 젖어 어깨가 더욱 좁아진듯 한 애리애리한 처녀는 젖은 편리화장을 오비작거리며 한동안 머리를 숙이고있더니 종이장 하나를 꺼내여 책상 한끝모서리에 가만히 놓는 것이었다. 파견장이었다. 여겨보니 이곳 농장으로 파견되었다는 내용의 글줄이 안겨왔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는거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연순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무슨 죄스러움을 당한듯 얼굴이 빨개졌다.

《관리위원장동지. 자꾸만 고향생각이 나서...》

처녀는 돌연히 입술을 감쳐물었다.

《!...》

차덕준은 가슴이 아릿했다. 처녀에게 있어서 이 고향은 단순히 나서자란 고향만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가 논두렁을 베고 숨진 땅.

아버이수령님을 풍년든 벌에 다시 모시자고 아글타글 농사를 지으며 땀을 바쳐온 고향...

구름봉작업반장이었던 그의 아버지 정태봉은 립종의 시각을 앞두고 딸 연순이에게 말했다.

《연순아,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고향을 잊지 말아다오.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인민군용사들이 목숨바쳐 지켜준 이 연백땅을 말이다. 이 애비는 농사를 잘 지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은 험한 포전길을 걷지 않으시게 하려 했다면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으니...》

그런 아버지의 유언을 받은 연순이었으니 이

고장, 제 고향땅을 잊을수 있었겠는가...

《...관리위원장동지.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제가 대신하겠으니 저를 떠밀지 말아주세요.》

강잉히 고개를 쳐든 애어린 처녀의 말은 너무나 절절했다...

《...그리는 <백로소녀>를 저는 더 어쩔수 없었지요. 그랬던 처녀가 분조장을 거쳐 작업반장이 됐답니다.》

대견하고 자랑스러움을 금할수 없는듯 차덕준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어렸다.

《그러자니 관리위원장동무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습니까.》

말로만 들어왔을뿐 만나보지 못한 처녀였으나 나는 어찌서인지 제 딸자식처럼 생각되었다.

《아니 저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못됩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량심상 가책을 느낄뿐인걸요.》

《그건 지나친 겸손이지요...》

《아니아니, 제 말을 마쳐 들어주십시오. 다 털어놓고 말하지요. 기자동무앞에서야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어려운 때 충신을 알아본다는 명언도 있지만 <백로소녀>는 나에게 그걸 생활로써 보여 주었지요...》

창밖에서는 함박눈이 하염없이 내리고 차덕준의 이야기는 몇해전 겨울의 일로 거슬러올라갔다.

어슬넷이었다.

진거름달구지를 관리위원회앞마당에 세운 두 처녀가 관리위원장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구름봉작업반의 반장 연순이와 분조장인 광옥이었다.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리지적으로 생긴 연순이에 비해 광옥은 몸이 다부지고 우등부등했지만 둘은 꼭 같이 새하얀 사각목도리를 둘렀다.

《어서들 여기로 내려와 앉으라구.》

차덕준은 두 처녀를 반갑게 맞아들여 따뜻한 아래목을 권했다. 그들은 온 겨울 읍거리를 드나들며 진거름을 모아들이느라 애를 쓰고있었던 것이다.

《이젠 그 많던 진거름원천도 동이 났겠는걸?》

겨우내 온 작업반이 떨쳐나 읍거리의 진거름을 모아들이는 그들의 수고를 두고 이르는 말이였다.

그러나 두 처녀는 아무 대꾸도 없이 저만치 떨어져 앉아 무릎우에 풀어놓은 하얀 목도리만 매만지고있을뿐이었다. 여름에는 하얀 명주수건을, 겨울에는 흰털목도리를 두르고다니는 그들이였다. 사람들은 꼭 같이 흰 수건을 바람에 날리며 벌에서 일하는걸 보며 한쌍의 다정한 백로라고 말

들을 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은 백로들을 애타계 기다리는 두 처녀의 마음이런듯 언제나 몸에서 떼지 못하고 일하는 하얀 목도리...

《...위원장동지, 우리 농장에서는 감자종자를 미리 장만하지 않아도 됩니까?》

연순이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감자종자말인가?!... 우리가 얼마간 마련한 것이 있으니 작업반들에서는 걱정 안해도 되오. 더더구나 동무네처럼 발면적이 하나도 없거나 적은 논작업반들에서야 무슨 감자종자가 많이 필요하겠소.》

안심시키듯 차덕준이 말했다.

《그럼 우리 작업반에서는 감자를 심지 않습니까?》

정연순이 자리를 고쳐앉으며 되물었다.

《그때문에 기상장동무와 초보적으로 토론이 있었소. 밭을 가지고있는 다른 작업반경지에서 얼마간 떼어 동무네한테 주자고 하오.》

사실 불임땅의 거의 전부가 논으로 되어있는 이 고장에서는 감자를 심어먹을 터밭조차 없는 형편이어서 개인농장세대들에서는 산골마을에 가서 쌀과 감자를 바꿔 겨우 맛이나 보는 형편이었다. 옛적부터 그랬다. 그래서 밭을 많이 가지고있는 농장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본뜬듯이 일으켜 보겠다고 법석 떠들고있었지만 논면적이 기본을 이루고있는 연백벌에서는 논에다 밀, 보리를 앞그루로 심으면서도 논에다 감자심을 생각은 하지 않고있었다.

두 처녀는 커다란 기대가 허물어진듯 동그렇게 뜬 두눈을 마주보고나서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감자심을 면적이 얼마나 요구되오? 한뼘 벼농사를 짓느라고 수고하는 동무네 작업반같은 데는 이번 기회에 발면적을 푼푼히 떼주려고 하오.》

차덕준은 큰 맘을 쓰듯 헉헉히 말했다.

《...》

두 처녀는 대답을 안했다.

요구대로 해결해줄테니 넉넉히 불러보라고 독촉을 받고서야 연순이 고개를 들었다.

《위원장동지, 저희들에게 무슨 다른 밭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넓고넓은 우리의 남대지벌이 있지 않습니까?》

《남대지벌이라니, 아니 그럼 논에다 감자농사를 하겠다는거요? 1년내내 물기가 질퍽한 논에?》

일순 차덕준의 술진 눈썹이 미간으로 모아지더니 인차 사람좋은 웃음을 지었다. 아마 너그럽게 그의 말을 들어주려는듯싶었다.

《위원장동지, 아무리 논이라고 해도 밭처럼 땅 다루기를 하면 되잖습니까. 앞그루로 정보당 감자를...》

연순은 그만 입을 다물어버렸다. 제자리로 퍼졌던 차덕준의 더부룩한 눈썹이 다시금 맞붙을듯 미간으로 모아졌던것이다. 이것은 차덕준이 몹시 불쾌하거나 성났을 때 드러나는 표정변화라는 것을 잘 알고있는 그였던것이다.

《...원 참, 대학졸업생도 그런 생억지를 다 부리나?》

차덕준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차근차근 일깨워 주었다. 감자는 자기 고유의 생태학적특성으로 하여 습해가 조금만 지속되여도 인차 썩어나며 반대로 논처럼 땅땅히 굳은 땅에서는 도무지 알이 커질수 없다는것, 때문에 조상대대로 감자는 밭곡식으로 심어왔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감자를 논에 심는 데는 없다는것 등등...

《이걸 보라구, 그렇지 않다면야 어째서 군경영위원회에서 다른 농장들에 감자재배면적을 주면서도 우리같이 논이 많은 농장들에는 발면적에 한해서만 주었겠소. 연백벌농사에서는 어디까지나 논벼가 주선이거든.》

연순동무, 구름봉작업반은 동무의 아버지때부터도 농장의 기동작업반이었다는걸 명심하오, 동무네가 주선을 놓치고 감자농사요 뭐요 하면서 좌왕우왕하면 다른 반에 주는 영향도 좋지 못해. 내 말뜻을 알겠소?...》

《...》

연순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두무릎우에 넓게 퍼놓았던 하얀 목도리를 차곡차곡 개여가지고는 그것을 안타깝게 주무럭거리고있었다.

《...감자와 논벼를 바꿔먹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요. 이젠 쌀을 생산해야 하는 우리에게 최악으로 되거든, 최악으로. 그래 연순반장은 감자를 논에다 심을 공리를 하면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봤소?》

두 처녀는 그가 버럭 소리를 지른것처럼 느껴져 흠칫했다.

《왜 대답을 못하오? 자신을 언제나 농사의 주인으로 자각하고 일하고있는 동무들로서야 이걸 생각했어야지. 만약의 경우를 말이요.》

그 말에 연순은 고개를 쳐들고 차덕준의 모아진 두눈썹을 오연히 쳐다보다가 그만 맥없이 눈길을 떨구어버렸다. 그의 막다른 질문인 《만약의 경우》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려고 이제까지 얼마나 모색하고 동분서주했던가. 《농업전서》도 뒤져보고 대학에도 찾아가고 도농업과학분원엔들

안가봤으랴. 허나 어디에서도 그에게 《만약의 경우》를 담보해주지 못했다. 때아닌 봄날추위, 겹질긴 봄장마... 그만큼 논에서의 앞그루감자재배는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미개척지였다. 예나 지금이나 감자는 의연히 발작물이였다.

허나 초가을부터 남모르게 감자농사를 생각해 온 연순이로서는 그대로 물러설수 없었다. 진거름을 가득가득 실어들여 유기질비료를 마련하여 듬뿍듬뿍 낸다면 아무리 돌덩이처럼 땅땅 굳어진 논이라 할지라도 발처럼 토양이 성글어질것이며 둘째배수로와 십자배수로들을 깊이깊이 췌준다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해도 물이 쪽쪽 빠져 습해의 위험성을 막을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타산하고 감자농사를 속속 준비해온 그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관리위원장이 그의 제의를 들어주지 않았다. 농사지도와 경험에서 제노라하는 그가 아닌가.

연순이는 또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자 그의 눈길은 차덕준의 부리부리한 눈길과 허공에서 맞부딪쳤다. 부리부리한 그 눈길은 연순이의 눈길을 허공에서 붙들어세우고 뿡뿡하게, 신랄하게 따지고들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라, 만약의 경우를... 라고.

꽃꽃하던 연순의 눈빛이 경련을 만난듯 파들거리더니 꺼져들기 시작했다. 그 부리부리한 눈길의 물음앞에서 더는 견뎌낼수 없는듯...

맵짠 날씨에 큰 마음먹고 찾아온 연순이네를 설복시켜 돌려보낸 차덕준의 심정도 평온치 못하였다. 감자재배에 대한 유혹과 욕심으로 말하면 그들보다 더했던 자기자신이었던것이다. 논 두벌농사, 앞그루로 감자를 심어봤으면... 머리속으로 굴러보고 이웃농장들의 태도도 넌지시 넘보기를 그 몇번이었던가. 심사숙고하자. 한두해 지내보느라 무슨 마련이 서겠지. 분조장도 아니고 작업반장도 아닌 덩지 큰 농장의 관리위원장인 내가 농사작전에서 모험할 권리가 있는가? 그래서 자신을 녹장혀온 그였다. 그런데 처녀들이 찾아와 그의 마음을 들쭉거리놓고 돌아간것이였다.

마음이 착잡하여 앉아있는데 기사장이 사업일지를 끼고 들어왔다. 한공식기사장은 비록 체소한 몸이지만 농사지도경험이나 농업과학지식의 소유측면에서나 군적으로 손꼽히는 일군이였다. 자기네 농장이 알곡생산과제수행에서 일선에 서고있는데는 그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고 내놓고 말해오고있다.

《...기사장동무, 내 한가지 신중히 토의할 문제가 있소.》

차덕준은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머리를 뺐다.

《논에다 감자를 심는것 말이요. 기사장동무는 북방출신이니 감자농사에서야 선생이라고 말할수 있지 않소.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차덕준은 방금전에 연순이네 제기를 자기의 견해처럼 말했다.

《아니, 위원장동무 또 그 소리입니까? 혹시 나를 보느라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요. 그러지 않아도 일부 업반들에서는 감자심을 발이 없다고 안달복달하고있는데 위원장동무까지 이러면 야단입니다.》

한공식기사장은 발끈했다. 그는 웬만한 문제에서 그앞에서 자중할줄 아는 성미였다.

《그러게 내 신중히 의논해보자는게 아니요. 털어놓고 말해서 논을 밭상태로만 만들면 감자농사가 영 불가능한건 아니지 않소. 우리가 밀, 보리를 처음으로 논에 심을 땐 누가 뭐 된다고 해서 시작했소. 기사장동무가 적극 주장하지 않았겠소.》

차덕준은 끈질기게 그를 물아갔다.

《위원장동무, 그대 위원장동무는 감자와 밀, 보리가 생물학적으로 판판 다르다는걸 몰라서 그런니까? 감자는 뿌리열매란 말입니다. 건설에서 공법을 어기면 다 지어놓은 건물이 허물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농사에서 경작법을 어기면 한해 농사를 망쳐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 책임을 관리위원장동무가 지겠습니까, 내가 지겠습니까? 신중하게 논의할 문제가 따로있지 뻔한 일을 가지고 입씨름하다니요.》

《아니 그렇게만 단도직업적으로 말할게 아니요. 그리고 논에서 감자농사가 가능만 하다면 나는 어떤 책임도 질 자신이 있소.》

《아, 알만합니다. 그 고집쟁이 연순반장이 머리를 꼴꼴이 세우고 지나가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또 찾아와 줄라댄 모양이구만요. 그 일은 내게 맡겨두십시오. 그런 웅고집쟁이들은 완력으로서는 안됩니다. 과학리론적으로 설득시켜야 하거든요. 그도 대학을 나온 처녀이니깐요.》

그의 말에 차덕준은 묵묵히 머리만 끄덕이고말았다...

《그러니 연순반장도 위원장동무도 기사장동무의 그 <과학리론적설득> 앞에 기가 꺾인셈이 되고말았겠구만요?》

나는 씩씩히 입맛을 다시는 차덕준의 뒤말을 은근히 부추기며 그후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그는 무슨 의미에서인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것이였다.

《그보다 더 큰 난사는 감자농사때문에 연순반장의 사랑이 파탄직전에 이르게 된 것이었지요.》

《아니, 그럼 그 처녀에게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다는 겁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청년이세요?》

사랑하는 총각이 없을 리 없겠으나 무슨 연고로 그들의 사랑이 난파에 부딪치게 되었는지 나는 몹시 궁금하였다.

《김순철이라구 키 팔이나 있고 얼마나 준수하게 생겼는지 내가 다 탐낼 정도였으니까요. 날카롭기도 하고 영민하기도 한 그의 눈빛이 더 마음에 들었지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우리 농장 남대지벌의 농사를 위협에서 구원해준 적이 있는 청년이었으니까요. …》

몇 해 전 논김매기철이었다고 한다.

남대지벌둘레로는 레성강물길이 흐르면서 연백벌을 적셨다. 그런데 뜻밖에도 남대지벌로 지나가는 물길바닥에 수로지현상(제방쪽속으로 샘처럼 물이 솟아어나가다가 점차 커다란 구멍을 내는 현상)이 돌발적으로 생겼다. 공교롭게도 점심시간이어서 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대로 지체된다면 수로지구멍은 가속적으로 커지면서 제방쪽을 무너뜨린다. 그러면 물길을 따라 흐르던 그 많은 물이 터진 제방으로 쏟아지면서 흙탕물사태를 일으키며 논벼를 쓸어놓치게 된다.

이때 마침 호젓한 제방길을 따라 지나가던 한 청년이 있었다. 그가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하고 있던 초기복무사관 김순철이었다.

흐르는 물길을 무심히 바라보며 부대로 돌아가던 군인청년은 그곳에서 일어난 회리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벌써 구멍은 상당히 커져 제방쪽밀으로 물이 내뿜고 있었다.

청년은 옷도 벗들 사이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몸으로 구멍을 막았다. 허지만 이미 커진 물구멍이라 수압을 견뎌내지 못하고 차츰차츰 몸이 빠져들었다. 그대로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가 어찌 모를 수 있었겠는가?

얼마나 시간을 지탱해냈는지… 점심을 먹고 맨 먼저 제방길을 따라 일터로 나오던 연순이가 청년을 발견하고 뛰어들었으며 뒤미처 사람들이 흠가마니를 집어넣으며 전투를 벌려 끝내 위험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서로 알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바쁜 농사철 때마다 농장을 도우러 나온 군인들 속에 있군 한 순철과 연순의 관계는 점차 남다른 관계로 깊어졌었다.

《…순철청년이 군사복무를 마치고 지방대로 농업대학입학과견장을 손에 받아든 그 길로 연순반장을 찾아온 것이 바로 그날이었던 말입니다. 논에다 감자농사를 짓겠다고 나를 찾아왔던 날씨가 뻔뻔했던 그날 말입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문제는 그때 다 생겼다우 …》

그날의 만단사연을 되새기듯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저녁랭기는 짜늘하게 옷깃에 스며들었다. 중천에 높이 뜬 둥근달마저 랭기를 풍기는 듯싶었다.

그러나 두 처녀는 목도리를 두들넘을 얹고 진거름달구지를 앞세우고 관리위원회 앞마당을 벗어났다.

《…반장언니, 우리 이제 어쩌면 좋아요?》

광옥이가 손에 들고 있던 목도리를 활활 털며 침묵을 깼다.

《…》

무슨 생각에 골똘했는지 연순이는 말이 없었다.

감자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알곡소출을 높이자고 두 처녀는 얼마나 환희에 넘쳐 일을 해왔던가. 온 작업반원들이 그렇게 일했었다. 새벽마다 매 세대당 진거름 세차레씩 끌어오고서야 다른 작업에 착수하면서 준비해온 감자농사…

《언니, 속시원히 말이라도 해요. 왜 잠자코만 있는 거예요?》

《날더러 무슨 말을 하라는 거니?》

연순은 그저 머리를 저을 뿐이었다.

《무슨 말이라니요. 우리가 감자농사를 잘해서 앞뒤그루 두벌농사에서 소출을 많이 내어 올해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고 그러면 우리 고장에 백로들이 다시 날아들어 보급자리를 틀거라고 언니 자신이 얼마나 열렬했는가 말예요.》

《그랬는데 어쨌다는 거니?》

《위원장동지가 반대하지 않아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연순은 머리속에 감도는 그 무엇을 떨어버리려는데 머리끝이 흔들린다.

두 처녀의 침묵은 다시 계속되었다. 하루에도 밤이나 낮이나 이 길을 그 몇 번이나 오갔던가, 작업반의 트랙터를 그대로 계획된 영농작업에 돌리고 축력을 리용하다나니 시내청년들앞에 번구스러움을 당하던 일도 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쉬임없이 퍼날랐다. 눈내리는 날에나 눈보라치는 날에나… 그들에게는 없었던가, 안식의 잠자리도 쉬는 날 펼쳐입고 나설 화려한 웃도… 그러나

그 모든것을 뒤로 미루어왔다.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되는 그날을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낮과 밤이 따로없이 선군
령도의 길을 이어나가시며 감자농사, 두벌농사의
길을 열어주신것 아닌가.

그런데...

(만약, 만약... 실패하면...)

그다음은 소름이 끼쳐왔다. 가슴이 다 서늘해
진다.

얼마간 말이 없는채 걸음을 옮기는데 광옥이가
이번에는 팔꿈치를 느닷없이 건드리는데였다.

했으나 연순은 대적도 않고 걸었다.

《...언니. 저기 순철동지가...》

광옥이가 몇번이나 팔소매를 채며 뇌이어서야
연순은 눈길을 들었다.

대낮처럼 달빛이 쏟아져내리는 동구밖정자나무
아래에 군복차림의 한 청년이 서성거렸다. 떠나
기 전에 들리겠다더니 소원대로 고향으로, 아니
대학으로 가게 된 모양이었다. 그것은 연순이의
소원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왜 눈물이 왈칵 쏟아
지는것일까?...

《언니. 나 먼저 가요... 빨리 가자, 이 누렁이
들아, 오늘은 어찌자고 느릿거린다는거냐? 어서
가서 여물을 배젓 먹고 쉬어야지, 이랴!》

광옥이가 탄전을 피우며 갈림길로 달구지를 몰
아탔다.

순철이에게 반갑게 달려가야 할 연순이었으나
달빛아래 오도카니 섰다.

《연순동무, 왜 그러오. 무슨 일이 있었소?》

천천히 다가온 순철이 그에게 물었다. 이제 헤
여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를 그들인데 왜 저리
도 의기소침할까?

《누구와 다투기라도 한가보군. 녀자들이란...》

사랑하는 처녀의 응석을 너그럽게 받아주려는
듯 순철의 어조는 자못 다정하였다.

《그래요 저는 녀자예요. 녀자인 까닭에 남자들
처럼 배포유하지도 못하고 웅줄하고...》

《가만...》

순철은 연순의 설분에 가까운 얼굴표정을 유심
히 들여다보며 그의 말을 제지시켰다.

《연순동무, 도대체 무슨 일이요.》

《순철동지, 저는 왜 그것을 예견 못했을까요.
만약의 경우를 말이 예요...》

순철의 얼굴표정은 긴장하게 굳어지였다.

《만약이라니, 무슨 만약말이요.》

연순은 고개를 떨구어버렸다. 처음 감자농사를
작전할 때 제일 먼저 흥분하여 지지해주고 고무
해주던 순철이었다. 그때 그는 얼마나 흥분하였

는지 모른다.

...

《연순동무, 동무는 정말 내 맘에 꼭 드는, 그리
고 뭐랄까, 한마디로 훌륭한 동무요. 바로 우리
청년들은 당의 뜻을 그렇게 받들줄 알아야 하오.

나는 그것이 제일 마음에 드오. 대담하고 정열
적이고...》

그러다가 온 들이 들썩하게 어깨를 흔들며 옷
던 순철의 환희에 찻던 모습이 눈앞을 짝 채운
다.

《그러니 스스로 손들고 항복하자는거요.》

꼭 가라앉는듯 하면서도 침통해진 순철의 웅글
은 목소리가 연순의 어깨를 무겁게 누른다.

연순은 반박하듯 머리를 쳐들었다.

《...무엇으로든 반박할 근거가 없었어요. 서뽈
리 벌려놓았다가 논벼농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날에는 그건 씻을수 없는...》

《책임이 두렵다는것이겠지.》

연순은 남의 목소리같은 순철의 무뚝뚝하면서
도 매서운 기운이 풍기는 목소리에 가슴을 떨었
다.

《순철동지... 저는... 저는...》

순철은 말없이 발걸음을 내짚었다. 연순은 어
망결에 그를 따라서며 중얼거렸다.

《전 한두해 농사를 짓다가 어데론가 홀 가버릴
사람이면 몰라요. 순철동지도 농사라는것이 어
떤건지 아직 다는 모를거예요. 해마다 짓는 농사
이지만 뜻하지 않게 만약의 경우...》

문득 순철의 걸음이 푹 멈추었다.

《또 만약의 경우요? 동무말처럼 나는 농사를
잘 모르오. 하지만 명백히 아는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운명인 사회주의를 지키느냐 못지키느냐
하는 미제와의 대결전을 벌리고있다는것뿐이요.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두벌농사를 할데 대해 가르쳐주신것이요.... 군
대식으로 말하면 그건 명령이요.

그렇소, 명령이요. 동무는 저 구름봉에 묻힌 영
웅전사들의 넋을 잇고있소. 나는 지금까지 동무
가 고향을 남달리 사랑하고 저 구름봉 인민군렬
사묘를 자주 찾기에 자기자신을 여기 연백벌을
끝까지 지켜싸운 인민군렬사들과 언제나 한전호
에 세워놓고 사는줄 알았는데... 정말 두렵소. 그
렇게 시대의 요구앞에 나약하고 소심한 동무가
두렵단 말이요.》

순철은 분을 못삭이겠는지 헉띠고리를 힘껏 조
여매더니 목직하게 걸음을 떼었다.

연순은 몸이 굳어져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서
멀어져가는 순철의 뒤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순철의 모습이 어둠속에 사라지자 연순은 가슴이 허벼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동무가 두렵소...》

순철이 마디마디 피롭게 쏘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식되었다.

《순철동지...》

목이 꺾 잠겨버려서 이전에는 정을 담아 부르던 그 부름조차 나오지 않는다.

귀중했던 사람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떠나갔으며 영영 돌아오지 않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언니. 왜 그러고있어요. 어쩌서 순철동지가 저렇게 가버렸나요?》

광옥의 말소리다. 아마 기다리다 못해 한걸음 두걸음 다가온 모양이다. 어깨가 꺼져내리는듯 깊은 숨을 내쉬 연순은 도리머리를 젖고 높이 뜬 달을 얼없이 바라볼뿐이다. 연순의 모습속에 처녀답게 감수성이 빠른 광옥이 무슨 겁이 더러웠는지 연순을 혼든다.

《언니. 어서 순철동지를 찾아요. 그러면 안돼요. 좋아요. 내가 데려올테예요.》

두서없이 다급한 말을 쏟아내는 광옥에게 연순이 고개를 맏없이 저었다.

《광옥아, 그러지 마.》

늦은 밤 자리에 누웠으나 연순은 잠들수 없었다. 자꾸만 순철의 마지막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의 말처럼 내가 정말 그렇게 나약하고 소심한 여자가 아닌가. 자기만을 아는...》

눈살을 찌프리고 고개를 젖던 관리위원장의 모습과 연순의 눈동자를 서늘한 눈길로 바라보던 순철의 모습이 엇갈린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운명인 사회주의를 지키느냐 못지키느냐 하는 미제와의 대결전을 벌이고 있다는것만을 알고있소... 동무는 구름봉에 묻힌 인민군렬사들의 넋을 잊고있소. ...그들은 한걸음만 물러서도 살수 있었던 사람들이요.》 하던 순철의 준절한 목소리가 가슴속에 파고든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수도 있는 못잇을 사람의 그 목소리는 처녀의 심장을 압박한다.

(아!)

연순은 터져나는 오열을 삼키느라 베개잇을 꼭 그러쥐고 돌아누웠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한 여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몇해전 가을날.

그날도 연순은 광옥이와 함께 이곳에 올랐었다. 한해농사를 총화하는 농장원모임에서 연순이는 작업반장으로, 광옥이는 분조장으로 선거되었다.

그날 두 처녀는 아무런 약속도 없이 여기에 올랐었다. 땅도 그 땅이고 사람도 그 사람들이었으나 맡겨진 새로운 임무로 하여 어깨가 무거웠던 그들이었다.

생신한 들국화묵음을 들고 묘소앞에 이르니 그들보다 한걸음 앞서 올라온 낮익은 한 여인이 있었다. 회색치마저고리에 굵은 실로 뜬 덧옷을 입은 여인은 안경을 끼었는데 머리카락은 하얀 서리가 불렸다. 언제보나 단정하고 깨끗한 차림이였다.

여인이 소담한 꽃송이를 제돌우에 정히 놓고 묵상하는동안 두 처녀는 뒤에 정히 서서 정숙을 지켜주었다.

《...고마워요. 동무들. 예서 또 만났구만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날이게?》

두 처녀가 들국화묵음을 놓고 돌아서자 여인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정겹게 물었다. 추석때면 여기서 더러 만나곤 하던 여인이였다. 이름은 안선비, 이곳에 전쟁때 함께 싸운 전우들이 묻혀있다고 했다.

《어머니, 오늘 이 언니는 작업반장으로, 저는 분조장으로 선거를 받았답니다.》

언제나 애돌줄 모르는 광옥이였다.

《그래요?! 참으로 의미가 깊은 날에 이곳을 찾았구만. 그렇다니 오늘은 내가 동무들에게 애길 좀 들려주어야 하겠구만요...》

먼저 자리를 잡고앉은 여인은 량열 잔디를 손으로 비다듬어주었다.

《...50년도 그때 군대에 갓 입대하였을 때만 해도 정말 나는 철부지소녀에 지나지 않았어요. 뼈도 채 굳지 않고 애티를 가지지 못한 18살 나이였으니까요. 입대하자마자 처음으로 참가한 전투가 이곳 연백벌방대전투였지요. 우리 부대는 저 뒤에 있는 북산계선에다 방어진을 치고있었는데 하루에도 몇차례씩 함포사격과 비행기폭격을 들이대고는 미해군륙전대놈들이 파도식공격을 했지요...》

참으로 어려운 전투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백지구를 놈들에게 다시 내어줄수도 있었다. 부대에서는 해안선가까이에 있는 구름봉에서 첫 타격을 안겨 놈들의 발악적인 공격을 파탄시킬 새로운 작전이 세워졌다. 한개 소대가량의 인원이 선발되었다. 그들에게는 상륙하여 공격해오는 적들을 구름봉에서 저지해야 할 임무가 맡겨졌다. 옆에도 뒤에도 린접이 없는 여기서는 적들을 마지막까지 견제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살아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했다. 그들속에는 나어진 간호원 안선비도 끼여있었다. 피 흘려 싸우는

전사들을 위하여 누구든 간호원 한사람이 있어야 했던것이다.

수십차례의 격전에서 놈들은 술한 사상자를 내면서도 찰거마리처럼 달려들었다. 전우들속에서도 많은 부상자들이 생겨났으며 인원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구름봉방어선에서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한 기관총수가 심한 치명상을 당하고 쓰러졌어요. 그는 자신의 부상을 마지막까지 숨기면서 기관총좌지를 지키다보니 많은 피를 흘렸으며 생명이 위험한 경각에 이르렀지요.

소대장은 그를 즉시로 후송할것을 나에게 명령했어요. 그 명령이 기관총수의 생명과 함께 나를 부대로 보내기 위한것이라는것을 펴 후에야 깨달았어요. 몇명밖에 남지 않은 그들은 최후의 결전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왜서 오늘따라 그날의 일이 떠오르는것인가.

연순은 새록새록 맑아지는 마음을 안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머리를 비다듬었다.

《정말 내가 확실히 조그마한 난관앞에 손을 들었던것이야. 자기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다음날 저녁 어슬무렵까지 거름운반작업을 마친 연순은 근심스런 표정으로 따라나선 광옥을 돌아보았다.

《광옥아, 우리 구름봉에나 들려갈까? 달도 밝은데...》

한마을 이웃집에 살면서 학교길도 함께 다니며 자랐고 한작업반에서 일하면서도 연순이를 상급생으로, 선배로 언제나 선망을 안고 살아온 광옥이니 연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연순은 손에 들었던 하얀 옥도리를 어깨에 올려놓으며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학교때 오가는 길에도 명절날이나 뜻깊은 날에나 자주 오르곤 하던 구름봉의 인민군렬사묘였다.

두 처녀는 그때처럼 나란히 숲속길에 들어섰다.

동근달이 로송사이로 언뜻언뜻 비쳐들었다.

연순이는 걷다가는 우뚝 걸음을 멈추고서 아찔하게 높이 뻗은 소나무상가지들을 애타게 지켜본다. 그랬다가는 고개를 꼭 떨군다. 설음같은것이 목안을 짹 메운다. 그때 이곳을 떠나간 백로들은 지금 어디에, 그 어디에 보금자리를 정하고 살고있을까? 우리 교장은 영영 잊은것은 아닐까?

언제면 떠났던 백로들이 다시 돌아올까?...

중턱쯤 오르니 평퍼짐한 공지가 나왔다. 그 공지 한가운데 화강석묘비가 세워져있었다.

하얀 화강석으로 둘레를 쌓은 묘소옆 잔디우에

두 처녀는 나란히 앉았다. 여기서는 렬사들이 목숨바쳐 지켜낸 무연한 연백벌이 한눈에 안겨왔다.

연순은 달빛속에 여느때없이 부풀어오르는 정들은 별을 말없이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언제까지든 바라보고싶은 땅이었다.

문득 광옥이 연순의 손을 더듬어 잡으며 소심한 어조로 입을 연다.

《언니, 순철동지가 정말 돌아오지 않을까?》

연순은 광옥의 근심어린 까만 눈동자를 이윽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광옥아, 순철동진 나에게 정말 귀중한 말을 남겨준 고마운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를 더욱 잊지 못할거야.... 그리고 광옥아, 생각나니? 나는 반장이 되고 너는 분조장이 되어 여기에 올랐던 때를 말이야. 그때 우리는 굳은 맹세를 다지였지.

이 벌을 지켜 용감히 싸운 인민군전사들처럼 농사를 잘 지어 내 나라를 빛내자고 말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부족되는것이 많다고 해서 농사군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하고있었던 말이다. 이걸 그들이 지켜낸 이 땅을 적들에게 내어주는것이나 다름이 없어. 지금 나라는 총포성없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우리는 두벌농사, 감자농사를 기어이 지어 나라의 쌀독에 보탬을 주자. 그것이 령혼들이 잠든 이곳에 살 자격으로 되고 새 세대 청년들의 본분을 다하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순철동지는 나에게 그것을 깨우쳐주었어.》

연순은 광옥이의 어깨를 꼭 그러안았다.

광옥이 놀란 눈길로 연순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한참이고 바라보더니 고개를 흔든다.

《그러니 언닌 감자농사를 끝끝내 하자는거지? 위원장동지랑 막아나선다 해도 말야.》

연순은 방긋이 웃어보이며 흔연한 어조로 노래 부르듯 대답했다.

《그렇지 않구. 우리에게는 물러설 자리가 더는 없다는 각오만 가진다면 두려울게 뭐며 못해낼 일이 어데 있겠니.》

연순은 광옥이의 손목을 역세게 잡고 자리에서 결연히 일어섰다.

두 처녀는 만시름을 잊고 깔깔 웃어대며 구름봉을 내렸다. 지금은 얼어서 굳어진 땅이지만 얼마나 부드럽게 느껴지는지 온밤을 걷고싶은 심정이다.... 그러던 어느날 벌에서 일하던 연순은 관리위원회로 당장 들어오라는 차덕준의 벼락호출을 받았다. 그날도 연순이네들은 감자밭적지로 정한 논에서 버그루터기를 캐내고 배수로를 치고

있었다. 관리위원회의 승인없이 의연히 내밀고 있는 그들의 감자농사차비가 위원장귀에 안들어갈 리 없었다. 연순이는 느직느직 옷의 먼지를 털고 흙문은 신발을 닦으면서 태연하려고 애썼다. 모든것을 각오했던 그였지만 정작 호출을 당하고보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호령이 내리겠지. 당장 그만두라고. 그리고 올려멜거야. 어떻게 그를 설복시킬까? 무슨 수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놓을까?...

두령길을 가로 지르고 수로를 타고 걷는 그의 마음은 착잡하였다. 기다리다 못해 관리위원장이 마당에 나와 버티고 섰었다. 허우대 큰 몸집에 량팔로 허리를 짚고 선 품이 덩수룩한 두눈썹은 맛볼다 못해 겹쳐졌을것이다. 마음이 흠칫해졌다.

《연순반장, 동무는 도대체 어떻게 된거요?》

어성은 그닥 높지는 않았으나 첫마디부터가 온 쏘지 않았다.

《뭘 말입니까?》

연순은 모르쇠를 하였으나 꿈틀하는 눈썹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또다시 흠칫했다.

《뭘라니?... 방에 들어가보오. 어서!》

차덕준은 턱짓으로 자기 사무실을 가리켰다.

보나마나 방에다 들여다놓고 혼뜨감을 내리는 가부다. 언제까지나 붙잡아두려나? 잘못했다는 말이 나올때까지? 어서 포전으로 나가봐야겠는데.

팡옥이랑 작업반원들이 기다리겠는데. 자기네 반장이 경을 치게 댔다면서 따라서며 걱정하던 그들이었다. 빨리만 되돌려보내렸으면. 땅다루기를 마저 끝내고 감자종자를 구하러 떠나야겠는데... 그 많은 종자를 어디에 가서 구할까?...

연순이는 지금처럼 관리위원장 방문이 무겁고 서먹서먹한적이 일찌기 없었다.

방안에는 한 녀인이 다소곳이 앉아있었지만 눈길을 내리칸 연순이에게는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연순반장, 나야.》

녀인이 일어서서 문가에 얼굴을 짓속이고 서있는 그에게 총총히 다가왔다.

《아니? ... 어머니!》

연순은 어망중에 소리쳤다. 구름봉인민군렬사묘에서 낫을 익혀온 전쟁로병 안선비녀인이였던 것이다! 여기에 어떻게 왔을가. 때아닌 겨울날에?

《벌에서 일하는걸 공연히 불러들였지? 그냥 돌아가려는데 위원장동무가 왔던 길에 만나고 가라고 놀러왔히는 통에 그만. ...손이 다 텃구만. 얼굴색도 전만 못해졌어. 안해본 감자농사까지 차비를 하자니 얼마나 힘들겠나.》

녀인은 친팔마냥 손을 애투이 매만졌다.

《아니,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다...》

《내가 왜 모를수 있겠나. 말하지 않았어.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여기에 와 산다구. 관리위원장동무도 만나자바람으로 그 얘기부터 하더구만.... 참 그때문에 짝 잃은 외기리기 신세가 댔다면서? 허지만 일없어. 생활이 아닌가. 살아가느라면 별별 일을 다 당하지. 연순반장이야 뭐가 외롭겠나. 백로를 마음속에 안고 사는 처녀인데. 그러구 그 청년도 다시 찾아올거네. 어쩐지 나는 그렇게 생각되누만.》

《...》

연순이는 알릴듯말듯 머리를 저으며 고개를 숙이였다.

《돌아오지 않을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는걸요. 나역시 그럴 자격도 없구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뇌이는 연순은 눈물이 콧내솟는것을 간신히 참았다. 외기리기가 된 처지가 서러워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안해주는 그 녀인이 고마와서였다.

《내 참. 이야기장단에 기본을 빼놓았구만. 연순반장, 내 오면서 감자종자를 가지고 왔다네.》

《감자종자틀요?》

연순은 귀가 번쩍 열렸다. 감자종자라니? 이게 웬 떡이란 말인가!

《한차분은 잘되지. 우리 고장은 산골농장인데다가 연순반장네가 연백벌논에 감자농사를 한다는 말을 들으니 맘껏 싣고오고싶더라니까. 종자로 쓰고 남으면 맛들도 좀 보라구 말야. 그랬더니 웬걸. 여기 관리위원장동무가 어찌나 욕심을 내는지, 원》

《저희 관리위원장동지가 말입니까, 어머니!》

연순은 녀인의 무릎에 얼굴을 짹 묻으며 종시 흐느껴울고야말았다.

《연순반장. 그만 진정을 하고 내 말을 마저 들어요. 만난김에 꼭 하고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싸울 때 말예요. 우리에게만 약의 경우가 없었어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구요. 그랬더라면 우린 아마 누구도 안전한 방어계선인 북산에서 구름봉으로 올 결심을 못했을거며 설사 왔다 하더라도 끝까지 적들을 물리치며 싸워내지 못했을거예요. 모든걸 각오했으니까요. 그렇게 접어들고 나서니 죽음같은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게 되더군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도 그때와 조금도 다름바 없다고 생각해요. 미제놈들이 우리 나라를 굴복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도 겪게 되고. 더욱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

나 해결하자고 결심하고나선 연순네들이 얼마나 장해요.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라도 돕고싶었던거 예요. 예나 다름없이 나는 이 땅을 낳알로써 지켜가는 동무들과 한전호속에서 살고싶어요. 앞으로도...》

《알겠어요. 명심할테야요. 어머니...》

연순은 얼굴을 들고 눈물을 닦았다...

우리 두사람은 오래도록 말이 없이 눈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윽해서 나는 물었다.

《그러니까 관리위원장동무는 그때 비로소 연순 반장의 감자농사작전에 정식 가담한 셈이었구만요.》

차덕준은 허거프게 웃었다.

《글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가담이 아니라 어쩔수없이 끌려들었다고 할가... 하지만 마음은 놓을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했던 그 <만약의 경우>가 너무나 때이르게 닥쳐들었거든요...》

이야기를 이어가는 차덕준의 레의의 그 눈썹이 차츰 미간으로 모여들었다.

눈이 내리고있었다. 련사흘째 내렸다.

즈믄했다가는 퍼붓고 멎는듯 하다가는 또 퍼부으면서 줄곧 내리었다. 철기로 보면 우수가 지났는데 와야 할 비대신에 눈을 퍼부어대니 하늘이 망녕이 든 모양이었다.

눈이 몇기를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던 관리위원회에서는 어찌는수 없이 각 작업반에 긴급지령을 내려보냈다. 모든 로력을 총동원하여 마을로부터 포전머리까지 쌓여있는 눈을 쳐내라고 내려뒀인 눈이 자연적으로 녹아 포전길이 열릴 때를 기다리자면 한정이 없을것이고 그러면 생산한 거름은 눈에 내보지도 못한채 농사절기를 맞게 될것이었다.

허나 내려쌓인 눈을 쳐내기란 수월치 않았다. 비자루나 눈가래로는 어림도 없고 삽은 도무지 일자리를 못냈다. 어떤 작업반들에서는 프락프르에다 썩레를 채워 끌고 밀고 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자리가 나지 않는다. 그런대로 삽질이 나왔다.

연순은 관리위원회지령대로 반원들을 포전길 눈치기작업에 내보내고나서 탈곡장마당에 한동안 움직일줄 모르고 서있었다. 입술은 어찌나 아프게 감쳐물었던지 새파랗다 못해 금시 피방울이 터져나올것 같았다. 포전길 눈은 그런대로 쳐낸 다쳐도 감자밭적지의 그 넓은 눈벌의 눈은 무슨 수로 다 쳐낸단 말인가. 그렇다고 눈이 저절로 녹기를 기다린다면 가뜩이나 습기가 많은 눈은

봄까지 질적해있을것이니 땅다루기작업은 언제 하며 감은 언제 들것인가? 그러저럭 감자심을 적기는 다 지나가고말것이다. 감자적기를 놓치면 뒤그루논벼모내기가 지장을 받게 된다. 이것이 관리위원장이 입버릇처럼 뇌여온 《만약의 경우》이며 시험삼아 해보자는 주장의 현실성이란 말인가?

감쳐문 입술의 아픔보다 더 아프고 쓰린것은 그의 심장이였다. 가슴속에서는 작은 심장이 경련을 만난듯 후두둑 후두둑 흥벽을 친다.

(어쩔수 없는거 아니야? 날씨때문인걸...)

한 목소리가 처너를 조용히 달랜다.

(뭘라구? 날씨? 언젠 뭘 날씨가 우리 뜻대로 되여주었어? 앞으로는 뭘 또? ...우리는 지금까지 농사 안된 잘못을 너무나도 많이 날씨에다 뒤집어씌워왔어. 그리고는 너나없이 발편잡을 갔었지. 아니 이제 더는 날씨와 또 다른 조건에 빙자할수 없어. 물러설 자리가 더는 한치도 없단 말이야. 저 구름봉의 렬사들이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있어. 자신들이 피로써 지켜낸 이 땅을 쌀로써 어떻게 수호하고있는가를 령혼들은 잠 못 들고 지켜보고있단 말야!)

멎을듯 후두둑거리던 심장이 다시금 세차게 고동을 친다.

연순은 돌연히 삽을 둘러메고 포전으로 향했다. 아득한 공간은 눈발로 가득찼다. 땅우에도 눈이고 하늘에도 눈이고 온통 눈천지였다. 거대한 숨이불에 뒤덮인 넓은 전야에서는 길을 가려볼수 없다.

연순은 어림짐작으로 걸었다. 어꾸러지기도 하고 풍덩풍덩 빠지기도 하면서...

《반장언니!...》

눈발속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뒤덜미에 매달렸다. 분조장 광옥이었다.

《치라는 눈은 안치고 왜 따라나섰다는거냐?》

연순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채 차겁게 물었다.

《작업조직을 다 했어요.》

《조직사업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앞장서야 하는것이 분조장이라는 말을 한두번만 해왔니? 어서 작업장으로 돌아가봐라.》

《싫어요. 난 반장언니를 혼자 보낼수 없어요.》

광옥은 눈우에 자빠지면서도 할 말은 했다.

《원 애두. 내가 뭐 적후에라도 들어가니?》

《적후나 같지요 뭐. 눈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있지 않나요.》

《하긴 네 말이 옳을는지도 모른다. 농사라는건 항상 자연과의 투쟁을 동반하고있으니 전투의련속이니까.》

연순은 더 나무라지 않고 내쳐 걸었다.
《그런데 언니, 이제 포전으로 가서 어찌자는거
예요?》

《눈을 쳐내야지.》

《그 넓은 논이 눈을 다요?》

《그러니까 전투라는거지.》

《?...》

감자적지로 정한 눈에 다달으니 다행히 눈이
벗었다.

두 처녀는 안간힘을 쓰면서 논판에 눈을 모아
모아 나갔다. 눈무지들을 지어놓고 맞들이로 수
로까지 날라가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모아도 눈친 자리가 눈무
지만큼도 안되었다. 어이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숨옷도 목도리도
다 벗어놓았는데도 그냥 땀이 흘렀다.

《하늘도 미쳤지. 철도 모르고 눈을 퍼부으니.》

허무감에서 오는 광옥이의 반발이었다.

그런데도 연순이는 들은듯만들 샅만 해댄다.
땀발이 내뻗 동그스름한 얼굴이 빨갭게 익었다.
작업반원들도 아무 말없이 일손만 재게 놀리었
다.

광옥은 저도 모르게 속이 찌르르했다. 한뼘 농
사를 짓느라고 몸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애면
글면하는 연순이 정상이 새삼스럽게 눈물겨웠다.
자기는 그러면서도 작업반처녀들이 조금만 몸단
장을 소홀히 할라치면 지청구가 이만저만 아니
다.

《한창 처녀시절에 머리가 그제 뭐냐. 벌에서
일하니 보는 사람이 없다구? 어서 당장 미용원에
가서 파마를 하고 나와. 나라의 쌀독을 채워가
는 우리 농장원들은 마음도 깨끗해야 하지만 몸
맵시도 아름다와야 해. 도시 청년들에게 보란듯
이 말야.》

이러한 연순이기에 강습이나 회의같은데 갔다
가 돌아올 때면 잊지 않고 처녀들에게 고급화장
품을 한가지씩이라도 사다주었으며 그들이 시집
갈 나이에 이르면 레장감을 장만하도록 관심해주
었다.

이런 마용씨 고운 연순이가 어쨌다구?

불쑥 순철이 생각이 나 속이 치밀었다. 생각할
수록 패심하였다. 그런 청년인줄 미처 몰랐다. 어
쩌면 그렇게 헤여지고는 그림자 한번, 편지 한장
없단 말인가. 후회할 때가 올거야, 흥.

《넌 뭘 혼자서 중얼거리니?》

연순이가 일손을 멈추지 않은채 물었다.

《웅졸하단 말예요. 순철동지가.》

광옥은 하마터면 속생각을 내비칠번 하였다.

그저 꼭 눌러 참았다. 상처입은 연순이의 마음을
헤집고싶지않아서였다.

그러던 광옥이가 연순이의 일손을 멈춰세웠다.

《언니, 저길 봐요. 저기!》

광옥이가 호들갑을 떨었다.

연순은 얼굴에 그가 가리키는 레성강물길제방
길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삽자루를 둘러멘 인민군전사들이 렬을
지어 구보로 달려오는것이 아닌가. ... 그들은 곧
장 생논을 헤치며 여기로 들어섰다.

《어마나!》

뜻밖에도 맨 앞장에서 달려오는 군인은 순철이
였던것이다.

《언니, 저기 순철동지가...》

《그래... 그래...》

연순은 때아니게 눈물이 콧 솟아올랐다.

《빨리요, 언니...》

광옥은 제잡담 손을 높이 들어 흔들어보이고는
연순의 손을 이끌었다. 군인들은 눈에 들어서자
마자 달려온 그 기세로 눈을 쳐내기 시작하였다.

여기저기에 눈가루가 뽀얗게 피어올랐다.

순철이 연순에게로 싱글벙글 웃으며 다가왔다.

《연순동무, 고맙소. 난 다 알고있었소. 동무가
어떻게 자기를 이겨내고 일어섰는지 말ियो.》

순철에게 두손을 짹 쥐운 연순은 고개를 수그
리었다.

《순철동지, 고마워요.》

이윽고 연순이 고개를 쳐들고 순철의 얼굴을
물기어린 눈으로 더듬었다.

《순철동지. 그런데...》

순철은 그러는 연순을 정겹게 마주보다가 큰
눈을 습벅여보였다.

《그렇게 됐소. 대학에는 내년에도 가기로 토론이
됐소. 연순이가 걱정스러워서...》

《아이 참.》

연순은 행복에 겨워 눈을 사르시 내리감았다.

얼마나 웅심깊고 미더운 사람인가.

재빨리 순철과 연순의 옆을 피해가며 광옥이가
제풀에 까르르 웃으며 군인들속에 묻혀버린다.

《하하하》

순철이도 웃고 연순이도 웃었다. 하늘도 땅도
웃는듯싶다.

...

바야흐로 감자꽃이 피는 계절이 왔다.

끝간데없이 펼쳐진 남대지벌 논벌에 감자꽃이
만발하였다. 하얀 꽃, 분홍꽃, 보라꽃... 말그대로
감자꽃바다다. 드넓은 연백별논판에 피어난 감

자꽃이어서 보면 볼수록 장관이고 황홀경이었다.
그래서인지 감자꽃을 구경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그칠새없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논지대에서 감자작황을 안아온 경이적인 일을 놓고 이구동성으로 찬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차덕준은 연백벌에서의 감자농사혁명선구자는 자기가 아니라 《백로소녀》정연순이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으나 그 말이 쉽게 나가지 않았다. 그것을 어찌 한두마디 말로 다 표현할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감자꽃을 희한하게 바라보며 포전으로 들어서는데 누구인가 환희에 넘쳐 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봐요, 백로들이 날아와요. 백로떼야요!》
살펴보니 광옥이가 하얀 수건을 높이 흔들며 다음쳐오고있었다.

《언니. 반장언니, 어디 있어요. 백로들이, 백로떼들이 날아오고있잖아요!》

찾고볼려도 연순이는 어디로 갔는지 대답이 없고 백로떼가 날아든다고 여기저기서 야단법석들이다.

바라다보니 구름봉우에 백로들이 하얗게 떴다.

그런데 연순이는 어디에 있나? 왜 보이지 않나? 백로들이 날아드는데 어딜 갔을까?...

연순이는 포전막에서 쪽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이 고장을 떠난 백로들을 그리는듯 꼬부린 몸우에 새하얀 명주수건이 덮여져있는데 예상수확고를 판정하느라고 캐놓은 디굴디굴한 감자무지를 가슴에 그러안았다.

《언-니!》

허둥내던 광옥이 포전막으로 달려들었다.

광옥은 왈각 울음이 터져나와 얼굴을 싸쥐는데 백로들은 정겹게 울어이며 감자꽃바다우를 날고 또 날고...

더 말을 잊지 못하는 차덕준의 커다란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가슴이 축축해진 나는 기차시간이 바쁜 사람처럼 급급히 가방을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위원장동무, 나는 빨리 구름봉마을로 가아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백로소녀>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서 순철청년과의 그후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그런데 차덕준이 나를 끌어앉히는것이였다.

《그렇드라도 내 이야기를 마저 들어야지요...》

백로떼가 꽃피는 감자포전에 날아든 바로 그날이었지요. 순철동무 어머니가 아들을 앞세우고 우리를 찾아왔지요...》

《아니, 어머니라니요?》

나는 다우쳐들었다.

《거 왜 구름봉인민군렬사묘에 자주 찾아온 그녀인 있지 않습니까. 감자종자도 싣고온분.》

《아, 전쟁로병 안선비!》

《웁습니다. 다름아닌 그분이 순철동무의 어머니였다고요. 그때 후송된 기관총수는 그의 아버지였구요. ...찾아와 하는 말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함께 우리 고장에 와서 살겠다는거지요.》

《그래요?! 기막힌 결합이군요. 그럼 그들이 이젠 가정을 이뤘겠구만요?》

《어찌 가정뿐만이겠습니까. 떡돌같은 아들과지...》

《아, 그렇다면 어서 찾아가 생남축하까지 겸해서 해야겠구만요.》

나는 다시 가방을 손에 들었다.

그런데도 그는 내 무릎을 꼭 눌러잡고 놓아주지 않는것이였다.

《글쎄 가야 만나지 못합니다. 그는 이제는 구름봉작업반장이 아니랍니다. 이웃 농장 관리위원장으로 소환되었지요.》

《그래요? 그럼 저기로 찾아가야지요.》

나는 더 기쁘고 초조했다.

《그곳에 가도 아마 만나지 못할겁니다. 지금쯤은 대홍단에 가있을테니까요. 그는 감자농사를 더 지으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면서 어제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대홍단종합농장으로 떠나갔지요.》

나는 그만 실망감에 사로잡혀 창문밖만 내다보았다.

아, 《백로소녀!》

그와의 상봉이 이루어질 날은 과연 언제일까...》

원 예 사

엄성영

나는 지금 원예사가 아니다. 나는 원예사들을 존경하며 일생을 원예사처럼 살려고 때없이 마음을 가다듬곤 한다.

사과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로운 사과가 주렁지는것은 그 그루마다, 가지마다에 원예사의 정교한 손길과 정성이 깃들어있기때문이다.

원대에서 나온 원가지를 따라 결가지들이 뻗고 결가지에서 나온 무수한 잔가지들이 아래위로 엇갈리고 겹놓인 사과나무우듬지는 섬없이 설레인다. 설레이는 그 숨결을 가려듣고 고르롭도록 균형을 잡아주는것이 원예사이다. 우락부락하기를 잘하고 저만 똑 제일이라고 하는 사내녀석은 좀 놀려놓고 자그마한 일에도 앵돌아지고 주접이 들어 울먹울먹하는 처녀애는 손잡아 일꿔세워주는 어머니의 손길인양 원예사는 사과나무에서 돋아나는 가지는 전정가위로 놀려주고 밑으로 처졌거나 늘어진 가지는 굵을 틈워 취세워준다.

참으로 어머니의 다정한 손길처럼 원예사는 사과나무의 모양과 영양상태를 제때에 가늠하고 숨결을 가려들으며 자기의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잔시중을 드는것이다.

얼마전, 나는 우리 나라 굴지의 파수농장의 하나인 사리원파수농장을 찾았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기 마산등반에 차를 멈추시고 오늘의 파수농장터전을 잡아주시였다.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뿌리를 내린 과일나무들이 무성하게 숲을 이루었다.

나는 여기에서 사회생활의 첫발자국을 찍었다. 신묘하고 정교한 원예사의 미련을 틔우는 과정, 그것은 곧 사과나무의 숲을 더욱 무성하게 자래우고 그 숲과 더불어 내 나라, 내 조국의 아름다움, 귀중함을 가슴속깊이 간직하며 더더욱 빛내이는 과정이었다고 할가.

우리가 탄 빠스는 파수농장을 가까이 하고있었다. 나의 눈앞에는 한 원예사의 얼굴이 떠오른다.

김운삼작업반장이다. 땅속깊이 뿌리박은 사과나무처럼 과묵하고 진중한 사람, 말을 행동으로 대신하곤 하는 그는 작업반의 어느 호원, 어느 귀퉁이에 선 사과나무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영양상태가 어떤지 환히 꿰들고있는 사람이다.

책상물림인 나는 1급원예사인 그에게서 사과나

무모양다듬기를 배웠다. 그는 사과나무뿐아니라 그 어떤 종류의 과일나무모양다듬기에서도 막힘이 없었다. 아무리 험상궂게 가지들이 엉켜붙은 사과나무라도 그의 손길이 한번 가닿기만 하면 마치 리발이라도 하고난듯 멀끔해졌다. 무르익은 사과의 모양과 빛깔을 보고야 겨우 몇가지의 품종을 가려내던 나는 사과나무의 모양을 보고서는 도저히 품종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 품종이 저 품종 같고 저것이 이것 같은게 분간할수 없었다. 그러니 품종별에 따라 달리하는 모양다듬기와 가지자르기방법에 대해서 더 말해 뒀하라. 그런 속에서도 나는 창피를 느끼지 못했다.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았다. 처음으로 파수원에서 일하니 그쯤한거야 있을법한 일이 아닌가고 자신을 위안했었다. 이런 나를 김운삼작업반장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넌 마음의 잡도리가 글렀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사과나무의 모양을 다듬는 일이라고만 생각해? 자신을 가꾸고 키운다는 생각은 왜 못해?》

엄했다. 요구성이 높았다. 이상한것은 무슨 일이든 꼭 사과나무와 결부해서만 이야기하는것이다. 그날저녁부터 나는 꼼짝못하고 농업과학기술 지식보급실에 붙잡혀 파수학공부를 했다. 에누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김운삼반장이 나를 데리고 파수학연구소의 품종포를 찾았다. 사과나무의 표피색과 열매가지 모양, 가지뻗는 습성을 대비적으로 차근차근 일깨워주었다. 그 나날에 나는 사과나무와 함께 자신의 마음도 가꾸며 키를 자래웠다. 그때 김운삼의 엄한 신칙이 이제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오늘까지도 나의 머리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아있어 어렵고 힘든 일에 부닥칠 때마다 힘과 용기를 더해주곤 한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하루빨리 원예사의 묘리를 터득하려는 욕심으로 사과나무에 올라 덤벼치던 나는 결가지 하나를 찢어놓았다. 아쉽고 부끄럽고 당황하기도 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찢어진 결가지로 톱을 가져갔다. 누군가 조용히 내 손목을 잡았다.

《잘라버리는것은 어렵지 않아.》

김운삼이었다. 나는 톱을 내리웠다.

《뿌리가 얇게 났군!》

그가 혼자소리로 뇌이며 어디론가 급히 사라졌다. 나는 얼굴에 모닥불이라도 뒤집어쓴것 같아 제깎에 씹씹거렸다. 결가지가 찢어졌는데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걱정은 또 뭐가. 이 큰 과수원에서 그까짓 결가지 하나가 뭐 대수냐는 생각에서였다. 후에 알게 되는데 의하면 사과나무는 지상부와 지하부 사이에 서로 균형을 맞춘다. 사과나무의 큰 가지 하나가 상하면 사과나무의 큰 뿌리 하나가 앓는게 생리이다.

찢어진 상처부위가 벌겍게 산화되어가고있었다. 어디론가 사라졌던 김윤삼작업반장이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진흙같은것이 들려있었다. 점답이었다. 그는 유능한 외과 의사 동통이 심한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듯 갖고온 점답을 찢어진 결가지부위에 바르고 비바람이 스며들 세라 비닐로 싼 다음 끈으로 동여매주었다.

《손에 전정가위를 쥐었다고 다 원예사가 되는 건 아니야. 사과나무에 정을 주고 아픈 숨소리까지 들을줄 알아야 진짜 원예사로 되는거야.》

《치료》를 끝낸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진심이 담겨져있었다. 나는 결가지 하나라도 아끼는 그의 마음을 읽었다. 그 마음이 사과나무와 함께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속에서 거목처럼 자라난다는것을 그때는 미처 의식하지 못했었다.

하기에 그는 도에 새로 꾸린 큼직한 수목원의 책임원예사로 오라는 청도 거절하고 과수원에 뿌리를 박았던것이다. 우리 인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한없는 사랑이 어려있는 이 과원을 한생토록 가꿔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워온 그였다.

한동안 경쾌하게 달리던 뺨스는 봉산등판에서 멎었다. 나는 뺨스에서 내렸다.

(그런데 웬일인가?)

젊은 시절, 사회생활의 첫발자국을 찍으며 정성껏 가꿔온 사과나무모습을 찾아볼수 없었다. 나는 못내 섭섭했다. 그것은 한순간, 나의 섭섭함은 곧 기쁨과 놀라움, 환희로 뒤바뀌었다. 봉산등판을 따라 키낮은 사과나무들이 눈뿌리 모자라게 아득히 펼쳐진것이다. 나무마다 울긋불긋 탐스럽게 주렁진 사과, 선들바람에 실려오는 취할듯한 향기... 나는 젊은 그 시절로 되돌아온 기분이였다.

《사과를 인수하러 왔는가요?》

넋을 잃고 등판을 바라보는 나에게 웬 처녀가 다가와 자기를 작업 반장이라고 소개하며 물었다.

(헛참!)

망랑한 일이었다. 나는 짐짓 시치미를 뚝했다.

《그럼소. 얼마나 낼수 있소?》

나는 처녀를 마주보며 물었다. 꽃술처럼 눈섭이 까부장하니 휘고 뺨에 김이 있는 처녀, 동글납작한 처녀의 얼굴은 익은 사과알처럼 빨갳다.

《암만이고요. 그런데 사과를 인수하러 온것 같지는 않아요.》

처녀의 두눈이 생글생글 웃고있었다.

《왜?》

《그렇게 느껴지는걸요 뭐. 과수원구경을 오셨지요? 길손들이 종종 찾아온답니다. 사과향기에 취해서, 노래소리에 이끌려서. 오셨던김에 우리 고장의 사과맛부터 보세요.》

처녀는 나를 아예 길손으로 치부해버렸다. 어느새 사과 몇알이 담긴 바구니를 나의 앞으로 가져왔다.

《이것부터 드세요.》

처녀는 크고 빛갈곱고 탐스럽게 무르익은 사과한알을 골라 나의 손에 쥐여주었다. 감미로운 향기가 코를 찌른다. 참으로 달고 시원한게 맛이 좋았다.

《별미지요?》

나는 머리를 끄덕이며 두번째 사과알을 골라잡았다.

《사과란 원래 동글납작하게 생겼거나 까치가 파먹던것이 별맛이라고 했지.》

《호호, 옛말을 그냥 하는군요. 지금은 기준이 달라졌어요.》

나는 옛 추억이 되살아나 한마디 했다가 처녀한테서 보기 좋게 꼴을 먹은셈이 되고말았다.

《저 사과나무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새품종의 키낮은사과나무들이예요. 새 종자가 또 있어요.》

나는 가슴이 몽클했다. 한때 과수원에서 일했던 타성으로 과수분야의 소식에 전혀 깜깜은 아니였지만 정작 당하고보니 생각되는바가 컸다.

《언제 심었소?》

《3년전예요. 우리가 심었어요.》

처녀의 목소리에는 일종의 긍지와 자랑이 내비치고있었다,

《처녀동무도 기사인가요?》

《사리원농업대학을 나왔어요. 원예사예요.》

나는 처녀한테 점점 이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그럴만도 했다. 사과상자가 그득 실린 자동차, 트랙트르들이 과수원길을 따라 줄지어 달린다. 사과파는 처녀들이 부르는 즐거운 노래소리... 얼굴마다 밝은 웃음이요 바구니마다 그득그득 사과가

넘친다.
 《김윤삼작업반장은 집에서 쉬는가요?》
 나는 처녀에게 물었다. 순간 처녀는 의아한 표정이었다.
 《저의… 아는 사이예요?》
 《그저 좀…》
 《일손을 놓으면 오금이 싸서 잠시도 견디지 못하는 성미예요. 더구나 지금 공동구호에 접한 때부터는 더 마음이 끓고있는걸요. 그래서 자진하여 새 종자의 사과나무모관리를 하고있어요.》
 나는 처녀가 가리켜준대로 봉산등판을 따라 한 동안 더 걸음을 옮겼다.
 《어이쿠 이게 누군가? 작업반의 막내이가 아닌가!》
 김윤삼은 나를 보자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다.
 《잊지 않고 찾아와 고맙네.》
 《제가 어떻게 here를 잊겠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일 없네. 사과를 먹으면 장수한다는거야 임자도 알지 않나. 허허… 지금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보내주신 사과나무모관리를 맡아하고있네.》
 나는 다시금 가슴이 뭉클했다. 어제와 오늘도 지심깊이 뿌리박은 사과나무와 같이 그 어떤 비바람에도 끄덕없이 당을 받들어 곳곳이 한 모습으로 살고있는 김윤삼이다.
 《생각하나? 작업반의 말이노라고 으시대던 영국이말이야.》
 《예. 과수학연구소 연구사로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웁네, 연구사야. 내가 우리 장군님께서 보내주

신 새 종자의 사과나무모관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전정가위랑 기술서적을 갖다주지 않겠나, 허허.》
 《그런데 전 빈손으로 왔습니다.》
 《왜 빈손이라고 하나. 임자야 필봉으로 우리 장군님을 받드는 문필전사가 아닌가? 자네가 쓴 글을 종종 읽군 하네. 그래서 딸한테도 자랑하군 하지.》
 《딸이라니요?》
 내가 묻자 김윤삼이 의아해했다. 나는 사회생활의 첫발자국이 찍힌 작업반에 들리지 않았는가고 묻는 그에게 처녀작업반장을 만났던 이야기를 했다.
 《그 애가 내 막내딸이라네. 우린 서로 배우고 배워주는 원예사가정이지.》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일생을 묵묵히 사과나무를 가꾸고 키워가는 원예사가 어찌 이 김윤삼뿐이라. 그 누가 보전말건대를 이어 위대한 장군님의 높이신 뜻을 활짝 꽃피워가는것이 어찌 이들뿐이라.
 바로 그 진심이 사과나무그루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울긋불긋 사과가 주렁지게 하는것 아니라. 탐스럽게 주렁진 사과의 달디단 즙이 되고 취할듯 한 향기가 되는것 아니라. 조국에 바치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헌신의 구슬땀이 있어 내 조국의 빛나는 년대가 마련되고 강성대국의 래일이 앞당겨지는것 아니겠는가!
 원예사, 나는 말없이 자기의 성실한 지혜와 땀으로 조국의 래일을 가꾸는 이들을 생각하며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다.

◁가사▷

어머니와 딸

리희순

부모없는 우리를 키운 어머니
 다 자라 그 사랑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새겨진것은
 남이 없는 내 나라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슬하에서 이 딸은 자라
 영예군인 안해가 되었습니다

한식솔된 내 나라의 뜨거운 정을
 고향으로 변함없이 이어갑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살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사는
 예가 바로 내 사는 고마운 조국
김정일장군님의 품이랍니다

청춘-돌격대-언제

김형준

《지진》

오! 그것은 정녕 《지진》이었다
산이 천길나락 내려앉아 바다가 되고
언제가 만길 솟아 산악으로 자리잡은
삼수땅을 흔든 150만산 대발파

그것은 정녕 《지진》이었다
움췌!- 순간 지구가 기울어졌는가
산중에 생겨난 인공대호수-바다
산과 바다와 자리바꾼 대발파

그것도 정녕 지진이였다
지축마저 죽음에로 기울어졌다는

하여 지진과 해일로 나라마저 없어진
인디아양의 재난을 가져온 대지진

그것은 정녕 《지진》이었다
기울어진 지축을 바로세우듯
삼수땅을 뒤흔든 150만산 발파는
불과 물을 바꾼 《지진》이었나니

오! 그것은 정녕 《지진》이었다
물에서 불을 창조한 혁명과 건설의 《지진》
불로 바다를 불러온 사랑과 행복의 《지진》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퇴성이었다!

내 고향의 모습은...

발전소언제건설장에서
돌격대원 저마다 고향자랑 한창
별방내기 분대장 쌀자랑 펼치니
청진내기 소대장 바다를 불러오네

언제가 높아지면 고향이 지척일듯
자랑으로 쌓여지는 발전소언제
자기 고향 아름다움 하나씩 안아다
삼수땅 내 고향을 빛내주는 돌격대원들

삼수땅엔 내 조국의 자랑 다 모인듯
수풍의 언제도 철의 도시 철탑도

높이 솟은 백두산 찬란한 오각별을
한품에 안아 받아들여올린 황금벼이삭

바다없는 내 고향 바다가 부럽더니
전기 많은 고향 가면 전기가 부럽더니
이 세상 풍요함 내 고향 지니게 되었으니
내 고향자랑 따로 할 말이 없노라

백두산3대장군 그려주고 빛내주신
우리 나라 국장은 내 고향의 모습
그대들 품고사는 국민의 증표마다에
내 고향이 새겨져있음을 그대들 아시라!

바늘과 실

돌격대의 처녀들 언제나 바쁘더라
남먼저 일어나 화장도 해야지
배식도 해야지 뉘모이도 주어야지
총각들 작업복도 빨아 다림발도 세워야지

시집가는 처녀들 지참품 갖추듯
의례히 갖추고 다니는 바늘과 실

남몰래 특별히 간직한 하얀 목달개는
아마도 그 총각에게 달아줄거겠지

건설장 휴식참엔 하나의 풍경
총각들은 똑-딱 공구정비 여념없고
처녀들은 총각들 목달개도 달아주며
바느질로 휴식시간 누벼가는데

깨어진 마대 김고 목달개 달아주며
 실새 없는 처녀들의 살뜰한 손은
 건설장에 고향의 어머니를 불러오는 손

청춘과 사랑과 위훈을 하나로 누벼가는 손

아, 처녀들 품에서 바느질을 꺼내여
 언제아래 강줄기를 실로 꿰여들어
 목달개를 한뼘두뼘 누벼갈 때면
 이 땅이 수틀되어 언제가 그러지오

돌격대의 철학

돌격대의 나날에 우리는
 언제나 앞장에 서는 법을 다 배웠다
 진펄길에... 벼랑길에...
 하여 앞장을 양보하면 수치가 되는 법을

돌격대의 나날에 우리는
 뒤에 남는 법도 다 배웠다
 발파심지에 불을 달며
 내뒤에 누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법도

돌격대의 나날에 우리는
 주는 법도 다 배웠다

살도 피도 목숨도 남을 위해 주는
 마음 후한 동지가 되는 법도

돌격대의 나날에 우리는
 삶의 철학을 다 배웠다
 혁명은 준엄하여 희생이 없으랴...
 혁명에 바친 냇은 흙에 묻히지 않는 영생법을

돌격대의 나날에 우리는
 하나만을 안배웠다
 걸으며 먹고 걸으며 자던 땀젖은 하루와
 안락한 삶의 백년과 바꾸는 죽음의 법만을

《지점》에 대한 시

쌓았다 하기엔 너무도 거창하다
 언제라 부르기에 말조차 무색하다
 이 땅 지표면에 언제라는 산이 솟아
 지구가 무거워진 위대한 전변이여!

언제우에 올라서니 생각나누나
 -나에게 《지점》을 달라 그러면 내
 지레대로 지구를 들겠다고 한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의 말!

만일 그가 삼수발전소 언제를 보았다면
 언제를 지구를 들어올릴 《지점》으로 정했으리

만일 그가 언제를 다지는 다짐봉을 보았다면
 지구를 들어올릴 《지레》대로 삼았으리!

그렇다 우리는 장군님 바라시는 곳마다
 언제의 《지점》을 세우는 돌격대원들
 그 지점 만년보화의 보물고 되어
 전류같은 세월 이 땅에 흐르게 하리니!

《장군님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 구호아래 높이 쌓은 언제를 지점삼아
 강성대국 내 조국을 높이 들어 올리리라
 온 세상사람들 부러워하도록!

청춘레찬

언제건설자라면 더 물을것이 없다
 그의 담력! 그의 성격! 그의 근면성!
 처녀들에겐 언제가 억만재부의 《지참품》되고
 총각들에겐 언제가 만년사랑의 초석이 되거늘

언제건설자라면 그의 담력 보이는듯싶더라
 앞으로 흐르며 길을 여는 강물과 같이
 언제건설자라면 불과 빛과 열처럼 뜨겁더라

벼랑에서 떨어지며 창공나는 수리개같이
 언제를 높여온 신념 언제처럼 굳건하거늘

언제건설자라면 움직이는 언제처럼 보이더라
 언제를 생활의 뜻으로 올린 그의 앞길엔
 그 어떤 폭풍에도 찢기지 않을 뜻이
 몰탈에 절은 그들의 옷자락에 펄럭이기에
 그들의 심장은 타빈, 눈빛은 무수한 계기들

그들의 노래는 언제를 내리는 장쾌한 폭포
그들의 삶은 늙음을 모르는 전기같은 열정

언제건설자라면 그 눈길 만리를 본다더라

높은 산에 올라 바라보는 곳은 끝이 있어도
언제에 올라 바라보는 곳엔 불빛밝아 끝없나니
그대들은 강성대국 그날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

청춘-돌격대-언제

청춘-돌격대-언제 이는 하나의 운명
청춘시절 졸업증 언제우에서 받았다면
그 청춘은 만점청춘 졸업생
언제는 그대들의 청춘시절을 보증하는 산구간!

그대들은 입당청원서도 언제우에서 썼다
거기엔 티검볼 하나 없는 량심만을 다졌기에
그대들은 분공을 받아도 언제우에서 받는다
언제높이는 신념과 량심이 보이는 도표!

그대들은 편지를 써도 언제우에서 썼다
안부보다 먼저 주고받는 소식은 언제의 높이
그대들은 사랑을 고백해도 언제우에서 했다

언제 솟아 만년이면 맺은 사랑도 만년!

그대들은 잠을 자도 언제를 베고 잤다
그대들은 강줄기에 빗장지른 언제의 파수병
그대들은 아이들의 이름도 언제라고 지었다
언제는 강성대국 내 조국의 불의 성새!

오! 청춘-돌격대-언제 하나의 운명이여!
못인생의 자옥은 발밑에 새겨졌다 지워져도
그대들의 자옥은 하늘높이 새겨지는 자옥
조국이 만년재부로 아껴 불멸할 언제다!

-삼수발전소건설장에서-

어쩌면 좋아

강옥녀

잠든 식구들이 깨여날세라
살그머니 문닫고 나온 이밤
작업반 마당가에 세워둔
프락포르에 발동을 거니
통통통... 밤정적을 깨치는 그 소리

에이참 프락포르야
네 목청 왜 그리 크니
기껏 목청을 질러대니
이밤엔 네가 정말 미운걸
모내기에 성수났던 사람들
한껏 단꿈에 든 때란다

쳐너프락포르운전수라
사람들 선망어린 눈길로 바라볼 땐
너의 발동소리 그리도 정다웁더니
이 밤엔 네가 정말
야속하기만 하구나

너도 보았지
써레질 앞세우며 달려도
푸른모 가득 담아신고

우리뒤 부지런히 따르던 모내는 기계들
뒤질세라 바짝 달라붙던 모공급수들

모를 빨리 내자고
들판 저 멀리 내뻗치는 그 기세
올해는 농사에 총집중, 총동원하는 해라
달아오른 이 열정
마음껏 달음칠 마음이다

한배미 넘어간다
또 넘어간다...
소리치던 그 목청들이 나를 재촉해
이밤 조용히 별로 나가자 했더니
어진 두눈 환히 켜들고
그냥 통통이니

프락꿀 발동소리에
마음 맞춰 일어나던 마을사람들
이밤 새벽인줄 알고 깨나면
어쩌련
어쩌련

불타는 해야(외 1편)

오정로

동녘에 솟을 때도 붉게 타고
서산에 질 때도 불타는 해야
별을 가꾸며
한몸 아낌없이 깡그리 바쳐가는
내 마음 네가 알고
내 마음 내가 알아
시작에서 끝까지 불타는 하루하루가
저 이랑에 움을 띄우고 풍작의 푸르름을
새기더라

솟을 때 바라봐도 눈부신 그 빛
질 때에 바라봐도 눈부신 그 빛
별을 달리며
해종일 진함없는
내 걸음 네가 닮고

네 걸음 내가 닮아
시작에서 끝까지 그 빛 아롱지는 땀 방울방울이
쭉정이없는 이삭이 되어 물결치더라

솟을 때도 안고 솟는 붉은 노을
질 때도 안고 지는 붉은 노을
별에 뿌리내리고
모진 광풍 몰아쳐도 변함없는
내 마음 네가 안고
내 마음 내가 안아
시작에서 끝까지 내 한생 너처럼
불타게 살며
우리 장군님 받들리라
아, 불타는 해야!

큰 길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섰는가요
감나무집 새며느리도
우물집 막내딸도
김매기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결에는
고향도 직업도 서로 다른 지원자들
온 나라가 별에서
어깨를 맞춘듯싶습니다

저 지평선 한끝으로
쭉 뻗어간 푸른 이랑을 따라
제초기 밀어가는 사람들

어쩌면 저렇게 걸음도 마음도 잘 맞을가요

쭉- 자를 대고 금을 그은듯
앞서고 뒤섬이 없는 한줄
컹컹- 숨결은 하늘에 닿고
등골로는 땀이 줄줄이 흘러도
서로가 뒤질줄 모르는 자리

제초기 밀며
일제히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도 기본전선, 농업전선의 풍요한 가을이
덩실덩실 굴러올
큰길을 닦는듯싶습니다

성구, 속담

허황한 일

- 바다밑에서 달을 건지랴.
- 바늘로 우물파기.
- 구름사이에 다리놓기.
- 파리가 코끼리 잡는 꿈을 꾸다.

- 소경에게 거울 주는 격.
- 소경앞에서 등잔 켜다.
- 소경에게 날이 밝았다 알려주는 격.
- 손가락으로 하늘 찌르기.

경구, 격언

- 인생은 짧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 방에 책이 없는것은 육체에 넋이 없는것과 같다.
- 가장 으뜸가는 장식은 깨끗한 량심이다.
- 사람은 벼를 자기와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의를 지킬수 없다.

- 만일 정의로운것이 멸망한다면 사람은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것이다.
- 례의는 사람들을 신성하게 만든다.
- 우정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도 사랑할 때 있게 된다.

우리는 이 별의 주인이다!

리진협

분여지의 이삭
협동화의 이랑을 가꾸며
이 땅에 농민이 주인이 된 때로부터도
나는 썩 후에 그 바통을 넘겨받은 세대
허나 이 봄날
제 땅을 가지고 싶어하던
그 옛 세월의 소망보다 더 저리게
땅의 참된 주인으로 살리라는 열망이 끓는
나는 오늘의 농민세대 이 별의 주인

나의 첫 걸음마 새겨져있고
유치원 학교길에도 따라서던 별에
고난의 찬바람 제국주의압살의 찬바람
불어칠적에
별이여, 너는 가르치지 않았더니
저 길우에 수놓던 내 어릴적 꽃신무늬
우리 마음놓던 행복우에
파연 무엇을 강요하려
그렇듯 차갑게 불어왔던가

우리 함께 가는 리병원과 농장회관
우리 함께 앉는 선전실과 관리위원회
그 모든것에서 주인들을 끌어내려 했고
주인으로 누려가는 행복우에
하나하나 찬서리 없으며
다름아닌 우리
이 별의 새세대 주인들에게
그 모진 바람은 노예로 살기를 강요했다

그 나날 우리 생각했노라
우리를 키우며 아낌없던 전세대들의 땀이
무엇으로 그리도 무거웠던가
다시 빼앗겨선 안되는 그런것이기에
이 별만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본분을
그들은 목숨바쳐 사랑했다는것을

생각했노라
폐사로운 날 그리 즐겨 입에 올리던
구수한 흙냄새라는 말이
얼마나 값비싼것인가

이 별과 저 이랑 한줌 이삭에도
무엇을 안고나설 때라야만이 정녕 참되게
땀과 량심, 진정과 사랑
참으로 주어야 할 모든것
심장까지도 줄수 있는가

그처럼 참되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백년이 가도 간직할수 없는 그것
소작살이운명이라면 정녕
천년이 가도 간직할수 없는 빠져린 그 자각
그렇듯 피끓이며 이 가슴에 온것이기에
오늘도 심장처럼 가슴에 툭툭 튀노라

그래서 아니더냐
강성대국의 큰 설계를 펼친 조국이
이번에는 우리 차례라고
이 별의 주인들을 보고있다는 그 자각
우린 때없이 생각해본다
넓혀준 이 별, 천리 그 물길
가꿔야 할 두별 이랑들...
오늘의 농민세대 이 별의 주인들에게
조국이 주는 하많은 그 부탁
조국이 주는 믿음에는 얼마나 큰 뜻이
어려있는가

아, 주인이 아니라면야 우리 어찌
이리도 사랑에 젖어
이 별에 설수 있으랴
가만히 줌에 쫓겨보는 흙
허나 주인의 자각이 없다며는
그렇듯 부드러워도
돌부리처럼 발에 걸채일 이랑

그래, 이제는 우리 차례다
토지개혁의 그 봄날과도 같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벅찬 긍지를
선군으로 지켜주고 꽃피우는 조국에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다
이 별을 낯알로 뒤덮어갈 열망에 사는
아, 우리는 이 별의 주인이다!
선군협동별 주인들이다!

관리위원장의 하루

황정일

나는 얼마전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들끓고 있는 정평군 중평협동농장을 찾아 현실체험의 길에 올랐다. 김매기가 한창인 함주백리별 정평 봉대별을 거쳐오다보니 목적지에 도착했을 땐 해가 녀엇녀엇 서산마루로 넘어가고있었다.

나는 곧 관리위원장을 만나려고 그의 방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관리위원장은 작업반에 나가고 없었다. 나는 할수 없이 려장을 풀려 리합속으로 돌아왔다. 오던 길에 기계화반 옆길에서 주춤거렸다. 기계화반과 실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있던 관리위원장네 자그마한 기와집이 추억속에 떠올랐던것이다. 나는 《고난의 행군》시기 이곳 농장에서 현실체험을 한적이 있었다. 최근년간 리소재지도 몰라보게 변모되고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이 많이 일떠섰으니 관리위원장은 분명 저 낡고 자그마한 집에서 이사했을것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물으니 아이들은 옛날의 그 기와집을 가리킨다.

(그의 생활은 여전히 변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은 관리위원장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해주었다. 언젠가 내가 하필이면 제일 복잡한 기계화반옆에 집을 지었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껄껄 웃으면서 《트락트르발동소리에 잠이 깨니 얼마나 좋소.》했었다. 그후 알고보니 그는 운전수들을 끔찍이도 위해주고 또 언제나 그들을 앞에 내세웠으며 그들과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 집을 거기다 지었던것이다.

중평협동농장은 금진강중류지방에 자리잡은 자그마한 산골농장이다. 읍에서도 수십리 떨어진 이곳 농장은 교통이 불편하고 땅이 척박하여 옛날부터 사람 못살 고장으로 알려져왔다. 그가 이곳 농장의 관리위원장으로 부임해오기 전까지 중평리는 어느 한해치고 군영농총화의 말밥에 오르지 않은적이 없었다.

그후 20여년전 강건너 용흥리에서 기사장을 하던 한창나이의 몸집이 다부진 그가 중평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되어왔다. 오늘 이곳 농장은 두벌농사에서 도적으로 제일 앞선 농장들속에 속하고 염소기르기에서 도적인 모범농장으로 되었다.

다음날 새벽 나는 일찌기 잠을 깨었다. 나는 아침산보도 하는겸 오랜만에 금진강을 보려고 행길에 나섰다. 길 좌우에 큼직큼직한 논배미들이 펼쳐졌는데 포전마다 길길이 자란 벼이삭들이 새벽 려명속에 함치르르 물기를 머금고 설레이고있었다. 논벌을 한 절반쯤 지나자 조금 멀리에 초물모자를 쓴 사람이 논판에 들어서서 제초기를 밀고있는 모습이 바라보였다.

그보다 조금 가까운 곳에서 한 처녀가 허리치는 벼숲을 헤치고 논두렁을 따라 샅을 메고 걸어왔다. 빨간 머리수건 유풍한 얼굴이 동그스름한 애어린 단발머리다.

아마 물관리공인것 같았다.

《처녀동무... 수고하누만. 그런데 여긴 몇작업반이요?》

《5반이에요...》 처녀는 호기심어린 눈길로 나를 뵈히 쳐다보았다.

《저렇게 일찍 벌에 나온 사람은 누구요?》

처녀는 방긋 웃음을 짓더니 그 무슨 비밀이나 알려주는듯 낮은 소리로 소곤거렸다.

《저 ... <풍년할아버지>랍니다.》

《허허, 그것 참 멋있는 이름이구만!》

나의 입에선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다.

《우리 마을에선 또 새벽잠이 없어 <종다리할아버지>라고도 불려요... 듣기 좋지요?》

처녀는 또 나를 보며 방긋 웃는다.

《참 좋구만!... 어느 텔레비죤극에 <종다리처녀>란 말이 있더니 ...》

처녀는 어느새 호기심이 동한 나를 두고 저쪽으로 사뿐사뿐 걸어간다. 나는 논두렁을 타고 《풍년할아버지》한테로 다가갔다.

이 아침 좋은 취재대상을 만났다는 기쁜 마음이 앞선다.

《수고합니다!》

그가 고개를 드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뜻밖에도 그는 관리위원장이었던것이다. 희속희속한 머리칼, 이마를 깊숙이 파고 지나간 굵은 주름살들... 그러나 부리부리한 두눈은 예전이나 다름없이 시원한감을 주며 번쩍거렸다.

《아니, 이게 누구요? 작가선생이 어떻게!》

그 역시 놀라움과 반가움을 금치 못한다. 내가 찾아온 사연을 말하자 그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허허, 이런 외진 산골농장에 무슨 글감이 있겠다고 그러오…》 라고 손을 저었다. 내가 도시변두리의 큰 농장들이 아니라 기본전선의 중심권이 들어와보고싶었다고 말하자 그는 《기본전선의 중심이라.》 하고 뇌이더니 다시 껄껄 웃었다.

《역시 전투적이구만! 하긴 공동구호를 받아안은 사람이라면 응당 걸음새부터 달라져야지. 서있기보다는 걸으면서 회포를 나누는 멋도 좋지요.》

그는 익살스레 싱긋 웃으며 제초기의 손잡이를 단단히 틀어잡고 씨엿씨엿 밀어나갔다.

날랜 숨씨다. 돌아보니 물기를 털어버려 더 푸르려보이는 논배미가 저 멀리까지 눈에 안겨든다.

나는 그의 걸을 따라걸으며 올해 새로 공급된 종자들과 비료치기정형, 두벌농사작황에 대해 물었다. 어느덧 해가 뜨고 농장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내 가서 아침밥을 먹고 오겠는데 오늘 일정은 어떻습니까?》

《아니, 아직 식전이요?》

놀란것은 나였다. 그럼 관리위원장은 벌써 아침식사를 하고 나왔단 말인가?

《그렇다면 저기 내 밥판이 있으니 그걸루 한끼 굶때는게 어떻소?…》

그는 저 앞 논두렁에 꽂힌 삽을 가리켰다. 풀색보자기에 싸인 밥판이 삽자루에 데롱데롱 매달려있었다. 나의 뇌리엔 언젠가 독일보에 실렸던 특과기자의 기사가 떠올랐다. 《일군의 밥판과 물지게》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김유곤은 아침에 출근할 때 뒤통무니에 점심밥판을 꼭 차고 나선다. 매일 농장포전들을 다 돌아보고 분조장들을 다 만나보는것은 그의 굳어진 사업준칙이다.

대체로 점심은 《혈떡고개》에서 먹곤 하는데 그 고개마루엔 자그마한 너럭바위가 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밥상바위》 또는 《관리위원장의 식탁》 이라고 불렀다. 바로 그가 단풍나무아래의 그 바위우에서 종종 점심을 먹곤 하여 생긴 이름이었다. 오늘도 밥판을 싸들고나온것을 보니 포전들을 돌아보다 혼자 조용히 사색에 잠겨 《밥상바위》에서 점심을 먹을게 분명했다. 그러니 식전에 한껏 모범을 보이자고 논판에 나왔을게라고 생각한 나의 짐작은 빗나간것이였다. 리합속에 들어갔다가 혹시나 하고 다시 논판에 가보

니 관리위원장은 여전히 김매기를 하고있었다.

논판의 여기저기에서는 김매기기계들이 툭툭거리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농장원들이 횡렬을 짓고 힘차게 제초기를 밀고나갔다. 그중에는 면식있는 얼굴들도 보인다. 나도 그들속에 끼워 제초기를 밀면서 관리위원장이 논판을 뜨기를 기다렸으나 그는 오전중 끝내 논판을 떠나지 않았다. 그를 따라 농장포전들을 돌아보리라 계획했던 나의 생각은 다시한번 뒤집혀지고말았다. 정오때가 되자 점심밥이 포전으로 왔다. 오늘은 분조장네 차례라고 하는데 산골에서 맛보기 힘든 생신한 멸치국까지 끓여내왔다. 관리위원장이 놀러왔히는 바람에 나는 농장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나는 농장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는 관리위원장을 보며 (오후엔 다른 분조로 가겠지.)하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오후작업시간이 되자 다시 한번 뒤집어지고말았다. 그는 마치 거기에 뿌리라도 내린듯싶었다.

오전에도 그랬지만 오후에도 관리위원장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관리위원회 일꾼들, 반장들과 분조장들, 남녀농장원들…

재미있는것은 해가 거의 질무렵에 관리위원장을 찾아온 40대의 몸집이 좋은 창고장과의 대화였다.

《관리위원장아바이… 제발 좀 내 사정을 봐주십시오.…》

관리위원장은 창고장의 그 무슨 사정은 들은척도 하지 않고 《그래, 담당작업반에는 갔겠소?》 하고 물었다.

《갔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젠 더는 <혈떡고개>를 못넘겠습니다. 이거야 어디 멀고 숨이 차서…》

《바로 그것때문에 동무를 4반담당을 시킨거요. 그렇게 몸이 나면 오래 못살아. 아침저녁 운동 삼아 얼마나 좋은가. 허허…》

창고장은 할수 없는듯 얼굴을 붉히며 뒤통수기를 긁적거렸다. 옆에서들 웃었다.

드디어 하루작업이 끝났다. 키가 꺾두룩한 작업반장이 그를 찾아왔다. 김매기실적이 어제 두배로 경총 뛰어올랐는데 이젠 다음주까지 김매기를 끝낼수 있다고 신심에 넘쳐 말했다. 알고보니 어제 반장들의 회의에서 김매기가 제일 뒤떨어진 5반문제가 일정에 올랐다고 한다. 김매는 기계들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정비하지 않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다는것을 안 관리위원장은 즉시 기계화작업반성원들을 현장에 내보내어 기계정비

에 달라붙게 하는 한편 김매기를 끝낸 1반의 일부 인원들과 관리위원회 보장성원들까지 5반에 총동원시킨 것이었다. 말하자면 1분조현장은 관리위원장의 전투지휘부로 변했던 것이다.

나는 관리위원장과 함께 저녁노을이 비낀 논두렁길을 걸었다. 큰 길에 나서니 집으로 돌아가던 유치원아이들이 《할아버지!-》 하고 마주 달려오며 저저마다 굵석굵석 인사들을 한다.

《그래 많이들 배웠나?》 하며 관리위원장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등을 두드려주기도 한다. 아이들과 헤어지자 그는 자책에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농사를 잘 지어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다는게 벌써 할아버지소리를 듣게 되었소...》

《<풍년할아버지>란 말이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나는 아침에 하던 모판관리공처녀의 말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했다.

《허허, <풍년할아버지>가 된다면야 그까짓 누가 늙는것을 탓하겠소. 욕심은 큰데 벌써 예순을 넘겼구만. 그래서인지 이제 하루하루가 한해맞잡이로 귀중해진단 말이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올해야말로 <풍년할아버지>가 되고싶어지는 해요. 농사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들끓어본적은 일찌기 없었소. 그럴수록 주인인 우리의 책임감은 무거워만 집니다...》

농장벌에서 관리위원장의 하루를 체험한 나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이 하루에 농사로 늙은 그의 한생이 함축되어있는것이 아닌가!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 아낌없는 헌신으로 불리는 이런 하루들이 모여 한달을 이루고 그런 한달들이 모여 해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이루었으리라... 《풍년할아버지》! 이 한마디 말속에 쌀로써 사회주의조국을 받들어온 한 평범한 농촌일군의 한생이 비껴있는것이니 이제 저 들판에는 또 어떤 작황이 설레일것인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전선을 지켜선 이런 일군들이 어찌 이곳 관리위원장 한사람뿐이라. 조국땅 그 어데 가나 우리 농촌에는 한생을 말없이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는 참된 일군들이 수없이 많은것이다. 이런 미더운 일군들이 있어 풍요한 가을을 마련해놓고 온 나라가 흥성거릴 당창건 60돐, 조국해방 60돐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것이다.

○력사상식○

《가쓰라-타프트협약》

20세기초 미제국주의자들이 일제의 조선침략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공모하여 체결한 비밀협약(또는 협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19세기말부터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왔으며 1905년에는 가쓰라와 타프트의 비밀협약을 체결하고 일제의 조선강점을 도와주었습니다.》

1905년 7월 29일에 미국대통령 루즈벨트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일본에 기여든 미육군장관 타프트는 조선침략문제를 가지고 일본수상 가쓰라 다로와 비밀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서는 일제는 필리핀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인정하며 미제는 그 대가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을 적극 협력하고 우리 나

라에 대한 일제의 《보호통치》를 인정한다는것, 미제가 영일동맹에 가담하여 극동침략에서 미, 일, 영제국주의가 공동행동을 취한다는것 등 조선을 포함한 극동침략에서 서로 공모결탁할데 대한 문제들을 규정하였다.

이 비밀협약은 20세기초 아시아대륙에로의 팽창에 미쳐날뛴 두 제국주의국가의 침략적인 식민지략탈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협약으로 되었다.

《가쓰라-타프트협약》에 따라 미제는 1905년 11월 일제가 날조한 《을사5조약》과 놈들의 조선강점을 적극 지지하였다.

침략적인 《가쓰라-타프트협약》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이 극비밀리에 붙였기때문에 주제14(1925)년에 이르러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송해경

선달 그믐밤이다.

초불을 든 사람들이 걸어오고있었다. 거리와 거리, 골목마다에서 쏟아져나온 초불들은 장강에 합류하려는 무수한 지류처럼 한곳으로 모이고 휘말리면서 용용한 흐름을 이루어 밀려오고있었다. 천지를 휘감은 어둠속에서 회오리치는 밀바닥 심혼을 짙그리 빨아올리며 깊이를 가늠할수 없는 대해마냥 굽이쳐오는 초불의 바다, 바다...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앞에 중무장을 한 경찰들이 진을 치고 밀집해 서있었다. 전개된 방패와 방패는 뺑뺑이 이어져 장벽을 이루었다. 그우로 철갑모를 눌러쓴 무표정한 얼굴들이 솟아 묵묵히 앞을 주시하고있다. 차거운 땀기가 서려도는 방벽과 철갑모의 싸늘한 결면이 《다가오지 말라!》하고 무언으로 웨치듯 위압적으로 번뜩이였다.

문석차는 진을 이룬 방패숲의 한쪽에 끼여있었다. 다리는 떨리고 고뇌가 물린 충혈된 두눈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애쓰건만 그냥 부릅뜨져 있다. 무겁게 드리운 먹장하늘이 문석차의 상처투성이 가슴을 숨이 막히도록 짓누르고있다. 열기띤 뺨으로는 부드럽고 산뜻한 이해의 마지막눈이 소리없이 떨어져 녹아내린다. 조용히 애무하듯 내리는 눈이 그에게는 오히려 불만스러웠다. 폭풍우가 불어치든가, 우박이 쏟아지든가, 퇴성벽력이 지동쳐주기를 바라는것이 그의 심사다.

그는 화끈 단 손을 후들거리며 품속에 비집어 넣었다. 네모지고 뚝뚝한 길죽한 물건의 촉감이 손끝에 와닿았다. 강직된듯 곳곳한 손가락을 우무려 주머니속의 라이타를 힘주어 그려잡았다. 손에 감전된 강한 전류가 심장을 찌르며 흘렀다. 라이타! 그 조그만 물건에 얹힌 비상한 사연이 그의 심신을 지저대는것이다.

서서히 조이며 밀려드는 초불의 광야는 문석차의 머리속에 하나의 청신하고 순결한 세계, 향촌의 언덕에서 물결치는 푸른 밀밭을 떠올렸다. 우후- 초불의 광야가 호곡하였다. 와스스- 향촌의 밀밭이 설레이었다. 뽀얀 밀알은 알알이 부풀고 긴수염을 자래운 이쁜 이삭은 몽클 젖냄새 비슷한 꽃내를 풍긴다. 소슬한 바람결에도 기쁜듯 설레며 속삭이는 촌락의 밀밭을 헤치고 애된 웃음소리가 뿜겨올랐다. 들꽃화환을 머리에 두르고 빨간 패랭이꽃으로 옷설을 단장한 열네댓살가량의 두 소녀가 문석차를 반기며 밀밭이랑속에서 뛰쳐나왔다.

《아저씨!》

문석차는 깜짝 놀랐다.

《너희들이?!》

《호호호...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줄 몰랐지요?!... 우린 벌써 한시간째나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있었어요. 아저씨가 우리의 최서은선생님을 찾아온다는 정보를 바로 잠전에 얻었거든요. 어떻게 얻었는가구요?... 우리 마을에 사는 대학생 정한오빠가 오늘 아저씨가 여기 올거라고 귀띔하더군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자, 이걸 받으세요!》

문석차는 소녀들이 달려들어 덥석 안겨주는 한 모습의 싱싱한 들꽃다발을 영문도 모르고 받아들였다. 그 꽃향기를 맡으며 그는 꽃다발속에 꽃송이처럼 들어박힌 빨간 물건을 신기하게 들여다보았다.

《이건?...》

《라이타입니다. 아저씨... 우린 얼마전에 신문에 난 아저씨의 사진을 봤어요. 그 신문을 학교에도 가지고갔었어요. 은행을 강탈하러던 강도일당을 쫓아내게 잡아낸 이 멋진 경찰이 바로 아저씨라

고 애들에게 다 말해주었어요.》

《아이쿠, 야단났구나. <비밀>이 뭉땅 탄로되었으니 어쩐다?!》

문석차는 소녀들의 환희에 휘말려 소년처럼 뒤머리를 내려쥔고 몸을 뒤틀었다. 그 모양이 우습다고 효순이는 짹짹 손뼉을 쳤다. 귀여운 토끼머리에 하얀 달린옷을 입은 눈송이같이 예쁜 소녀다. 비둘기처럼 사뿐히 날아갈듯 그는 두팔을 벌리고 문석차의 둘레를 맴돌았다. 장미꽃처럼 붉은 운동복을 입은 미선이는 다 큰 처녀처럼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고 수줍게 웃었다. 맑고 복스러운 얼굴에서 선이 고운 눈이 빛나며 문석차를 황홀하게 올려다보았다. 그의 정답고 의젓한 목소리...

《그렇듯 훌륭한 일을 한 아저씨에게 우린 무엇인가 드리고싶었습니다.》

《미선인 이 라이타를 사자고 우겼어요.》

결에서 조잘거리는 효순이의 간참에 미선이는 좀 가만있으라는듯 손을 내젓고 무언가 심중한 속말을 퍼냈다.

《전... 제가 <초불>그림을 그렸을 때의 일이 생겼습니다.

신문에서 한 소녀의 비참한 죽음을 본 어느 비내리는 밤에 전 책상우에서 타고있는 초불을 그리고싶었어요. 미군기지주변에서 놀다가 군견에게 물려죽은 그 소녀가 너무도 불쌍해서 전 울면서 초불을 그렸습니다. 어쩐지 내가 그린 <초불>을 그 소녀의 무덤가에 세워주고싶었습니다.

미술시간에 제가 그려간 <초불>을 오래도록 등뒤로 넘겨다보시던 최서은선생님은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면서 <미선아, 네 그림을 이번 미술축전에 보내자. 기법에서도 재간이 엿보이지만 그보다도 뜻이 더 좋구나. 온몸을 깡그리 불태워 어둠을 밝혀주는 이 초불의 사랑과 념원이 얼마나 숭고하니. 불은 정의와 정열과 사랑의 상징이다!

이 타오르면서, 작아지면서 홀리는 초물은 정말 생동하구나.>

나는 웨쳤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이건 초물이 아닙니다.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그 애를 사랑하는 저의 눈물, 오늘도 울고있을 그 애의 아빠와 엄마, 그 애를 알고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울음입니다!>

그 웨침을 듣고 온 학급 동무들이 나를 둘러싸고 함께 울었습니다. 최서은선생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미선아. 이건 너의 초불이다. 너의 그 아픔을 안고 타오르는 불이다.

영원히 이 초불을 끄지 말어라.>

나의 초불... 난 선생님의 그 말씀이 꼭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고두고 잊을수 없을것 같아요. 그래서 효순이가 좋은 낚시대를 사드리자고 하는걸 내가 우겨서 이 라이타를 샀습니다.》

미선이의 검은 눈동자는 어린 녀이 분출하는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지향으로 하여 환히 빛나고 있었다.

문석차는 라이타를 켜다. 가늘면서도 뜨거운 불길의 기운차게 치솟았다.

《좋구나. 좋아. 애들아, 고맙다!...》

문석차는 소녀들을 량팔에 끼안고 곡식이 우거져가는 향촌의 들길을 흥그럽게 걸어갔다. 소녀들은 강도를 잡던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몇놈이나 잡았는가?

매복했는가?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가? 밤 몇시에 그놈들이 나타났는가! 어떤 가면을 썼는가? 두목놈은 왜 놓쳤는가?... 소녀들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다.

앞에 땃메타가량의 좁은 줄다리가 놓였다. 발을 내짚을 때마다 널죽들이 찌걱거리고 란간의 녹슨 쇠바줄이 쨍렁거리며 배그네마냥 흔들렸다. 줄다리를 건너서자 한쪽 방축이 무너진 보물이 나졌고 반대쪽 비탈아래로 고티가 완전한 시골교사가 아늑히 내려다보였다. 운동장은 텅 비여있었고 기울어진 오후의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는 교사의 창문들은 모두 닫혀있었다. 맨끝에 유독 열려진 한 창문안에서만 시골의 류다른 정서를 자아내면서 심금을 자극하는 풍금의 매력적인 선율과 다양한 음조로 화음된 남녀학생들의 노래소리가 은은히 울려나왔다.

효순이는 앞서서 언덕을 달려내려갔다. 미선이는 문석차의 팔을 더욱 다가끼면서 그 음악에 대하여 설명했다.

《저건 최서은선생님이 써클런습을 지도하는겁니다. 며칠후에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정부에 항의하는 양주군집회가 있습니다. 효순이네 아버지가 그날 향촌부락사람들을 대표해서 연설을 한대요. 우리도 프랑카드와 가장물을 만듭니다. 집회뒤끝엔 우리 학교 써클을 한다고 했습니다. 나와 효순이도 써클에 뽑혔거든요.》

문석차는 가슴을 울렁이면서 미선이와 함께 학교운동장으로 조용히 걸어들어갔다. 미선이마저 그를 남겨놓고 음악실로 들어가버려서 그는 칠이 벗겨진 철봉대에 기대여서서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감회로왔다.

문석차가 그 제주도해녀의 옛 노래를 알게 되

고 최서은이라는 미모의 처녀를 사랑하게 된것은 몇해전의 일이었다.

졸업기를 맞은 각 대학들과의 련환졸업야회가 열린 시대학 정문에는 포옹의 그림이 그려진 선전화가 내걸리고 꽃으로 장식되어 젊은이들의 마음을 한껏 부풀려놓았다. 저녁무렵에는 가설무대를 만들고 련환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그밤에 대학생들의 마음을 크게 뒤흔든것은 교대학의 한 무용수처녀였다. 그는 온몸을 휘감을 듯싶은 붉은 수건을 목에 두르고 무대에 나섰다.

느리나 격한 곡조에 맞추어 처녀는 폭풍속의 해연마냥 무한대의 밤하늘 밑에서 나래를 쳤다. 행복에 대한 녀인의 갈망과 눈물겨운 소원을 안고 검푸른 바다속을 속절없이 헤어나가는 해녀의 몸부림이 비낀 처녀의 열광적인 춤가락은 우아함과 비장함으로 하여 관중들의 마음을 송두리채 빼앗아갔다.

파문을 일으킨 매혹적인 무용수 최서은을 졸업야회의 마지막순서인 북녘 청년들을 본판 평양-부산행 통일렬차유회때 다시 보게 된 문석차의 심장엔 확 불이 당겼다. 온순한 눈매의 그 처녀는 바로 문석차의 앞에 새하얀 체육복차림으로 서있었다. 그는 처녀의 좁은 어깨를 으스러지게 눌러잡았다.

《아이 아파!》 하고 처녀가 뒤를 돌아보았다.

《좀 가만히 잡아주세요.》

문석차는 대답대신 처녀를 노려보았다. 처녀는 심상치 않은 그의 눈빛에 당황하여 몸을 웅크트리면서 돌아섰다. 내내 불안에 속이 한줌만 해졌던 최서은은 유희가 끝나고 대렬이 풀리는 순간 동무들쪽으로 몸을 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문석차는 최서은의 어깨에 놓인 손을 내릴념을 안했다. 처녀가 질겁해서 얼굴을 돌리는 순간 문석차는 꺼리낌없이 처녀를 와락 안아들고 유희장을 빠져나왔다. 호젓한 정원의 한구석에 이르러 처녀를 내려놓은 그는 분노한듯 한 얼굴을 하고 허리에 두손을 얹었다.

《도대체 어찌자는거예요?!》

처녀가 눈물이 가랑가랑해서 항변했다.

《애인이 있습니까?》

문석차의 격한 물음에 최서은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흐트러진 옷섶을 여미며 픽 돌아섰다.

문석차는 걸음을 내짚는 처녀의 앞을 떡 가로막고 열기를 뿜으며 속삭였다.

《없다면... 이제부터 제가 당신의 애인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시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

최서은은 또다시 코웃음쳤다. 그리고 도망치듯 달아나버렸다.

최서은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 불타는 문석차의

집요한 추격과 때없는 방문은 끝내 최서은으로 하여금 문석차에게 사랑을 약속하게 하고야말았다.

《난 그 정열에 반했어요!》

문석차는 오늘도 최서은이 사랑을 약속하던 그 날처럼 흥조가 타오르는 아름다운 얼굴로 저 교사의 현관문에서 달려나오기를 고대하고있었다. 그의 검은 경찰복은 다름아닌 그 처녀를 위하여 흠잡을데 없이 손질되어있었다.

그러나 연한 하늘색 나뉘은차림으로 현관문앞에 나타난 최서은의 아릿다운 자태에는 그가 상상했던 상봉의 불꽃이 없었다. 그녀는 곧추 비쳐드는 강렬한 석양에 눈이 시어서인지 한손을 채양처럼 이마에 얹고 천천히 높다란 돌층계를 밟아내려 문석차가 서있는 철

봉대밑으로 걸어왔다. 《오셨어요?》 하고 최서은은 웃을가말가한, 아니, 웃음기가 전혀 없다고 해야 정확할 창백한 얼굴로 문석차가 내어민 손을 잡았다. 손도 찼다. 그 녀자는 문석차에게 손을 잡힌채 어쩐지 구슬퍼보이는 그 온순한 눈길로 잠시 그의 검은 체복을 더듬다가 곧 외면하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따스한 눈빛으로 와닿는 애인의 정겨운 애무를 소원하며 달려온 문석차에게는 너무나도 피로운 상봉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문석차가 경찰이 되겠다고 했을 때 최서은은 놀람과 의혹,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왜 하필 민중의 질서와 경멸을 받는 전투경찰이 되겠다고 그러는가? 경찰은 어딘가 무지막지하고 폭력배 같은데가 있다, 그러지 말라,

이 사회가 아무리 각박해도 공과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하고 전자공학계통에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석차씨에게 차례질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을것이다. ... 이것이 최서은의 의사였다.

그러나 문석차는 애인의 그 의사를 따를수가 없었다. 폭력배라니?! 그것은 너무 지나친 말이다.

전투경찰이야말로 어지러운 이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남아의 힘과 정력을 바칠수 있는 유일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는 최서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경찰복을 입은 다음 문석차는 인차 애인을 찾아가지 않았다. 분명히 그 녀자는 아직도 뭔가 오해하고 있을것이며 경찰이 된 자기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있을것이 분명하였기때문이었다. 최서은을 감동시켜야 하였다. 문제는 최서은이 자기가 택한 길에 대한 인식이 지나친것이였다는것을 깨닫게 하는것이였다.

드디어 오늘이 왔다. 그런데 그 녀자는?!...

불타던 여름날의 해는 어느덧 뉘엿뉘엿 저가고

숨구름이 널린 서쪽하늘에 분홍빛 저녁노을이 곱게 물들었다.

최서은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들의 앞에서는 미선이, 호순이가 저희들끼리 조잘거리고 장난을 치면서 걸어가고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그들은 최서은을 자기들의 선생님이라기보다는 한마을의 다정한 언니로 더 따르는터여서 아침저녁 등교길을 늘 함께 다니는것이였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넓은 촌락길이 있었지만 오늘 그들은 웬일인지 이 곱절이나 멀리 에도는 과수원길로 가자고 때를 썼다. 최서은과 문석차는 소녀들의 그 때에 지고만것이였다.

그들은 서로 말없이 걸어갔다. 과수원의 켜 오래된 늙은 사과나무들에는 터실터실한 밀둥이나 구부정한 가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조그맣고 생소한 꽃열매들이 가득 맺혔다. 나무밑의 빨긴 진흙땅에는 아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불행한 열매들이 수두룩이 떨어져 시들어가고있었다.

《호순이네 집 뒤울안에서 살구를 따먹던 생각이 나… 올해에도 미선인 프락에 백일홍을 백포기나 심었다더군.》

최서은은 묵묵히 곁에서 따라왔다. 문석차는 떨어진 꽃자방자리가 력연한 꽃열매 하나를 따서 최서은의 손을 펴고 놓아주는데 최서은은 그만 열결에 떨구어버렸다.

《왜, 내가 온것이 반갑지 않아? 혹시 마음이 변한게 아니야?》

《석차쨌 이제… 저의 심장을 잃을수도 있어요.》

《왜? 무엇때문에?》

문석차는 우뚝 멈춰서서 황황 불이 이는 눈길을 찌프리고 최서은을 쏘아보았다.

《난 서은이앞에 그냥 나타나지 않았어. 이 <사회>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왔단 말이야. 그런데 서은인 너무하잖아?!》

최서은은 호- 한숨을 내뿜면서 속눈썹을 내려 깔고 그의 곁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문석차의 크고 우악스런 손아귀가 그의 팔목을 나꾸어채서 거머잡았다.

《말해봐, 속시원히. 간 말리우지 말고… 왜 그러는가?!》

《가자요, 가면서 이야기하자요. 저애들이 봐요.》

최서은은 겨우 뽑아낸 팔목의 아픔을 참으며 앉았다.

《난 지금 석차씨의 그 검은 제복을 보면서 나의 한동무를 생각해요. 나자 너고, 너자 나인…》

《물론 동성이겠지?》

문석차가 빈정거렸다.

《왜, 이성이라면 질투하겠어요?》

《아니, 결투를 해보겠어. 누가 죽든!… 살아서는 결코 서은을 그 누구에게도 뺏길수 없으니까.》

《대학 1학년때가 정미와 난 함께 어깨결고 시위에 나갔었어요. 그제 막 고향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술한 동료들과 함께 거리로 밀려나갔어요.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기 위해 미국이 남조선에 벌려놓은 전쟁연습반대투쟁 시위였지요.》

다른 대학생들과의 집결장소에 당도했을 때 갑자기 정미가 머리를 싸쥐며 비칠거리는데 아니겠어요. 난 그의 뒤머리를 헤쳐보았어요. 살이 터지고 피가 끈적끈적 머리칼에 엉켜붙었어요. 저지신을 통과할 때 경찰의 곤봉에 맞고 머리가 터진줄도 모르고 그냥 달려온겁니다.

난 속옷을 찢어 그의 머리를 싸매주면서 그때에야 나도 한쪽 어깨가 떨어져나갈듯이 막 저리다는것을 느꼈어요. 손을 넣어보니 어떻게 맞았는지 화끈 열이 나면서 부어올랐어요. 그래도 우린 아픔을 참고 마지막까지 시위대오를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에 하숙집에 돌아와 정미는 그만 쓰러졌어요.

내가 그를 침대에 눕히고 얼굴을 씻어주고 옷을 벗겨주었는데… 이것 보십시오. 그의 하얀 속옷 잔등이 온통 피에 젖지 않았겠습니까. 난 진서리를 치던 나머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의 곁에 함께 까무라치고 말았어요.

한밤중에 깨어나니 정미는 내곁에 앉아 손을 주물러주고있었어요. 그 애는 내가 눈을 떴다고 막 기뻐하며 내 가슴에 어퍼려져 소리내어 울겠지요. 우린 온밤 함께 물면서 영원히 헤어지지 말고 오늘처럼 함께 걸어가자고 약속했어요.》

최서은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그 정미라는 처녀가 지금 어디 있어? 그 처녀에게도 애인이 있다면 우리 나라히 이웃집에서 모여살자구, 어때?》

문석차의 위로는 오히려 최서은에게 더욱 비통한 음조를 자아내었다.

《난 그와 헤어졌어요.》

《왜?!》

《그다음 또 시위에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끔찍한 화상을… 아, 난 그 정상을 차마 말 못하겠어.》

… 충청도 산골집으로 돌아가면서 정미는 내 손목을 꼭 잡고 울면서 당부했어요. <서은아, 우리 둘이 찍은 사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수해. 그리고 정미는 예전처럼 고운 처녀라고 믿어주렴.》

그러면 너의 그 믿음이 약이 되어 내 얼굴의 허물을 가져주고 잃어버린 나의 모든 꿈과 희망을 되돌려줄지 어이 알겠니.>

그 고운 처녀를, 그 열렬하고 순결한 산골처녀를 다름아닌 경찰이 망쳐놓았어요. 경찰이!... 난 석차씨가 근심돼요.》

《별걱정!》

문석차는 최서은을 떨구고 씨엉씨엉 앞장섰다.

《애들아!》 하고 그는 손나팔로 미선이와 효순이를 소리쳐불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이미 과수원의 좁은 길은 끝나고 저녁의 선들바람이 불어오는 등성이의 윤기 흐르는 고무마발을 지나자 잎이 무성한 진달래며 거미줄이 엉긴 잣솔이 들성들성한 야산기슭에 접어들었다. 풀향기 그윽한 오솔길에는 제비꽃이며 개나리, 싸리꽃이 유혹하듯 점점이 피어있었다.

꽃들을 꺾느라고 문석차는 정신을 팔았다. 천진한 동심은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멀어져가고있는 애인에 대한 원망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의 검은 옷센은 잠간사이에 가지각색 산꽃들로 넘쳤다. 그는 미선이, 효순이가 그랬듯이 스스로 제모를 제비꽃으로 단장했고 경찰복의 단추구멍마다에는 조그만 싸리꽃을 뜯어 꽂았다.

《아이, 고것들!... 우린 깜박 속았어요. 우릴 여기로 끌고오고싶어 그런 때를 썼군요.》

최서은이 놀란 소리를 질렀을 때 그들은 이미 적막한 외딴 골안에 갇혀있었다. 하나의 좁은 오솔길이 뻗어들어왔을뿐 사방이 아늑히 둘러막히고 주변은 벌써 어스름이 깃들었는데 그 골짜기에만은 아직도 석양이 그대로 머물러있었다.

《정말 그렇군! 여기가 어디요?》

최서은의 크고 온순한 눈이 한순간 수줍음으로 빛을 뿜었다.

《우리 향촌사람들은 여길 <사랑의 골짜기>로 부른답니다. 런던들이 이 골안에서 나는 샘물을 함께 나누어마시면 영원히 헤여지지 않고 백년해로를 한다는 옛말이 있지요. 우리 어머니의 말이 오래전엔 여기가 그렇게도 아름다웠다더군요.》

문석차는 허리에 두손을 짚고 알려지지 않은 《사랑의 골짜기》를 둘러보았다. 지금은 정향꽃이 한창이었다. 꿀벌들이 뽕뽕 맴도는 구슬뭉치같이 목직한 연보라빛꽃을 소담히 피워든 정향나무들을 둘러싸고 좀 성글어지긴 했어도 미끈한 질푸른 참대숲이 멋스럽게 어울려있었다.

《지금도 아름답군! 샘물이 있었는지?》

문석차는 성큼성큼 안쪽으로 걸어들어갔다. 그때 이끼끼 커다란 갈색바위뒤에서 미선이, 효순이가 좋아라고 뛰어나왔다.

《이야! 멋있어요. 아저씨.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치장해줬지요?》

소녀들은 깜짝 놀라 넘어지는 시늉을 하는 문석차에게 달려들어 제모의 꽃을 만져보기도 하고 저희들이 꺾은 꽃을 덧꽂아주기도 하면서 야단스레 맴돌아쳤다. 그러면서 또 때를 썼다.

《아저씨, 아저씨가 그 샘물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여기에 다시 돌아오겠으니깐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날이 좀 어두워져도 말이에요. 네?》

《글쎄... 너희들이 왜 그러는지 내가 알아야겠니.》

《아직은 비밀이에요.》

《그렇다... 너희들 선생님이 날보고 빨리 돌아가라고 할수도 있지 않니.》

문석차는 랭담하게 돌아서서 먼 하늘을 쳐다보고 서있는 최서은을 건너다보고 정말로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선생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니깐 아저씨만 약속하면 그만인걸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나 나혼자만 외로웠군. 섭섭한데... 예라, 너희들 맘대로 하렴.》

문석차가 어깨를 으쓱하고 두팔을 짹 벌려보이자 소녀들은 또다시 깔깔거리며 나비들처럼 골짜기로 날아내렸다.

《흠, 또 무슨 엉뚱한 일을 꾸미는걸까?》

문석차의 그 말엔 여전히 침묵하고 최서은은 조용하나 좀 엄격하게 소리쳤다.

《어둡기 전에 빨리들 돌아와야 해요, 알겠어요?》

문석차는 온몸에서 꽃들을 와락와락 털어버리고 지평이를 하나 얻어들고서 수풀을 뒤적이며 후미진쪽으로 걸어갔다. 류달리 속새풀이 무성한 우묵진 곳에서 문석차는 거의 메꾸어진 샘물을 발견하였다. 그는 옷저고리를 벗어던지고 열심히 락엽과 돌들을 긁어내었다. 그러한 문석차를 측은히 굽어보며 최서은은 수심을 담아 한가지 옛일을 추억했다.

《생각나요? 언젠가 산보하다가 한 남새장사녀인이 떨군 돈가방을 찾아주겠다고 온데를 뛰어다니던 일이... 그날 혼자 남은 전 다시는 석차씨같은 어리석은 사내를 생각지 않겠다고 속다짐했지만 한컨으론 눈물이 나더군요.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겠다고 그 녀인이 새벽부터 얼마나 애썼을가 생각하니 석차씨가 고마웠어요. 그 정의로움, 그 고지식한 마음씨에 제가 더욱 끌렸던가 봐요.》

마침내 흙빛을 가시며 맑은 물이 찰랑찰랑 고여올랐다. 문석차는 최서은의 온순한 눈을 들여

다보며 기쁨에 넘쳐 속삭였다.

《서은, 이젠 우리의 샘이요.》

그는 두손으로 정히 샘물을 움켜서 처녀의 앞으로 내어밀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나는 너에게서… 너는 나에게서…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고 언제나 함께 있자고!》

최서은은 자기의 앞으로 커다랗게 다가오는 물이 가득 담긴 문석차의 두손을 감싸쥐고 조용히 머리를 저었다.

《난… 겁이 나요.》

문석차의 손에서 샘물이 좌르르 흘러졌다. 그는 일어서서 아직도 정수리에 해빛의 마지막잔광이 고이 빛나고있는 대나무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미선이, 호순이가 선물한 라이타의 불을 켜다. 한참동안 그는 라이타의 불을 끄지 않았다.

《알만해, 내가 경찰이 되었다고 싫어하는거지? 맘속으로는 여전히 날 사랑하면서도 나의 이 검은 제복과 나의 직업을 미워하는거지?》

《그래요. 난 싫어요. 석차씨가 성스럽게 생각하는 그 일이 진정 혐오스러워요.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고 거기에 무슨 남아의 정열을 바칠수 있는가 말이에요. 석차씨의 림름한 용모와 용감성, 억센 주먹이 난 아까워요.… 정말 그래선 안돼요. 그 경찰복을 벗어버려야 해요, 석차씨!》

최서은은 조용히 열심히 말했다, 흐느꼈다. 문석차는 대나무를 거머잡고 힘껏 흔들었다. 빛은 조각조각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반짝였다.

《내가 왜 경찰복을 입었는지 서은인 모르지?… 어디 내 가슴속에 맺힌 사연을 들어봐.》

늘 쪽배에 몸을 싣고 바다에 나가 사는 다도해의 섬마을 어부의 아들인 소년 문석차에게는 맘씨 고운 이모님이 한분 계셨다. 나이가 고작 열살 우인 이모는 일찍 어머니를 여윈 문석차에게 있어서 그대로 소중한 어머니였다.

이모는 미인이었다. 칠칠한 검은 머리채, 보름달처럼 말쑥한 얼굴, 그 어떤 옷이든 들어맞는 탐탁하고 미끈한 육체미… 살아있다면 지금쯤 서른살 나이, 한창 인생을 즐길 그 나이였다.

밤새껏 바다가에서 비바람이 사납게 불어온 어느 여름날 이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후에 그는 라체가 되어 바다가습으로 밀려나왔다. 강도는 하루 영업을 끝내고 술집에서 돌아오는 이모의 몸에서 돈을 털어내고 그의 육체를 란도 질하여 바다가에 내던졌던것이다.

대학 강의실에서 뉴턴의 법칙을 활용하면서도 문석차는 그 이모님의 운명을 결부시켜보았다. 이 땅에서 인간이 마음 편히 살자면 인권을 옹호하고 인도해주는 《견인기》가 있어야 한다. 온갖

사회의 악덕을 청산하고 지켜주는 강력한 힘의 《지평이》가 있어야 한다!

《누구든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이 땅의 민주를 위해서 그 <견인기>가 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한몸아낌없이 내대고 민중의 <지평이>가 되여야 하지 않겠는가!… 서은, 난 하루이틀에 결심한게 아니요. 결코!》

문석차는 확확 열기를 내뿜었다.

《그렇다면 석차씨, 강도나 잡아선 뭘해요? 그보다 더한 날강도가 이 땅에서 살판치고있는데…》

최서은의 반발은 더욱 오연해졌다. 문석차는 굳센 턱을 치켜들었다.

《미군도 레외로 될수 없어. 일단 이 땅에서 죄를 짓는다면 그들도 무자비하게 짓궂게버릴거야. 정의와 량심이 가리키는대로!》

그가 바라보는 하늘에는 한쪽의 붉은 천자락같은 노을이 마지막열정을 다해 불타고있었다. 문석차는 가슴을 짝 펴고 큰 숨을 내뿜었다. 그렇다. 나의 리념은 저 노을처럼 아름다운것이며 불타는것이다. 그런데 서은은 도대체 무엇을 겁내며 두려워하는것인가?!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며 력사는 공정하다!

최서은도 그 노을을 바라보고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어둡기만 하다.

《공정치 못한게 이 땅의 력사예요. 반세기가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어요. <민중화선언>은 발포되었지만 그건 허울뿐이라고 생각해요. 석차씨 속고있어요!》

그리도 황홀하던 노을은 피빛으로 질어지더니 곧 그들의 눈앞에서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다. 삼시에 어둠이 덮쳐들었다. 끝짜기도 수목도 하나의 재빛으로 엉겨들고 마침내 부드럽고 무한한 검은 장막속에 삼라만상이 묻혀버렸다.

모닥불을 지켰다. 마른 삭정이는 연기도 없이 났다. 그 불빛때문에 그들을 둘러싼 어둠은 더욱 질어져서 문석차는 서은과 함께 마주앉아있으면 서도 고독감을 느꼈다. 그는 꼬챙이로 무럭대고 불무지를 해집었다.

《그러니 헤어지잔 말이지?》

최서은은 대나무에 어깨를 기대채 조는듯 했다.

《아마도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봐요.》

랭랭하다! 모질다! 야속하다! 운명이라구?!… 어떤 운명?! 내가 이 땅의 정의를 위하여 남아의 육신을 내던지려 나선 이 길이 죄가 되는 운명?!

《그만해!》

문석차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벌떡 일어섰다. 군화발로 타오르는 모닥불을 지르밟았다.

《내 기어이 증명할테다. 나의 리념의 승리를 보여줄테다. 그때까진 기다릴수 있겠지?... 어서 대답해!》

미선이, 효순이의 부름소리가 쟁쟁히 메아리쳐 왔다. 소녀들의 목소리는 멀리서 울린것 같은데 전지불은 벌써 숲을 꿰치르고 가까이에서 춤추듯이 움직여온다. 미구에 불룩한 구력을 맞든 미선이, 효순이가 상쾌한 봄기운같은 정서를 가득 안고 그들의 앞에 나타났다. 최서은은 황황히 모닥불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난 등불을 가져왔습니다. 밤에 우리 아버지가 발을 돌아볼 때 쓰느 겁니다.》

미선이는 조그만 나무통의 단면에 유리를 끼워 넣은 구식등피를 문석차의 앞에 들여보였다.

《그것 참 좋은거로구나. 이 등불이 우리의 야회에 제격이다. 멋있어!》

문석차는 등피안에 불을 달아주었다. 미선이는 그것을 어떤 나무가지에 걸어놓겠다면서 걸어가다가 일부러 꺼버리고 문석차를 다시 불러 소곤거렸다.

《아저씨, 싸웠어요?》

《아니...》

문석차는 부끄러워 얼른 등피에 불을 켜지 못 했다.

《그런데 이상해요. 난... 우리 선생님이 모닥불을 불면서 눈곱을 훔치는걸 분명히 봤어요.》

《눈에 재티가 들어갔겠지.》

《오! 그렇겠군요.》

미선이는 불을 켜 등피처럼 금시 억양이 밝아졌다. 그는 마치 문석차를 타이르듯 의젓이 말했다.

《아저씨, 우리 선생님을 항상 기쁘게 해주세요. 마음이 착하고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는분이예요. 우릴 친동생처럼 사랑해주시지만 숙제를 안해왔다가, 동무를 속였다가 했다간 용서없어요. 큰소리로 욕은 안하지만 몹시 슬퍼하시면서 한마디한마디 타이르실 땐 우린 울곤 해요.》

한번은 제가 철없이 앞뚫보는 명희가 걸어가는 흉내를 내면서 웃은 일이 있었어요. 그걸 알고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던지 ... <미선아, 넌 명희가 왜 앞을 못보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나? 어쩌면 불쌍한 동무의 아픔을 그렇게 놀려줄수 있단 말이나. 어서 가서 용서를 빌고 꼭 껴안아주고 오너라.> 하고 선생님은 말씀했어요. 난 그렇게도 아파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그날 처음 봤어요.》

《명희가 왜 눈을 못보니?》

문석차는 말머리를 돌리려고 했다.

《명희의 할아버지가 성당안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예요. 성당가까이로 이사가기 전에 한때는 그 애네 집이 우리 향촌에 있었어요. 우리와 소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그때 명희의 눈이 얼마나 고왔는지 아세요. 그저 꼭 머루알 같았어요. 그런데 명희의 그 고운 눈동자에 성당에 자주 오는 한 미국놈의 일곱살난 아들 윌리란 놈이 심심풀이로 사금파리가 섞인 흙모래를 쥐어뿌렸가지 않아요. 그때부터 명희는 눈을 앓으면서 점차 소경이 되었어요.》

나를 꾸짖은 선생님의 마음을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이젠 잘 알고있어요. 오늘도 아마 아저씨 우리 선생님한테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거예요. 그렇지요, 아저씨?》

《없다. 맘놓으렴.》

문석차는 등불이 비쳐 그윽히 빛나는 미선이의 순진한 눈동자를 서슴없이 마주보았다.

효순이는 풀밭우에 꽃보자기를 펴놓고 구력안의 음식을 몽땅 꺼내놓았다. 최서은은 말없이 효순이의 음식차림새를 거들었다. 문석차는 삭정을 던져놓고 모닥불을 돌고구 미선이는 하얀 손수건으로 고뿌를 닦았다. 너무도 조용한 분위기에 어리둥절하여 효순이는 매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건너다보며 종알거렸다.

《우린 배를 타고 남극대륙으로 가는 탐험가들 같아요. 그런데 왜 모두 침울할까? 배가 파손당했나요?》

《파손당하긴, 잠시 무인도에 올라 쉬는중이지. 자, 효순아. 그만 맵시를 부리고 빨리 만찬을 시작하자.》

미선이는 성큼 일어나앉아 무릎을 꿇고 문석차와 최서은의 잔에는 맥주를, 자기들의 잔에는 단물을 부었다.

《난 너희들의 훌륭한 미래를 축복한다!》

잔을 든 문석차의 목소리는 갈려나왔다. 최서은은 돌아앉아 눈물을 닦았다.

그날로부터 닷새가 지난 6월 13일 두 소녀는 미군장갑차에 깔려 죽었다....

초불을 든 사람들이 미선이, 효순이와 함께 걸어오고있었다. 묵묵히 걸음을 내짚는 사람들, 찢기운 상처로 하여 이그러진 얼굴들과 증오로 서리찬 눈빛들이 부르짖 주먹과 격앙된 가슴마다에서 타오르는 초불우에 채 피지 못하고 죽어간 소녀들의 사진을 소중히 떠받들고 걸어오고있었다.

소녀들은 웨치고 있었다.

《우린 미국놈때문에 죽었습니다. 원썩을 갚아주세요!》

초볼들은 활활 타올랐다.

《원썩을 갇아주마! 너희들의 영혼을 지켜주마!》

아. 그런데 나는 왜 여기에 서있는가?!... 문석차는 으깨여지도록 라이타를 짹 움켜쥔채 신음소리를 씹어삼켰다. 그는 눈을 지르감았다. 삽시에 악몽이 그의 뇌리에 덮쳐들었다...

6월 13일... 당직근무를 서던 문석차는 어느 한

도로상에서 미군 장갑차가 길가던 두 녀중생을 깔아놓히고 도망쳤다는 전화원락을 받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였다. 그는 이제 출동명령이 내릴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저녁무렵 그가 근무교대를 마쳤을 때 그와 근무를 교대한 동료경찰이 가만히 귀뽀하는 소리를 들으니 이미 살인범을 미군법정에 넘겼다는 것이다. 이럴수가 있는가?!

그는 격분하여 경찰서장의 방에 뛰어들었다. 전화로 어떤 카페의 녀주인과 한담을 하고있던 경찰서장은 칼자리가 뚜렷한 살핀 불편을 실록거리며 문석차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곧 분기를 누르고 안락의자에 깊숙이 파묻었던 육중한 몸을 일으켰다. 그는 문석차의 세차게 떨리는 어깨를 꼭 눌러잡았다.

《이보라구 석차, 그 심정을 리해해. 나두 가슴이 아파. 내게두 그 나이또래의 딸이 있어. 하지만 내가 어찌겠나. 이제 당국에서 다 대책을 세울 모양이야. 우린 당국을 믿어야지. 안그래?... 전번에 세운 무공을 생각해서 오늘 이 불손하고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히 용서하겠어. 내 없었던것으로 치지. 하지만 다시 반복되면 안되겠네. 자, 어서 돌아가서 일이나 잘하라구.》

문석차는 허탈감에 빠져 비칠거리며 거리로 걸어나왔다. 신문 한장을 사들었다. 《녀중생 고심미선, 신태훈... 채 피지 못한 꽃방울들은...》 커다랗게 씌여진 석간신문의 활자에 문석차는 외락 얼굴을 물었다. 《아아, 이 애들이!...》

어느 식당의 매대에서 정신없이 술을 들이키고 만취되어 어슬넉 공원의 축축한 걸상우에서 밤이 올 때까지 몸부림쳤다. 그가 누운채로 눈물을 흘리며 올려다보는 밤하늘의 별들은 아득히 멀리 있었다.

머칠후 문석차는 미선이, 효순이의 령구가 안치된 낮익은 시골중학교를 찾아갔다. 최서은은 그를 본척도 안했다. 검은 상복에 휩싸인 그녀의 얼굴은 핏색하게 여위고 두눈은 너무 울어서 짓물려있었다. 문석차는 손수 가져온 두개의 초대에 불을 달아서 떠나간 소녀들의 령위에 세워주었다. 두발이 얼어붙은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벌써 몇시간째 한자리에 못박혀서서 미선이, 효

순이와 이야기했다. 사랑의 이야기, 작별의 이야기... 초볼들은 작아지면서 방울방울 진한 눈물을 흘렸다. 그의 녀도 방울방울 피를 태우며 슬픔과 고통속에 한줌으로 줄어들었다.

창밖은 어두워졌다. 누군가 포박포박 애끓는 구두발소리를 내며 그의 등뒤로 다가왔다. 문석차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천성적인 음악의 톨조가 비긴듯 한 발걸음소리만 듣고도 최서은임을 그는 알수 있었다. 그 발걸음소리가 내포하고있는 음악의 색조가 너무 어둡고 무거운것이어서 문석차는 금시 얼굴에 찬 비방울이 떨어져내리는듯 한 오한을 느꼈다.

최서은은 미선이, 효순이가 미군장갑차에 깔리던 이야기를 했다.

《그날 하루공부가 끝났을 때 미선이, 효순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명희네 집으로 함께 가지요. 그들은 명희에게 줄 생일선물을 가지고 왔더군요. 효순이는 아버지가 사다준 새 무용복을 가져왔고 (그날은 바로 효순이의 생일날이기도 했습니다.) 미선은 또 <초볼>을 그러왔습니다. <선생님, 이 《초볼》은 명희에게 밝은 눈이 되고 싶은 저의 소원입니다.> 하고 미선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전 미선이, 효순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하루사업을 마감짓고 그들과 함께 가고싶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미선이, 효순이의 생일선물이 명희에게 가닿게 하고싶은 저의 마음이었지요.

얼마후에 저도 그들을 뒤따라 떠났습니다. 어떻게 익어가는 밀밭기슭을 지나갈 때 저 멀리 길 건너 푸른하늘 아래 뽕죽이 치솟은 성당의 첨탑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메아리쳐왔어요. 한뼉을 굴욕과 눈물속에서 행복을 소원하며 살아온 정원지기로인이 그날도 <자비로운> 하느님을 부르며 복을 내려달라고 빌고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그의 소중한 손녀는 빛을 달라고 몸부림쳤어요. 바로 그 시간에 명희에게 빛과 웃음을 안고 가던 미선이, 효순이- 그 망울진 꽃봉오리들은 미군장갑차에 깔려 숨졌고요. 그림은 짓이겨져 길바닥에 휘뿌려지고 정성껏 다린 아름다운 무용복엔 피가 젖었어요.》...

문석차는 살눈섭이 긴 효순이의 발랄하고 천진한 눈과 수줍음이 어린 미선의의 그윽한 눈을 생각했다. 살점을 물어뜯는 무한궤도의 녹슨 이바퀴밑에서 소녀들은 두손으로 눈을 감싸고 울부짖는다.

《어두워요! 아파요! 살려주세요!...》

문석차는 힘껏 머리를 뒤흔들었다. 그래도 울부짖는 소녀들의 모습은 지워지지 않는다. 피물같은 철갑의 무한궤도는 녹슨 이발을 드러내고

소녀들의 머리위로 사정없이 구울러간다...

최서은은 소리내어 흐느꼈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런데 석차씨. 이런 때 경찰은 뭘 하고있어요? 왜 살인자를 미군법정에 넘긴채 속수무책으로 있어요? 자기 리념의 승리를 증명해보이겠다더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요? 이제는 대답해야 해요.》

문석차는 눈물이 번쩍이는 눈을 들었다.

《서은, ... 아직 속단하지 마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법은 국가의 생존방식이요. 죄를 짓는다면 응당한 벌을 받는것, 이것이 세상 리치요. 백주에 우리 소녀들을 깔아뭉개는 미군놈의 죄행은 만천하가 보았고 치를 떨었소. 그럴진대 달리는 될수 없소. 워커는 법의 징벌을 받을것ियो.

그리고 이번 심미순, 신희순 살인사건은 철저히 우리 법대로 처리되어야 할 범죄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 미군의 범죄는 미군법정에서만 취급하게 되었던것은 어제 일ियो. 오늘은 시대가 달라졌소. 이젠 미군도 죄를 범하면 우리 법대로 징벌할수 있단 말ियो. 당국에서도 지금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있다고 하오.

조급해 마오. 시간문제요.》

《그걸 믿어요? 종주국인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한자족도 나가지 못하는 이 식민지 남조선의 법을 믿는가 말ियो요? 미군이 <한미행정협정>에서 일련의 양보를 한것은 민중의 반미기운이 높아지는데 우려를 품었기때문ियो요. 한갓 기만이지요. 본질은 아무것도 달라진것이 없어요.》

《민소. 해빛은 절대로 손바닥으로 가리울수 없는거요.》

《아!》 하고 최서은은 가느다란 비명을 지르며 핵 얼굴을 돌렸다가 다시 기대를 안고 바라보았다.

《석차씨, 이젠 잠에서 깨어나요.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엄연한 현실을 꿰뚫어봐야 해요. 미군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살인자를 처벌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사건후 지금까지의 그들의 모든 행위가 그걸 여실히 증명해주고있어요. 꽃망울같은 소녀들을 깔아뭉개고서도 꺼리낌없이 도망친 그들이, 사건현장에 마지못해 나타나서도 변명을 하고 발뻘하려 드는 그들이 인류앞에 그 어떤 사죄를 하고 죄인에게 징벌을 가하리라고 믿는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고예요. 그것이 상전의 의사일진대 식민지 당국이 그 의사를 거역할 힘이 어디 있단 말ियो요. 이것이 바로 우리 남조선민중이 당하는 수치이며 설움이라는걸 그래 석차씨 모른단 말ियो요?!》

《하고싶은대로 다 말하오. 난 탓하지 않겠소.》

문석차는 가슴쪽의 상복자락을 안타까이 허비고있는 최서은의 조그만 손을 조용히 끌어잡았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말을 부정하오. 나의 리념은 애초에 정의로운것ियो.

언젠가 미선이가 한 말을 나는 기억하고있소. 불은 정의와 진리와 사랑의 상징이라고 당신이 그 애에게 말했다고 하더군. 그렇소. 어지럽고 부패한것을 깡그리 태워버리며 타오르는 불길처럼 정의와 진리는 사멸할수도 없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빛나며 타오를것ियो.

난 나의 리념의 승리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소. 이 믿음, 이 확신, 이것이 지금 서은에 대한 나의 사랑의 전부요.》

《난 그 사랑을 경멸해요!》

문석차는 찬바람을 일구며 꽃꽂이 멀어져가는 최서은의 뒤모습을 끝없이 서글픈 심정으로 조용히 바라왔다.

두 녀중생에 대한 살인사건소식이 전해지자 각 계층사회계는 투쟁에 일떠섰다. 《미군 전차 사망자 녀중생 고 심미순, 신희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워커라는 살인귀가 있는 의정부의 미2사단정문과 통산미군기지 등 미군이 등지를 틀고있는 곳곳에서 련이어 항의시위와 집회들이 벌어졌다.

장마철의 무덥고 눅눅한 날씨였다.

문석차가 속한 전투경찰대는 의정부의 시위진압에 동원되었다. 경찰은 시위자들을 둘러싸고 높은 철망안의 미군을 지켜주면서 비지땀을 흘리고있었다. 어느 틈에 누군가가 미군부대 철조망을 절단기로 자르고 면도칼로 검은 비닐을 찢어놓았다.

문석차는 한창 축구경기에 열이 오른 거의 알몸뚱이의 미군병사들을 보았다. 미친듯이 뛰고 달리고 발길질을 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리는데 경기장밖에서는 검은 씩고 해바라기씨를 까고 휘파람을 불면서 응원을 하느라 야단법석이었다.

포물선을 그으며 중앙선을 넘어온 공이 이쪽 문전어방에 떨어졌다. 힘껏 골반이한 공이 높이 뿔다가 다시 떨어지는 순간 저쪽 구석에서 한 자가 맹렬히 돌진하며 다리를 휘둘러 내질렀다. 철썩! 하고 공은 그물에 걸렸다. 경기장 안팎에서 피상한 환성이 터져오르고 한때의 벌거벗은 동료들이 달려들어 구척장신의 그자를 하늘공중으로 추켜올렸다.

《워커 만세!...》

속았구나!... 문석차는 치를 떨었다. 그는 미선이, 효순이의 죽음결에 또 하나의 죽음을 보는데 있었다. 그것은 사랑의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

르면서까지 지켜내려고 모지름을 쓴 자기 리념의 죽음이었다.

미군법정은 끝내 위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문석차는 사직서를 냈다.

《나는 내가 들어선 이 길이 정의의 길이며 이 길에서 진실로 민중을 위한 정의의 <건인기>, 민중의 <지팽이>가 되고저 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나의 착오였다. 경찰은 결코 내가 우상화했던 민주화의 파수병이 아니었다. 나는 정의를 위하여, 이 땅의 민중을 위하여 남아의 육신을 내던지려 이 길에 나섰던 나를 저주하며 너는 수치와 모멸에 얼룩진 이 검은 제복을 입고있을 용기가 없다.》

문석차의 량심선언은 경찰서장을 아연케 했다. 높은 당국의 처사에 불복하고 군기를 문란시킨 문석차를 당장 감옥에 처넣으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뭐 민주주의가 어떻게구?... 미군이 하라는대로 하는게 곧 민주주의야, 알아들었어?

네가 들어올 때는 제발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네 맘대로 못해, 넌 개야. 쇠사슬에 목을 매고 미군이라는 상전의 손에 덜미를 잡힌 개란 말이야. 넌 살아도 죽어도 여기서 상전을 위한 충견이 돼야 해. 이걸 끝수에 새기란 말이야, 개자식!》

감옥의 교형리들은 그에게 못매를 안기며 이죽거렸다.

정신육체적인 강한 타격에 문석차는 폭 꼬꾸라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캄캄한 독감방에 갇혀있었다.

문석차는 자살을 결심했다. 죽자! 이렇게 살아가는 뭘하는가?! 이 감옥에나 앉아있기에는 나는 너무도 젊고 나의 리념은 너무도 숭고했다. 리념이 죽어버린 지금 나의 젊은 육체는 한갓 허울에 불과하다.

《아, 서은!...》

문석차는 손바닥만 한 피창으로 비쳐드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 하나를 눈이 아프게 바라보았다. 소리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얼마나 그 처녀를 사랑했는가!... 그것은 한순간의 꿈이었다. 너무도 사랑했던 까닭에 이 세상 고통까지 다 잊어버렸던 행복의 무아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행복을 다시는 바랄수 없었다. 문석차는 얻어맞은 다리를 끌며 피창으로 기여가 온몸으로 녹슨 철창을 움켜잡았다. 그는 철창에 불을 대고 그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잘 있으라 서은!...》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백년을 살다가 함께 죽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나의 리념이 깊은 함정을 파서 너와 나, 그렇듯 따스했던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았다. 아프다, 이 세상에 태어나 내가 맞본 아픔중에서 가장 견딜수 없는 슬픔이었다.

나는 이제 죽을것이다. 그러나 나의 육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내가 얼마나 너의 가까이로 가고싶어했는지. 내가 얼마나 너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죽는것을 피로워했는지 알아다오!...》

문석차는 소년처럼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단식을 시작했다. 그의 몸은 점차 떠오를듯이 가벼워지고 생명의 불꽃은 서서히 꺼져갔다.

어느날 몽롱한 의식속에 누워있는 그의 앞에 경찰서장의 흉물스러운 얼굴이 나타났다. 높은 팔짱을 끼고 관주위를 돌듯이 문석차의 둘레를 거닐며 동정과 조소, 야유가 엇섞인 묘한 억양으로 뇌까렸다.

《이보라구 석차, 죽기를 원한단지?... 괜찮아, 넌 사낸 사내야. 그 배짱과 결단성이 아주 마음에 들어. 아깝단 말이야.

그래서 난 너를 죽이지 못하겠어. 어떻게든 살려내겠단 말이야. 너를 기어이 살려서 네가 그리도 싫어하는 그 일에 계속 내몰겠단 말이야. 이 건 이 경찰서장의 결심이 아니라 바로 네 목줄기를 쥐고있는 미군의 의사야.

똑똑히 명심하라구. 석차. 넌 마음대로 죽을수도 없다는것을 말이야. 아마 그게 현명할거야. 성인도 시세를 따르다구 너라는 인간이 도대체 미군앞에 뭘가말이야?

자, 그러니 이제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지. 어서 일어나라구.》

교형리들이 달려들었다. 문석차의 목구멍으로 길다란 호수가 넘어가고 뜨끈한 액체가 사정없이 비어버린 위를 채우며 흘러들었다....

초불의 바다위에 떠실려 소녀들은 활짝 웃으며 다가오고있었다. 초상이 확대될수록 그 웃음은 붉은색마냥 진해지고 금방 은방울소리같은 웃음소리를 터뜨려 온 우주공간에 보석처럼 뿌려던질듯만싶었다. 바라볼수록 그 웃음의 순결함이 눈물겨웠다. 그 웃음을 너무도 많이 남겨놓고 가 가슴이 미여진다. 무수한 초불우에서 부각된 소녀들의 웃음이 너무도 두드러져서 그 웃음을 떠받들고 걸어오는 사람들의 형상은 수목화처럼 더욱 어둡고 침통하였다. 천근으로 무거운 발걸들이 내짚는 포석우에는 피의 강물이 츤츤 츤츤 고여서 흘러내리는듯 한 처절한 비감을 자아내었

다.

문석차는 한손을 들어 눈을 가리웠다. 다가오지 말라고 그는 속으로 밀었다. 제발... 제발... 그래도 끊임없이 가까와온다. 문석차는 그저 저들앞에 짓밟혀죽고싶었다. 그래, 저기에 짓밟히자,

그러면 죽어도 원이 없을것이다. 나의 죄는 마땅히 저 발길들에 짓밟혀 죽을 죄이다!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도 맑고 깨끗하여 이 세상 가장 슬픈 눈물이 배여있는 아이들의 노래였다. 문석차는 열심히 그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누군가를 찾으려고 발돋움하고 이리저리 사람들의 물결을 헤가르며 달리는 열띤 소년처럼 그는 온몸이 귀가 되어 노래소리를 따랐다.

문석차의 두눈에 생기가 떠올랐다. 향촌 아이들이다! 그 처녀다!... 그는 그것을 눈기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체감하였다. 그는 목을 빼들고 앞을 휘돌러보았다.

곧 그의 눈에서 환희의 빛이 꺼졌다. 자기와 그 처녀사이에는 이미 넘을수 없는 큰 강이 흐르고있음을 그는 의식하였다. 그 처녀는 삶과 투쟁의 저쪽 기슭에서 노래를 부르고 자기는 죽음과 절망의 이쪽 기슭에서 비굴하게 숨져가고있다는 랭혹한 현실이 그를 선풍케 했다. 그렇다, 기회는 이미 지나가버렸다. 그 심연같은 강물우에 놓였던 운명의 다리는 이미 사나운 물결에 삼키우고 말았다. 다리는 없어졌다. 배도 노도 없다.

하지만 문석차는 저쪽 기슭으로 건너가고싶은 열망이 간절하였다. 가다가 빠져죽더라도 기어이 헤엄쳐 건너가고싶었다. 술한 동료들의 놀람과 경탄, 웃음을 불러일으키며 처녀를 닮은 안아들고 부끄럼도 없이 정원의 숲속으로 달려가 심장을 헤쳐 사랑을 고백하던 대학시절의 그 화창한 봄날로 되돌아가고싶은 불같은 욕망이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백배, 천배로 강렬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늦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그 처녀는 자기를 애타게, 목마르게 기다리다가 저 거세찬 초불광장의 격류속으로 홀로 노를 저어 떠나가버린것이다. 영원히...

《와와...》

저쪽 어디선가 경찰저지선의 한쪽 모퉁이가 움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차츰 초불시위자들과 증무장한 경찰사이의 밀고 닥치는 격렬한 몸싸움으로 변하였다. 시위자들은 필사적으로 공격하였다. 경찰은 그들의 머리우에 곤봉을 휘둘렀다. 악악 비명이 터지고 초불들이 꺼져서 땅바닥

에 짓밟혔다. 완력의 기운은 초불시위행렬의 전면으로 확대되었다.

한때의 중학생들이 문석차가 서있는쪽으로 달려들었다. 발을 구르고 방패를 깨쳐라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입을 모아 웨쳤다.

《길을 열라! 우리 동무들이 죽었다!...》

초불광장은 죽가마처럼 끓고 뒤번져지고 소용돌이쳤다. 그 아비규환의 혼잡속에서 문석차는 최서은을 보았다. 부딪친 두눈길에서 날카로운 불씨가 튀겼다. 최서은은 초불을 떨구지 않으려고 한팔을 한껏 추켜들고서 주위의 성난 팔굽과 잔등, 가슴들에 얻어맞고 떠밀리우고 휘청거리면서 사람들의 격렬한 물결속을 헤치고 문석차가 있는쪽으로 한치한치 헤엄쳐왔다. 원망과 동정, 사랑과 증오가 쉬임없이 엇갈리는 처녀의 눈길은 절망의 나락에 빠져 허덕이는 문석차의 넋을 강렬한 빛으로 추적하면서 꿰뚫고있었다. 그의 크고 온순하나 지금은 결코 온순하지 않은 광채로운 눈은 이글이글 불덩이를 담고 부르짖었다.

《석차씨. 이제는 자기를 알아야 해요. 자기의 존재가 이 시대의 싸움속에 정녕 무엇인가를 푹 푹히 알아야 해요!》

《나는 알고있어! 나는 깨달았어! 나의 리념은 한갓 공상이었다는것을 뼈속에 새겼어! 미군이 이 땅에 남아있는 한 남조선은 영원한 민주의 동토대로 남을것이며 내가 소원하고 민중이 녀원하는 진정한 민주화의 봄을 맞으려거든 미제를 이 땅에서 철저히 몰아내야 한다는 진리를 확증했어. 반미는 우리 민족의 생명이라는것을 나는 절감했어!》

《그렇다면 왜 머뭇거리요? 무엇을 망설이고있어요? 자!》

최서은은 사품치는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초불을 든 팔을 내뻗쳤다.

문석차는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그는 잠시 하늘을, 이제 머지 않아 새해의 려명이 비끼고 창창 푸르러질 새벽하늘을 얼굴을 젖히고 올려다보았다. 그 려명직전의 칙흑같은 어둠속에서 눈길을 떼는 순간 문석차는 방패를 집어던지고 철갑모를 벗어 발치에 내던졌다. 그리고 어깨우의 계급장을 와락와락 뜯어버렸다.

《서은, 고맙다. 이 땅의 불행을 어떻게 아파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준 너와 나는 영원히 함께 살것이다!》

문석차는 초불광장으로 뛰어들어 최서은의 팔목을 움켜잡았다.

비전향장기수의 진실한 형상, 축복받은 인생에 대한 찬가

-장편소설 《축복》에 대하여-

장형준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한 수십권의 장편소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선군시대에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이다. 그가운데서도 우리모두가 축복이의 아버지로 정을 담아 부르는 리재룡동지를 원형으로 한 장편소설 《축복》(최봉무작)은 독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인공을 원형과 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형상한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문학에서는 원형과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전형화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문학작품에서 주인공들이 원형과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전형화되어야 하지만 비전향장기수들을 주인공으로 한 문학작품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그것은 독자들이 작품에서 여러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하나의 성격에 집중시켜 창조하였거나 한 원형에 기초하면서도 거기에 여러 사람들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전형화한 주인공을 보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수십여년의 옥고를 이겨낸 매개 비전향장기수들의 실지 모습을 보고싶어하기때문이다.

소설은 주인공 리재영의 형상을 통하여 원형인 비전향장기수의 성격과 성장과정, 신념의 원천과 인생의 귀결을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그렸다.

주인공 리재영은 조국해방전쟁시기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깡통을 차고 떠돌이생활을 하며 모진 천대를 받았고 눈물도 많이 흘린 불쌍한 소년이었다. 그는 누이(어금)에게 의지하여 속초 《국민학교》 3학년에서 한해동안 공부하다가 사기협잡군이며 패덕한인 매부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고 누이마저 죽자 그가 남긴 조카애를 먹여살리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하였다. 잔뼈도 굳기 전에 작은 어선의 소년여부가 되어 동해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도중 풍랑을 만나 조난당하여 우리 경비정에 의해 구원된다. 이때 그는 북조선의 《고성》이라는 지명만 듣고도 놀라 팔다리를 와들와들 떨었다. 그리고 우리 수산성일군을 만나서는 남조선에서 듣던바대로 《빨갱이》의 머리에 빨이 나지 않았는가 하여 그의 얼굴을 이상스럽게 살펴보았다.

이렇게 반공사상에 물젖어있었던 그는 북조선에서 석달동안 머무르면서 농촌과 공장에도 가보고 생사여부를 물랐던 그리운 만형이며 인민군대에 포로되어 학살되였다던 진아의 삼촌도 만나보고 공화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게 된다. 난생처음 로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 희한한 사회주의현실을 본 그는 남조선에서 듣던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느끼며 통일되면 남조선에도 북조선과 같은 인민의 세상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가 남조선에 돌아가자 미제의 앞잡이 군사파쑈악당들은 그를 《보안법》과 《반공법》에 걸어 사형과 무기형에 처하고 30여년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어 살인적인 야수적고문으로 《전향》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주인공 리재영은 그 시련의 기나긴 나날 오로지 아버지수령님만을 믿고 북조선을 그리워하며 반통일분자들의 온갖 박해와 회유를 물리치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마침내 공화국의 품에 안겨 통일애국투사로 떠받들리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축복이의 아버지가 되어 보람있게 살고있다.

주인공의 눈물겨운 소년시절로부터 간고한 어부생활, 3개월간의 북조선체류, 30여년간의 피어린 옥고와 축복받은 인생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원형이 실지 겪은 생활 그대로이다. 여기에는 허구적으로 꾸며진것이나 덧붙여진것이 별로 없다.

실지 그에게는 열두삼천리벌에서 일하며 행복하게 사는 만형이 있으며 남조선에서 고생하다가 원통하게 죽은 누이와 그의 아들, 월남전쟁에 끌려갔다가 그 후환으로 희생된 둘째 형과 시동생의 《죄》를 감소해보려고 놈들의 《새마을운동》에 나섰던 둘째 형수가 있었다.

주인공의 가족관계는 물론 그밖의 주요인물들까지도 원형들에 기초하여 형상되고있다.

작품은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생활과 결부하여 남조선에서의 《반공》 교육실태와 파쑈탄압의 실태, 《한일》매국협정의 체결과 일본에 의한 《한국》어업의 예속화, 《유신》독재자의 반통일책동과 군사파쑈정권의 교체과정 등을 력사적사실 그대로 그림으로

써 남조선정계의 움직임과 시대의 변천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이처럼 주인공은 물론 그를 둘러싼 인간관계와 사회력사적환경 등이 다 실지 있는 사실을 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장편소설 《축복》은 거의 실화소설에 가까운 작품으로서 허구를 많이 가하지 않고 철두철미 사실성을 보강한것은 이 장편소설로 하여금 비전향장기수를 진실하게 형상한 성과작으로 되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여기에서 작품의 구성도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소설은 주인공의 생활을 시간적순차에 따라 전개하는 전통적인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구성형식은 주인공의 생활로정에 맞게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그리는데 적합한 형식으로서 주인공을 원형 그대로, 실제 사실에 맞게 형상하고 소설의 생명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었다.

소설이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주게 된것은 또한 주인공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인간학적견지에서 깊이있게 그리고 그의 곡절많은 운명을 극적으로 형상하여 인생의 의의를 심오하게 밝혀내었기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모진 불행을 겪어온 주인공 리재영은 남달리 불우한 운명의 체현자였다. 다른 비전향장기수들은 다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미제와 매국역적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다가 체포투옥된 애국투사들이다. 그러나 리재영은 체포되기 전에 그들처럼 미제와 매국역적들을 반대하여 싸운 일이 없는 평범한 20살의 어부였다. 그는 자기스스로의 결심에 의해서 북조선에 간것이 아니고 태풍을 만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갔다왔다. 그리고 북조선에서 본대로 말하고 북조선처럼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동경하여 하루빨리 조국이 통일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을뿐이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파쑈도당은 북조선의 통일정책을 반대하는 선전을 벌이기 위해 《조난어민회유역류》라는 모략사건을 날조하여 그를 북조선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몰고 예심과정의 발언을 문제삼아 그에게 사형과 무기형을 언도하였다. 세상에 이런 악독하고 불법무도한 일이 또 어데 있는가.

놈들의 간악한 음모의 희생물로 된 리재영은 학교때 평정서에 지적되어있는바와 같이 《품행이 바르고 평소에 소녀와 같이 얌전하고 솔직한 소년》이였고 자라서도 체소하고 녀자와 같이 새물새물 웃는 내성적인 청년이다.

이런 그가 어떻게 놈들의 악착한 고문을 견디어낼수 있었는가? 그것은 《젊고 온갖 풍상에 철

조각상처럼 단련된 그의 육체》 때문이었던가. 아닙니다. 사자밥을 등에 지고 다니는 어부들의 성미 그대로 거짓을 모르는 대바른 성품, 깨끗하고 정직한 량심때문이었다. 량심은 사회와 집단앞에서 자기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느끼는 마음이며 거짓과 진실을 판결하는 기준이다. 한갓 조난어부로 우연히 북조선에 갔다온 그였지만 놈들의 강박에 못이겨 자기의 량심을 저버릴수는 없었다. 그것은 공화국이 참말로 좋았고 북조선의 사회주의사회가 자기와 같은 로동자, 농민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였기때문이다. 더우기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이 고마웠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로선이 천만번 정당한 로선이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는 자기 형에게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잊을수도 배반할수도 없었다.

하지만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량심을 지켜낼수 없다.

작품은 이 평범한 인간이 량심적인 인간적바탕에서 어떻게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신념의 강자로 자라나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감옥은 그를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단련시키는 준엄한련병장이였다. 여기에서 그는 비로소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분렬주의자들의 매국배족적정체, 놈들의 반통일정책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서 오직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길로 나가야 자기가 살고 민족이 산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게 된다.

그에게 있어서 옥중의 통일애국투사들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어떻게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고마운 스승들이였고 생사를 같이한 미더운 혁명동지들이였다.

리재영이 2심공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억이 막혀 몸부림치던 그밤 그에게 힘을 준것은 《인민혁명당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로교수였다. 그는 재영에게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형님의 집에 오시여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듣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며 참말 부럽다고, 그것은 누구도 감히 받을수 없는 축복이라고,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이 남녘땅의 민중을 대표해서 자네가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생명은 감옥도 철쇄도 단두대도 소멸할수 없다고, 젊은이는 그것으로해서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승리할것이라고 힘과 용기를 부어주었다. 리재영은 눈물을 머금고 꼭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한다. 사형수에게서 이런 고무를 받고 이런 각오를 다졌기에 그는 2심공판에

서 재판관의 심문에 당당히 맞설수 있었다.

《피고는 중앙정보부 춘천지부 류치장 3호감방에서 수감자 3명에게 북의 국민수준이 높다고 찬양, 동조, 선전한것을 인정하는가?》

《나는 선전한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물음에 본 그대로 대답했을뿐입니다.》

《피고는 **김일성** 장군님은 참으로 훌륭한분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언했다는데 그에 대하여 인정하는가?》

《인정하다뿐이겠소. 사실이지!》

《무슨 의도에서 그런 말을 했는가? 그것도 수감자들이 질문하던가?》

《아니요. 그건 내가 북의 현실을 보고 느낀것이요.》

《그것이 찬양, 동조, 선전이 아니고 뭐가?》

《찬양이구 동조구 선전이구 난 모르오. 그건 내가 북에 가서 보고 느낀 전부요. 전부란 말이요.》

《피고는 통일이 되면 이 남쪽땅에도 노동자, 농민이 주인된 이북과 같은 참세상을 세워야 한다고 발언한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버리지취급을 받는 우리같은 어민들도 사람대접을 받아볼것이 아니겠는가요.》

《피고는 상술한 발언이 현 정부와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적리적행위이며 범죄라는것을 인정하는가?》

《부인합니다. 인정할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그 까닭은 간단합니다. 나의 이 두눈과 지금도 뛰고있는 이 심장이 증명하지요. 나는 전쟁때 부모를 다 잃고 전제교아가 되어 개만도 못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다가 소년어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 북에 체류하게 되었지요. 나는 국민학교 <도덕>과목에서 배우고 해상지서 <반공교양실>에서 들은바가 있어 북의 사람들과의 첫 대면에서 얼굴과 머리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원산에도 평양에도 얼굴이 새빨강고 머리에 뿔이 나온 사람은 한명도 없었지요. 다 거짓말이었습시다. 깡통을 차고 다니는 거지도 없었고요. 아이들은 누구나가 다 학교에서 공부하였고 실업자가 없었습니다....

재영의 입에서 점점 《험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재판관은 발언을 중단시키고 휴정을 선포한 다음 다시 인정심문을 시작했다.

《피고는 북에서 형을 만나 대통령의 <선경제후 통일론>을 악랄하게 비난하고 북의 통일로선에

동조한것을 인정하는가?》

《<비난>과 <동조>라는 말만은 부인합니다.》

《그 근거는?》

《근거는 간단하지요. 나는 형님을 20여년만에 만났습니다. 북에 계시는 형님도 혈혈단신이고 남에 사는 나 역시 혈혈단신이지요. 우리 나라에 나처럼 저 분단선때문에 헤어져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분들이 어찌 한둘이겠는가요. 형제가 만나 서로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한 민족의 이 비극을 감내해온분들은 저를 이해하실겁니다.

나는 형님의 품에 안겨 지난날 피눈물나는 길을 걸어온 고아의 설음이 북받쳐 가슴을 치며 우리 민족은 <선경제, 후통일> 이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통일, 통일이라고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더는 갈라져 살수 없는것이 우리 민족이고 더는 미룰수 없는것이 통일입니다. 그래 이것도 <비난> 인가요.》

《재판관님은 북의 통일로선에 동조했다고 하는데 나는 동조가 아니라 진심으로 납득했다는것을 밝히게 됩니다....

《저는 다만 부모없이 고생하다가 태풍을 만난 덕에 생사를 모르던 형님과 상봉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저의 머리속에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우리 형제가 모여 함께 살수 있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보다 통일이 더 절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기 마련이지요. 나는 그때부터 조국통일은 내 문제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누가 통일을 가져다준답니까. 리승만박사님은 눈만 뜨면 <승공통일>, <멸공통일>이였고 요즘은 또 <선경제, 후통일>이니 언제 통일이 되겠어요. 그래 형님과 동생이 총부리를 마주대고 6.25전쟁때처럼 또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이것도 국가전복을 위한 북의 통일로선에 <동조>한것인가요?》

《중앙정보부》놈들과의 첫 대결에서는 사람이 결백하면 무서울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딱딱 맞섰다면 여기서는 통일에국의 길에 나설 확고한 신념이 있어 이렇게 놈들을 단호하게 반박하고 단죄한것이다.

작품은 그 신념의 원천이 바로 온 겨레를 조국통일로 향도하고계시는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석달동안의 북조선체류에서 특히 형님으로부터 자기 집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조선사람들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단결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듣고 그 정당성을 확신한 리재영은

사형을 앞둔 로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그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그래서 그는 종신무기형을 받고 0.75평의 독감방에 홀로 갇혀있으면서도 비판과 절망을 모르고 오직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만 믿고 따르며 조국통일을 위해 억세게 싸워나갔다.

그 간고하고 준엄한 나날에 그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신심, 투쟁의 활력을 안겨준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이었다. 이 통일대강이 담겨진 력사적인 7.4북남 공동성명은 온 남녘인민들과 통일에국투사들을 통일의 열망으로 들끓게 하였다. 감옥안에서 그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재영이도 환희와 걱정에 휩싸여 조국통일의 대경륜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민족통일의 구성》이시라고 소리높이 웨쳤다. 이 감격적인 화폭을 통해 작품은 리재영을 비롯한 통일에국투사들의 혁명적신념이 무엇에 뿌리박고있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준다.

소설에는 또한 최기석동지를 비롯한 비전향장기수들의 동지적사랑이 뜨겁게 묘사되어있다. 투쟁경험도 없고 혁명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주인공에게 있어서 혁명동지들의 뜨거운 사랑이 없었다면 《전향》을 강요하는 군사파쑈악당들의 그 무서운 고문을 이겨내기가 매우 힘들었을것이다. 그는 미더운 혁명동지들의 사랑속에 놈들의 온갖 강박과 회유를 물리쳤고 그 역시 동지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옥중에서 굴함없이 곳곳이 투쟁해나간다.

작품에는 그의 옥중투쟁이 감명깊게 형상되었다. 그가 5명의 수인들에게 북조선의 현실을 본대로 알려준것으로 하여 놈들로부터 종신무기형에 10년추가형이라는 세상에 없는 피이한 형벌을 받고도 끄떡하지 않았으며 비전향장기수 최기석이 교형리들에게 타살되었을 때 그의 사망진상을 밝히라고 먼저 들고일어나 동지들과 함께 단식투쟁을 집단적으로 벌리는 장면 등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일반수 박웅구를 믿고 그를 불러 동지의 타살을 증언하게 하는것이라던가 면회온 형수가 정성껏 마련하여 가지고온 음식을 놓고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단식투쟁기간이어서 전혀 입에 대지도 않고 돌아서는 모습 등은 얼마나 아름답고 강의한 의지를 보여주는것인가!

이밖에도 소설에는 어린 재영이가 비명에 죽은 어금의 목을 그러안고 《누님, 누님이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해요?》라고 설분을 토하는 장면이며 북조선에 왔다가 서로 갈라지지 않으면 안되는 형제간의 가슴아픈 작별장면, 북조선에 있

는 외삼촌어머니가 조카애에게 입히라고 지어보낸 옷을 재영이 30여년세월이 흐른 뒤에 그것도 감방안에서 장년이 된 동해에게 전해주는 장면 그리고 당자가 그 뭇뺨바지를 와락 부둥켜안고 얼굴을 묻으며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 등 눈물없이 읽을수 없는 대목들이 많다.

《전향》을 강요하는 놈들과 그것을 반대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투쟁은 인간과 야수, 애국과 매국간의 피어린 대결전이었다. 작품에서는 《반공》파쑈악당들의 《전향》공세와 그에 따르는 전기고문, 학춤고문, 랑동고문 등 가지가지의 야만적인 고문들을 날카롭게 폭로하고있다.

이것은 단지 놈들의 치떨리는 만행만을 폭로하고있는것이 아니라 미제와 그 주구 매국역적들의 반통일적기도를 날날이 발가놓는것이기도 하였다.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의 반공화국소동은 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조정과 부추김에 의한것이였다. 작품에 묘사되어있는바와 같이 놈들은 《북의 남침준비실상》자료를 꾸며내기 위해 리재영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였으며 7.4북남공동성명이 공포된 때에도 미국은남조선에 신형비행기와 군함을 비롯한 전쟁장비들을 수많은 들이밀려고 획책하였다.

북남공동성명에 서명한 남조선 《대통령》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상범들을 다 전향시키라는 《특별지시》를 내린것도 미제의 군사적뒤받침에서 힘을 얻었기때문이었다. 《중앙정보부》수석요원놈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교도소에 《전권대표》로 내려와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북남공동성명이 채택된것만큼 《이제부터 나라 통일에서 리념을 버려야 한다.》고 뇌까린다.

이때 비전향장기수 최기석이 먼저 일어나 북남공동성명에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다고 했지 리념을 버린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리념을 버린다면 당신들은 《자유민주주의》리념을 버리겠는가고 드세게 반격하고 그에 뒤이어 리재영은 놈들에게 허튼소리 작작하라, 나는 내 눈으로 똑바로 보고 좋다고 인정한 세상에 대한 리념을 버릴수 없다고 단호히 선언한다. 이것은 작품이 높은 정치적견지에서 리재영을 비롯한 비전향장기수들의 투쟁을 그리고 있다는것을 보여주며 군사파쑈도당의 반통일적책동을 예리하게 분석단죄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장편소설은 정치성이 강한 작품으로 될수 있었으며 여기에 이 소설의 양상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있다.

리재영의 옥중투쟁에서 가장 빛나고 자랑스러

운것은 감옥안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무한한 감동속에 읽고 그 책들을 동지들에게 비밀리에 돌려보게 한것이다.

그 삼엄한 감시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회고록을 옥중투사들에게 선참으로 선전하여 《회고록열풍》을 일으키고 투쟁의 열도를 한층 고조시켰으니 이 얼마나 장한 일인가!

투쟁으로 이어진 30여년, 그것은 주인공이 수령에 대한 충정을 안고 불굴의 신념과 사생결단의 의지로 미제와 매국역적들의 폭압과 모략을 박차고 통일애국의 길로 힘차게 전진한 보람찬 행로였다.

열렬한 수령호모심과 뜨거운 혁명적동지애, 외유내강한 성격과 후더운 인정미로 하여 리재영의 형상은 사람들에게 비전향장기수의 아름답고 고상한 인간적모습을 가슴뜨겁게 받아안게 한다. 주인공형상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원형과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전형화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의 정당성을 실천적으로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소설은 주인공뿐아니라 각계각층의 인물들도 개성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동향과 민심의 추이를 잘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호상관계가 주인공을 축으로 하여 극적으로 맺어지고 매 인물의 운명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특히 독자들의 주목을 끄는 형상은 정진아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북의 《빨갱이》들의 손에 삼촌이 학살되었다고 오해한데로부터 《붉은 악마》라는 작품을 지어 《반공》교원의 칭찬을 받고 《네메시스》(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복수의 여신)가 되겠다고 맹세하였으며 대학시절에는 또 《반공》웅변대회에 출연하여 기업을 토하기도 하였다. 《네메시스》로 자처하며 북의 현실을 극도로 적대시해온 그였지만 리재영에게서 학살될줄 알았던 삼촌이 북조선에서 큰 농장의 부기사장으로 일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반공》의 망상에서 깨어나 량심적인 남편과 함께 민주화운동에 나서며 민족의 장한 아들인 리재영을 거울삼아 한생을 살아갈것을 다짐한다.

리재영의 둘째 형수 김윤희는 그와는 다른 사회적처지에서 가슴아픈 생활체험을 통해 각성되는 인물이다. 그는 시동생이 나라앞에 《죄》를 지었다고 간주하고 그 《죄》를 씻는다는 생각에서 반공파쑸분자들이 주관하는 《새마을운동》에 나서지만 그에게 차려진것은 불신과 박해뿐이었다.

그는 대전형무소에서 시동생과 면회한 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재영이의 접선자를 대라는

문초를 받고서야 비로소 자기가 이제까지 놈들에게 속히왔다는것을 알고 풍랑을 만나 북에 갔다는 시동생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고 항변하며 더는 놈들의 말을 듣지않는다. 보는바와 같이

그는 월남전쟁에서 부상당한 후과로 희생된 군인의 안해이면서도 《빨갱이》가족이라고 하여 짓밟힐대로 짓밟히는 그 피눈물나는 박해속에서 마침내 진실을 깨닫고 새 생활의 길에 들어서는 개성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풍랑으로 북조선에 갔다와서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에 감복되어 조직을 못하고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다가 체포되어서도 놈들의 고문에 굴하지 않으며 혀를 끊고 장렬하게 투신자결하는 최민선장, 《월북자》가족이라고 하여 온갖 박해를 받고 외진 산골에 쫓겨가 살면서도 수령님께서 정치를 펴시는 북조선땅에서 행복하게 살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한많은 세상을 떠난 《지가리》로인, 《기업가치고는 쉽지 않은 사람》인 민족자본가 정인수, 더러운 세상을 보지 않겠다고 바늘로 아래우 눈시울을 꿰매고 징역살이를 하는 주인공의 조카인 동해 등도 인상깊은 형상으로 개성화되어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자기 처남이었던 리재영을 북조선의 《간첩》으로 몰아 죽여버리려고 발악하는 《중앙정보부》과장이며 《법무부》차관인 장고웅을 비롯한 교형리들의 파멸과정을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반공, 반통일의 악마, 외세에 명줄을 건 매국자 사람의 허울을 쓴 야수, 인간쓰레기로서의 놈들의 추악한 면모를 적라라하게 발가내고 그들에게 죽음을 선고하였다.

오늘도 남조선에는 《유신》독재의 잔당인 《한나라당》족속들과 장고웅, 김창도, 우영찬과 같은 《반공》교형리들이 사상의 자유를 구속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반통일적이며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보안법》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그들은 이 시각에도 《보안법》에 걸려 리재영과 같은 무고한 사람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수많은 체포투옥, 고문학살하고있다.

반통일분자들의 파멸은 시간문제이다.

리재영의 길을 따르는 동해와 방웅구, 통일애국의 길에 나선 정진아와 그의 남편 신정복, 재영이의 형수 김윤희, 량심적인 기업가 정인수, 남편과 아들을 원쑤들에게 빼앗긴 최민선장의 어머니, 선량한 봄순이들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6.15북남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힘차게 싸우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재영의 딸이 태어났다는 편지를 받으시

고 온 나라 인민들의 축복속에 태어난 애기 이름을 축복이라고 지어주자는 친필을 보내주시었다. 이것은 비전향장기수의 값높은 인생에 대한 가장 열렬한 찬가이다.

소설은 리재영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축복을 받은 귀여운 딸애를 안고 남녘에 두고온 그리운 사람들을 애타게 그려보며 7천만겨레가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 축복받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하는데서 끝나고있다.

작품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안고사는 주인공을 비롯한 이 모든 형상들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통일대강이 있고 선군의 위력과 민족공조로 미제를 제압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은 기필코 이룩될 것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힘있게 천명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장편소설 《축복》의 생명력과 견인력, 그 거대한 현실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작품은 장편소설다운 폭과 깊이가 있으며 인물들의 성격이 개성적이고 지성도가 높으며 심리묘사가 생활적이고 정서적색깔이 짙다. 이때문에 독자들이 그 부피두터운 장편소설을 단숨에 읽어 나가며 작품의 세계에 깊이 공감하게 되는것이라.

이 소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으로 창작된 것은 작가의 높은 책임감, 원형의 성격과 생활에 대한 진지한 연구, 깊은 창작적사색과 성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인간과 생활을 높은 정책적견지에서 보고 그리며 인물들의 정신세계, 인정세계를 깊이 파고드는 좋은 창작경험은 앞으로 창작가들이 성과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창작실천으로 힘있게 받들어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리라고 확신한다.

8. 15의 폭풍을 불러오리라

전승일

이 웬말이나
바다건너 사무라이땅에서
어지럽게 울려오는 소리는
《독도는 일본땅》
《독도사수》

하늘가에 흐르던 구름도
소스라치며 버락을 쏟는다
푸르청청한 나무들도
서슬푸른 총창처럼 솟구쳐 일어선다
백두대산줄기에 뉘을 둔 독도가
어찌 일본땅이 된단 말이나

가지고싶으면 가지는 물건이
땅이 아니다
명줄처럼 빼앗기면 죽는것이
바로 땅이기에
이 나라 산야마다 더운 피 뿌리며
수십년을 백두의 선렬들이
목숨으로 되찾은 내 땅이 아니더냐

칼끝으로 꺾여든
《을사5조약》 문서장에
날강도의 날조도장이 내려찍힌 그날로부터
사무친 한세기가 흘렀거니

나라를 빼앗겨
노예처럼 울며 휘둘러졌던 민족이
보라, 쌓이고쌓인 원한에
불을 달고 일어섰다

죽어서도 눈감지 못한 수백만 원혼들이
하늘에 땅에 사무친 원한이
복수해다오 피의 결산을 절규하는데
또다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네놈들때문에 상처많은 민족의 가슴에
모진 칼질을 하는것이나

이 나라의 하늘과 땅이 무섭게 노려본다
네놈들과 결산할것이 너무도 많은
우리 민족의 분노와 원한이
얼마나 사무친것인지
억천만배로
세상앞에 보여주리라

독도가 제땅이라고
또다시 피묻은 칼을 쳐드는 사무라이땅에
무서운 버락이 되어
일본군국주의에 영원한 멸망을 안길
오, 조선은
60년전 8. 15의 폭풍을 불러오고있다

통일의 봄비(외 1편)

김 해

씨앗물린 봄벌에
단비내려 활력을 주듯
기나긴 분렬의 세월에
통일의 념원 씨앗으로 품고산 가슴들에
봄비가 내렸다 6월의 봄비

계절이 되면 냇이 없는 초목들로
움트고 꽃이 피고 열매맺건만
겨레가 바라는 통일의 꽃은
분렬세월의 기나긴 이랑속에
씨앗으로 묻혀 60년!

강토 3천리에 통일의 꽃이 피라고
7천만 가슴들에 통일의 꽃이 피라고
우리 민족끼리 모여앉아
통일의 활력을 이 땅에 안아온
6.15북남공동선언!

정녕 그것은 봄비였다
평양상봉의 하늘가에 추켜든
북남공동선언의 글발은
온 겨레의 눈물에 젖었거늘
비는 하늘에서만 내리었던가

한날한시에 쏜은 피같은 눈물에서
우리는 네 눈물, 내 눈물 찾지 않았다
너의 피, 나의 피 가르지 않았다

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 자신임을
피로 새긴 북남공동선언

눈물이 진하면 피가 되고
피가 진하면 목숨이 되듯
너무도 기나긴 분렬의 세월이어서
선언의 글발은 통일의 혈서
선언의 글발은 통일의 언약

겨레의 마음에 내린 6월의 봄비
불에도 타지 않고 세월에도 마르지 않을
무성한 계절의 봄비는
분렬세월 가셔내는 애국의 봄비
분렬의 장벽을 녹이는 통일의 봄비거니

통일의 봄비 북남공동선언은
강토도 하나임을 확인한 선언
민족도 하나임을 보여준 선언
통일이 애국임을 자각한 선언
분렬이 매국임을 깨쳐준 선언

오, 6월은 밤은 짧고 낮이 길듯
분렬세월 밤처럼 보내고
통일의 세월 낮처럼 맞자고
우리 장군님 마련하신 북남공동선언
우리 민족끼리 불러올 통일의 언약이여!

쌍둥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누가 남녘이 고향이고
누가 북녘이 고향이냐고
우리 물어 무엇하랴
둘이면서도 하나의 모습은
한땅에서 한피줄 타고 태어난 쌍둥이형제

태어나 태를 묻은 곳 다르고
키워준 부모 서로 달라도
한이영아래 한방안에서
한가마밥을 한그릇에 담아먹으며 자란듯
모양도 키도 마음도 하나같거니

왜라서 너희들
순간이라도 헤어져 살라
헤어져 산 억울한 세월을

천만토막내도 풀길없는 원한 베고 숨진
그 원혼들의 퍼런 눈동자가 하늘이 된 이 땅

넘어질듯 달려와
두손우에 열싸 받들어올린것은
하나가 된 조국의 모습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겨레의 생명 통일된 조국

장하다 딸들아
하나될 민족을 위해
하나될 조국을 위해
춘하추동 조국을 목숨우에 받들고 선 저 딸들은
나와 너의 딸들이다
통일조국의 딸들이다

일제의 과거죄행을 끝까지 절감하며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미쳐 날뛰는 일본반동들에게 철추를 내리자!

-공동구호에서-

◇단평◇

선군문학의 붓대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녁

박애숙

강도 일제에 의하여 이 땅을 휘감고있던 식민지노예의 쇠사슬이 끊어져나가고 조국해방의 새날이 밝아온 때로부터 어언 6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있으며 그 침략적이고 략탈적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있다.

해방동인들이 이제는 예순이 다 되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일제놈들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원한과 증오심은 더해만 가고있다.

시대정신의 대변자인 우리 문학은 응당 일제놈들의 본성을 폭로단죄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반일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것은 선군문학의 붓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과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로동계급적관점과 입장을 지키며 착취제도와 제국주의를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지 않은 작가들이 선군시대 오늘의 이 절박한 요구에 맞게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에게 끼친 과거죄행과 오늘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는 반일주제작품창작에 응당한 힘을 돌리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최근년간 잡지 《조선문학》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인 《돈지갑》, 《채송화》, 《나의 가정이야기》 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다.

단편소설 《돈지갑》, (《조선문학》, 강귀미작, 주체90(2001)년 12호)은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나라를 빼앗겨 살길없고 사랑하는 자식 하나 공부시킬수 없어 현해탄을 건너갔던 한가정의 기구한 운명사를 할아버지, 아버지, 그 손자가 대를 이어 물려오며 유산으로 보관하고있던 하나의 낡은

돈지갑을 놓고 진실하고 감동깊게 형상하였다.

소설은 돈을 벌어야 아들을 공부시킬수 있다는 모진 마음을 품은 할아버지가 《무명돈주머니》라는 별명이 불을만큼 허리춤에 차고다니던 돈지갑을 소매치기당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힘겨운 토목로동으로 한푼두푼 돈을 모으면서 그토록 즐기던 담배도 끊고 탁배기 한사발도 마다하며 1년 남짓 모아 약간이나마 배가 불룩해진 돈주머니를 한순간에 소매치기당했으니 할아버지는 아들을 공부시키려던 한가닥의 희망마저 짙그리 빼앗기고마는것이다.

《별수 없지. 제 나라도 눈을 번히 뜨고 빼앗긴 바보가 돈주머니인들 왜 떼우지 않겠냐. 제 나라를 빼앗은 놈들의 땅이라는걸 잊었던게 잘못이지.》

나라없는 노예의 신세가 되어 남의 나라 땅에 와서 그가 당하는 이 기구한 운명이야말로 나라없는 백성의 설움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이다.

그러나 왜놈의 땅에 건너가 선대가 체험한 불행은 시작에 불과했다.

《돈주머니 하나 마음놓고 차고다닐수 없는 이놈의 왜놈땅에서 살아가자면 한시도 멍해있지 말고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

선대의 이른바 《인생교훈적인 훈시》를 명심하고 살아왔지만 나라를 빼앗긴 동포들의 운명은 더욱 처참하고 잔혹해지기만 했다.

아버지는 바람을 막고 비를 그을 한칸 집도 없어 건설장요에서 텅굴고있는 토관을 유일한 《집》으로 삼고살아야 했다.

소설은 이역땅에서 피눈물나는 고생살이를 하는 동포들의 정상을 매우 생동하게 펼쳐보여주고 있다.

찬비내리는 곳은 날 밤 아버지가 토관속에 주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밖을 내다보는데 별안간 다른 《침입자》가 나타나는것이다.

유일무이한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침입자와 싸우다가 알아보니 그도 아버지나 다름없는 집없는 동포였다. 하여 그들이 화해의 뜻으로 어깨를

룩 치며 나라없고 집이 없는 민족의 설움을 서로 통탄하는 장면은 정말로 눈물겹다.

작품은 간도대지진사건과 일제의 조선사람들에 대한 악착한 학살만행을 분노에 서린 예리한 필치로 형상하였다.

할아버지는 프래기인부로서는 큰 돈이라 할수 있는 몇푼의 돈이 들어있는 돈지갑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으나 아들은 중시 대학은커녕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였다.

소설은 3대째 물려오는 유물인 색날은 돈지갑에 갇든 피눈물나는 사연을 주축으로 삼고 우리 인민에게 끼친 일제의 억압과 착취가 얼마나 집요하고 야수적이었던가를 잘 형상하였다.

작품은 이처럼 일제의 억압과 착취, 민족적멸사와 비인간적학대, 야수적인 학살만행속에서 험난한 인생행로를 거처온 한가정의 운명사를 펼쳐보이면서 참다운 조국을 잃은 인민은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삶의 철리를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꼭절많고 수난많은 주인공들의 운명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참된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빈 돈지갑을 물려주었지만 공화국품에 안겨 모두가 대학을 졸업하고 공훈설계가, 박사, 부교수, 공훈과학자의 영예를 지니고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나라의 역군으로 되었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사회주의조국만이 우리 인민의 오늘 의 운명도 미래의 희망도 빛나게 꽃피워줄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더욱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단편소설 《채송화》는 《돈지갑》과는 다른 각도에서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끼친 범죄적인 착취와 약탈, 포악하고 잔인한 민족적인 박해를 형상적으로 펼쳐보여주었다.

《돈지갑》의 주인공들인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돈을 모아 자기 운명을 개척해보려던 민족적인 수난자들이였지만 《채송화》의 주인공인 《나》의 아버지는 수재로서 어떻게 하든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여 민족적인 긍지와 존엄을 지키며 미래의 삶도 개척해나가겠다는 결심을 품고 그 길에 들어서는 인물이다.

아버지는 드디어 최우등성적으로 수석의 자리를 차지하고 메달과 표창, 졸업증도 받아들고 학교를 졸업한다. 몇백명의 일본인학생들을 누르고 유일하게 수석학생으로 표창을 받고 졸업한 그였지만 조선사람이라는것으로 하여 가는 곳마다에서 취업대상에서 불합격을 받게 되며 마지막에 그에게 차례진것은 징용딱지였다.

조선사람에게 재능과 지식이 무슨 소용이라.

그 재능과 지식을 귀중히 여기고 아껴줄 조국의 품이 없으니 그한테 차례진것은 아프리카노예들처럼 배를 타고 남태평양군도의 어느 한 섬에 가서 지옥같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다가 죽음으로 가는 길뿐이었다.

소설은 수백만의 조선청장년들을 죽음의 징용터로 몰아간 일제의 죄행을 끝없는 증오심을 품고 력사앞에 고발하면서 참다운 조국이 없이는 그 어떤 지식도 재능도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줄수 없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으며 사람들에게 참다운 사회주의조국의 귀중함을 심장깊이 간직하도록 하고있다.

단편소설 《나의 가정이야기》는 앞의 두 작품과는 또 다른 운명선을 가진 주인공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조선민족에 대한 적대시사상과 멸시정신이 골수에까지 배겨있는 일제의 야수적인 본성을 까밝히고있다.

소설의 주인공은 과학자로서 《내 고향의 빛같》을 얻기 위한 염색소를 연구하는 과정에 안해와 아들과 생리별당하기도 하고 집까지 팔면서 끝내 성공하였지만 그 성공이 빛을 보지 못해 절통한 마음을 안고 죽고만다.

소설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우리 과학자들의 수난의 력사와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누리는 우리 과학자들의 참다운 삶의 보람을 아버지와 아들의 대조되는 운명을 통하여 부각시켜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어도 과녁은 바꾸어지지 않았다. 선군문학의 붓대가 이 과녁을 향해 울리는 총포성을 멈추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칼을 품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백년속적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경각성을 늦출수 있다.

오늘의 현실은 반일주제의 작품들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 작가가 모두 일제를 겨냥하여 붓대의 조준을 맞추고 창작의 방아쇠를 당겼다는것은 아주 잘된 일이다. 그리고 같은 주제의 작품이지만 그 형상의 심오성, 다양성으로 독창적인 형상을 창조했다는것은 창작실천적으로 일련의 시사를 주고있다고 본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창작에 구현하여 지난날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일제의 야수적만행과 현시기 일제놈들의 침략적야망과 죄악을 시대와 력사앞에 준렬히 폭로단죄하고 규탄하는 반일주제의 작품창작에 탐구와 사색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지닌 우리 작가들의 숭고한 시대적본분이다.

대동강의 시인

정지상은 평양태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시적재능이 남달리 뛰어났다. 그는 세살때 빨래하러 나가는 어머니의 등에 업히어 대동강에 날아에는 갈매기를 보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훨훨 날아에는 흰 갈매기
머리는 하늘 우러러 노래부르네
하얀 털 물위에 띄워놓고
붉은 발로 맑은 물을 밟는구나

정지상이 남다른 시적재능을 가지고 자라 세상에 유명해지자 당시 문호로 자처하던 김부식은 그를 은근히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정지상에 대한 김부식의 시기심이 더 심하게 된것은 그들이 절간에 놀러 갔다가 서로 시짓기를 한 뒤부터였다. 그때 정지상은 이런 시구를 읊었다.

절간에서 념불을 다 마치고나니
하늘이 유리처럼 맑구나

김부식은 이 시구를 보고 감탄하면서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지상은 머리를 저었다. 그러자 김부식은 자기보다 재능이 뛰어난 정지상을 없애버릴 간악한 마음까지 먹게 되었다. 김부식은 생각했던대로 그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묘청반란을 계기로 정지상에게 묘청과 내통했다

는 생트집을 잡아 그를 처형하게 했던것이다.

정지상을 죽인 뒤 김부식은 자기를 압도할 시인이 없다고 더욱 우쭐땀다. 어느 하루 시 한구절을 지어놓고 그는 천하명구라고 자랑하였다.

천오리 버들가지 푸르고
만점의 복숭아꽃 붉고나

이날밤 김부식은 제 흥에 겨워 시구를 읊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죽은 정지상이 생시처럼 나타나 김부식의 밤을 치며 꾸짖었다.

《천오리인지 만점인지 네가 세여보았느냐? 이 따위도 시라고 짓는단 말이냐?》

정지상은 호되게 욕설을 퍼붓고 붓을 들어 시구를 고쳐주었다.

오리오리 버들가지 푸르고
송이송이 복숭아꽃 붉고나

고친 시를 본 김부식은 얼굴이 뜨거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후 전하는 말에 의하면 김부식은 자기보다 뛰어난 훌륭한 시인을 죽인 불안과 공포로 하여 제 명을 다 살지 못하고 뒤편에서 갑자기 죽었다고 한다.